



Teaching Notes For Cade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ALVATION ARMY DOCTRINE AND HANDBOOK OF DOCTRINE

구세군교리 형성의 역사적 배경



by Major Hong, Sung-hyo D. Min.

The Salvation Army
Officer Training College



구세군교리 형성의 역사적 배경

서론	2
I. 교리의 일반적 이해	14
1. 용어 해설	14
II. 구세군 11 교리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제설	22
1. 고든 마이클	22
2. 필립 니덤	22
3. 존 카우스	23
4. 창립자의 통합적이고 체험적이며 성서적인 신앙	35
III. 구세군 창립자의 다양한 신앙세계	38
1. 윌리엄 부스와 회중교회	39
2. 윌리엄 부스와 감리교 뉴 커넥션 교리	41
3. 윌리엄 부스와 복음주의 연맹의 9가지 신조	47
4. 윌리엄 부스와 프렌드파의 15교리	49
IV. 구세군 교리 형성의 태동기	57
1. 기독교 선교회	57
V. 구세군 교리 형성의 성장기	62
1. 구세군 11교리	62
VI. 구세군 교리 편람의 변천사	77
1. 구세군 국제본영과 구세군 교리 편람	77
2. 한국 구세군과 교리편람	84
결론	91
참고문헌	102





서론(Introduction)

이 글은 1984년 7월 2-5일간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구세군을 구세군답게’라는 주제로 한 여름 구세군 병사 수련회에 참석한 후 영문과 사회복지 시설사관으로 35년간 사역하면서 하사관들에게 구세군인은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는 것을 강의했던 것을 구세군사관학교에 재직하면서 구세군 사관학생을 위해 복음적이며¹⁾ 영적인²⁾ 구세군교리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구세군교리 편람의 변천사³⁾를 재정리 한 것이다.

특히 구세군 교리가 형성되기까지의 역사를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확인하는 단순한 교회사 연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세군이 111개 국가에서 동일한 구세군 교리가 현대정치, 사회, 무화를 형서어하고 있는 국가에 멀티 폴하게 접목되어 갔는지를 신학, 철학, 역사학적인 관점을 추구하려 는데 있다. 세계 각국 백성의 정신과 역사에 구세군이 매우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윌리엄 부스의 선교사역은 1866-67년 사이에 동 런던 부흥협회(The East London Revival Society)⁴⁾의 지도자로 수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복음전도협회는 초 교파적 모임이었고, 신조는 성서였다. 윌리엄 부스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⁵⁾ 윌리엄 부스는 자기와 연합하여 부흥사역에 협력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환영했다. 당시 윌리엄 부스의 생각은 어떤 새 종파를 조직하고 창설(organization)하거나, 기성교회와 분리된 어떤 새로운 교파(para church)를 세우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단순히 교회와 관계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교회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구세군은 분명히 국제적인 조직

1) 구세군 교리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하며, 신자들에게 성결의 체험을 가르쳐 주어야한다.

2) 구세군 교리는 영적이다. 지나친 의식을 반대한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의식이나 물질적 수단 없이도 직접 사람의 영혼과 교통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상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한 분이시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곧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3) General, 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London: Salvation Army, 1969), p. 4.

4) Robert Sandall, The History of the Salvation Army. Vol. I. 1865-1878 (London: Nelson, 1947), p.72. 동 런던 부흥 협회(The East London revival Society)시절은 동 런던 기독교 전호협회(The East London Christian Evangelisation Society)가 동 런던 기독교 선교회(The East London Christian Mission)로 명칭이 변경되는 시기

5) Earl Robinson, "The History of Salvation Army Doctrine" Word & Deed, Vol. II, No.2, (Alexandria: Salvation Army, 2000), p.33



체(**international organization**)로 111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메트 베취(**Mat Badger**) 사관학장은 사회학적 맥락에서 구세군이 설립된 과정을 피터 워스레이(**Peter Worsley**)가⁶⁾ 언급한 데로 단체가 설립되려면 청중(**Audience**)과 추종자(**Following**) 운동(**Movement**) 그리고 조직(**Organization**)이 있어야 하나의 단체(**Institution**)가 형성된다고 했듯이 구세군 창립과정도 비슷하다고 했다.

초기 구세군 사역자들은 사회봉사 사업과 급진주의적인 입장에서 전도 설교로 시작한 것이다. 부스의 전도전략은 도시빈민을 향하여 공략했다. 빅토리아 여왕시대 공민권도 박탈당하고, 사회적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부스는 런던 동부의 빈민가의 천막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부스는 그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다.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부스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곳이 바로 자신의 사역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부스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캐서린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운명을 이제 알았소.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여러 해 동안 구원하고자 갈망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밤 난로가 활활 타오르는 화려한 술집 문을 지날 때 내 귓전에 스치고 지나가는 음성이 있었소. '네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이교도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 네가 어디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을 만날 수 있느냐?' 나는 즉시 마음속으로 나 자신과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 위대한 사역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소." 이처럼 남편의 일방적인 선언에 대하여 캐서린은 당황했다. 런던 동부의 빈민가에서 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생활의 보장을 받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캐서린은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겨왔으니까요."라고 대답을 했다. 부스는 자신을 '나는 인생의 하수구에 그물을 치고 청소하는 도덕적 청소부'라고 묘사하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류계급 가운데서도 최 하류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 이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아사로 인해 죽어나갔고, 유대인 강제 거주 구역이며 종교적 핍박을 피해 프랑스에서 16-17세기에 피난 온 위그노(**Huguenots**)⁷⁾파들이 생활하는 지역을 자슨 데비에 킬데아(**Jason Davies Kildea**) 부위는 구세군 선교의 대상자들은 변두리 인생(**Social Marginalisation**)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6) Cadet Mat Badger, The Changing Nature of Salvation Army Officership: 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Institutionalization on the Mission of the Salvation Army. 참조

7) <http://www.geocities.com/huguenoteblad/hist-hug.htm>



어떤 종교가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지녔다고 선언하면서도 인간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경제 상태나 인간의 영혼을 불구로 만드는 사회적 조건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무미건조한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와 같은 종교야 말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즐기는 견해 대로 민중의 아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는 그의 말대로 지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취급하며 시간과 영원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종교는 위로 향하는 수직선상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향한 수평선상에서도 작용해야 한다. 즉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인간을 위로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과 인간과 또 다른 인간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 주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독교의 복음이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한다. 즉 하나는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에 으르게 하며, 또 하나는 인간이 처한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켜 그 인간의 영혼에 하나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한 마다로 기독교 복음은 구원의 능력과 사회변혁의 기능, 이 둘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가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⁸⁾

부스는 선교를 하는 동안 신약교회의 전도적 사명을 재발견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소외된 빈민들에게 무관심한 당시 교회들을 향하여 대응책을 세우기를 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선교회는 가난과 질병, 굶주림과 무지와 사회악 등으로 고통을 받고 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부스는 교회가 빈민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히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아닌 가난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진정한 기독교(**aggressive, active Christianity**)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리처드 니이버(**Richard Niebuhr**)가 말하는 복음 선교적 사회주의⁹⁾ (**Evangelical Socialism**)에 비전을 둔 캐서린은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¹⁰⁾ 정신에 입각하여 강력히 주장했고,¹¹⁾ 부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구원(**Salvation in the Slums**)에 생애를 불사르기 시작했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와 더불어 공산당 선언을 확립한 경제학자인 프레더릭 엥

8) Martin Luther Jr. King, *Stride Toward Freedom: the Montgomery Story*.(New Your: Harper & Brothers, 1958) 참조

9) H. Richard Niebuhr,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New York : Henry Holt and Co, 1929), p.75.

10) Frank Baker, "Wesley's Principals for Social Action", *Good News Magazine*, January/February 1985

11) <http://www.messiah.edu/whwc/gallery.htm>



겔스(Frederick Engels)¹²⁾는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의 영문판(1892) 서론에서 당시의 초기 구세군이 1)초대교회의 전도활동을 부활시켜 2)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3)종교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대항하며, 4)초대 기독교 계급의 저항 주의적 성격의 공동체를 육성하려고 한다. 라고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프레더릭 카우츠(Frederick Cautts, 1963-1969)대장은 엥겔스의 구세군에 대한 종교적이며 사회과학적인 분석에 대하여 첫째 내용은 옳은 표현이고, 둘째 내용은 반쯤 옳은 표현이며, 셋째와 넷째 내용은 전혀 틀린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구세군의 입장을 바로잡아 주었다. 사실 윌리엄 부스는 당시 노동자 운동인 인민 헌장 운동(The Charter)¹³⁾에 서명한 일이

12) Frederick Engels, Socialism: Utopia and Scientific(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62), p.75. <http://csf.colorado.edu/psn/marx/Archive/1880-SUS/>

13)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국가로서 번영된 산업과 통합된 국가에 입각하여 정치,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있었다. 명예혁명 이래 자유주의적인 의회제정부가 확립되었으며,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정치적 발언권이 증대되어 가는 속에서 혁명이 아닌 개혁을 상징하는 국가로 받아들여졌다.

일찍이 식민지경쟁에서 승리하고,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 및 사회구조에서 크게 변모된 영국은 1820년대 초부터 메테르니히 체제에서 벗어나 점진적 개혁이라는 독자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의 영국의 상황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광범위한 민중은 참정권이 배제된 채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또한 산업화의 과정에서의 인구이동으로 실제 주민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부패선거제도 존재했다. 그런가하면 큰 산업도시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대표권이 결여된 산업도시도 있었다. 여기에 선거권은 재산권에 입각하여 제약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평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리하여 19세기 초의 영국에는 상층계급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 집단으로 구성된 상층계급은 정치, 문화적 지배를 행사했고, 의회는 이들의 세력 근거지였다. 상원이 토지귀족들의 세력근거지였다면 하원에는 귀족의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협조자였던 상층 부르주아 집단의 세력이 결집되어 있었다.

의회정치제도는 양당제도로 이어졌다. 전통과 유서를 자랑하는 양대 정당에 포진했던 집단 역시 귀족과 부르주아의 상층계급이었고 따라서 양당은 계급이라기보다는 가치 및 이념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휘그(the Whigs)는 왕과 국가의 전제에 대항하는 의회의 옹호자로서, 혹은 시민적이고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반면 왕당파인 토리(the Tories)는 왕권과 성공회, 대영제국의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양당은 교대로 집권하면서 모두 기존의 체제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고 눈에 두드러지는 모순과 문제를 시정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영국의 상황은 과격한 개혁론자 내지 혁명론자의 도전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의 지배집단은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초기에는 단호하게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두드러졌던 소요는 자본주의제적 생산양식의 확산으로 위협을 느낀 장인 층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러다이트운동(The Luddites)이었다. 일자리를 잃어가던 장인들의 분노가 기계파괴의 움직임으로 표출되면서 초기 산업화시대의 진통이 폭발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1819년에는 선거법개정을 요구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피털루의 대학살(the Peterloo Massacre)’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상과 같



이 정권의 완고한 대응은 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여, 자유주의와 개혁의 나라 영국이라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양상을 보였다.

19세기 중엽으로 들어가면서 영국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개혁 역시 자유주의의 오랜 전통을 배경으로 한 부르주아 중심적인 것이었다. 오랜 소요 속에서 상층집단 역시 사회 안정을 위한 현실적 타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자유당과 보수당은 경쟁적 개혁정책을 실현시켜가면서 일련의 개혁을 추구해 나갔다.

이리하여 1829년에는 오랫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구교도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구교도 해방령(The Catholic Emancipation Act)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세기 영국 자유주의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선거법개혁(the Reform Bill)일 것이다. 개혁은 단시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되어갔다.

1832년에 이루어진 선거법개혁은 재산소유자격에 입각하여 산업중산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혁이었다. 이는 산업혁명에 따른 인구이동의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부패선거구를 폐지하고 신흥공업도시에 선거구를 배정했다. 이리하여 선거권이 산업자본가에게는 확대됐으나 노동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불충분한 선거법개혁은 산업 자본가 층에 협조했으나 소득이 없었던 노동자들의 저항을 야기했다.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요구하는 차티스트운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했다. 이는 1830년대부터 1840년대에 걸쳐서 지속되었던 움직임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했다.

차티스트들은 근대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이룬 「인민헌장」을 작성하여 성년남자의 보통선거, 의회 의원의 재산자격 철폐, 의회의원에 대한 보수지급, 매년선거 등 민주적인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차티스트 운동은 좌절을 경험하고 만다. 우선 그것은 정부와 상류층의 단호한 탄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운동 내부의 세력 분열에 기인하기도 했다. 곧 과격 혁명파와 평화적인 타협과 사이의 분열이 나타난 것이다.

차티즘은 1848혁명이 퇴조하면서 쇠퇴해갔다. 그러나 차티즘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의 맹아를 이루었다. 또한 당시로서는 시기상조였던 이 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인민헌장」의 원칙은 수차에 걸친 선거법개정으로 점차 실현돼 나갔다. 이후에도 선거권확대에 대한 요구와 움직임은 지속되어, 1867년에 이루어진 선거법개혁에서는 노동계급의 선거권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1884년의 선거법개혁에서는 성년남자의 보통선거가 실현되었다.

선거권확대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인 입법과 개혁이 이루어졌다. 공장법(1819, 1883), 노예제폐지(1833), 노동조합법(1871)과 같은 하층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184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으로는 참정권을 획득한 산업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위한 제반 입법이 이루어졌다. 곧 곡물법의 폐지(the Anti-Corn Law, 1845)와 항해조례(the Navigation Act)의 폐지(1849) 등으로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가 증진되어갔다.

또한 20세기 초에는 국민보험법으로 강제적인 의료보험 및 실직보험제도가 마련됐다. 영국은 언론, 출판의 자유 및 교육의 보급도 확산하고 산업혁명이 초래한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19세기 후반에 빛나는 빅토리아기를 맞이하고 20세기 초에는 민주적인 복지국가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영국에는 여전히 모순이 존재했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아일랜드인에게는 영국 시민과 같은 제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아일랜드인의 저항과 독립의 움직임에 직면하여 영국은 단호한 탄압의 자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또한 19세기말로 들



있었다. 하지만 부스는 노딩햄 웨슬리 예배당(**Nottingham Wesleyan Chapel**)에서 개심한 후 강렬한 느낌을 체험한 후 새로운 배출구를 찾게 되었다. 부스가 1908년 4월 스테드(**W. T. Stead**)와 사회주의(**Socialism**)이란 주제로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구세 사회주의자(**Salvation Socialist**)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구세 사회주의자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자(**Fabian Socialist**)¹⁴⁾와는 다른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지요.”라고 한 내용이 매일 신문(**The Daily Chronicle**)에 기재되었다.¹⁵⁾ 당시 역사가들은 부스가 이끄는 구세군이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¹⁶⁾ 라는 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부스 스스로 경제주의자나, 사회학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복음주의자라고 했다.¹⁷⁾ 그는 오직 영혼 구원(**full salvation**)을 위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전통적인 교회의 기능을 갱신해 진지하게 영혼에 대한 관심(**concern for the souls of the people**)을 다시 찾게 하려는 영적 개혁운동을 벌이는 것이 목적이었다.¹⁸⁾ 그는 보편적 교회의 복음 선교 기능을 넘어서 요즘에 재발견된 선교의 개념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어 갔다. 부스는 복음전도를 위한 사회사업(**Evangelical Social Work**) 즉 세상 속에서 죄악과 빈곤과 나태로 인한 잃은 양을 찾아 권하고,¹⁹⁾ 그들이 세상 속에서 처해있는 육체적, 물질적 난관을 극복케 하여 인간화 시켜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²⁰⁾

구세군 최초의 교리는 선교회가 창설된 이래 개심자 가운데 애주가들이 사관된 자들이 많았고, 타 교파에 출석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선교회에 머물면서 빈민을 위한 복음 선교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여 사관으로 임관된 분들과 신조를 같이 하고 협동하기 위

14) 점전적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1883년 10월 24일 영국에서 Edith Nesbit와 Hubert Bland가 사회주의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다음해는 웨이커 교도인 Edward Pease와 모임을 함께하게 되며, Havelock Ellis, 또 Frank Podmore와도 관계를 맺는다.

<http://www.spartacus.schoolnet.co.uk/Pfabian.htm>

15) Aarch R. Wiggins, The History of the Salvation Army Vol. V. 1904-1914(London: Nelson, 1968), p.292.

16) Raymond Postgate, The Common People(London: Methuen, 1961).

17) Frederick Coutts, Bread for My Neighbour(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8), p.20.

18) Minnie Lindsay Carpenter, William Booth(London: The Epworth Press, 1942), p.49 .

19) Frederick Coutts, No Discharge In This War(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4), p.102.

20) William Booth, In Darkest England and The Way Out(London: Charles Knight & Co. LTD, 1890). p.17.



해서 교리가 필요했다.²¹⁾ 부스는 1867년차 보고에서 “우리는 어떤 교파에 편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교리는 성경에 있으며,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앙과 실천에 표준으로 삼는 신자들과 심령 부흥사업 (revival work)에 전심하는 동역자들(co-workers)을 중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²²⁾ 개심자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할 문서 (document)가 필요하게 되어 7교리를 제정하게 되었다.

1875년 선교회의 헌장엔 1870년 1차 총회에서 채택된 7교리²³⁾와 선교회의 규칙 (Rule of the Church Mission)이 첨부되었다. 고든 마이클(Gordon Michael) 정령은 선교회의 규칙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873년경 으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²⁴⁾ 했으나, 라벌 샌들(Robert Sandall) 정령 은 1874년 회의에서 채택된 선교회 규칙을 1875년 확인 후 발표했다²⁵⁾고 했다.

제3차 세계 구세군인 대회가 1904년 런던에서 개최될 때 윌리엄 부스는 49개 군국 대 표들이 모인 가운데 모는 회원들로부터 1878년 의정서에 기록된 구세군 명칭과 구세군 교리에 대하여 찬성으로 재확인했다. 그리고 구세군 교리는 바꿀 수 없다. 구세군이 존재하는 한 이 교리는 구세군의 헌장이라고 했다고 구세군 10대 대장 크라렌스 와 이즈맨(Clarence Wiseman, 1974-1977)은 회고했다.²⁶⁾ 1980년 구세군 행동 강 령(Salvation Army Act)²⁷⁾이 추가되기 전까지 1878년 구세군 창립 문서에 11교 리가 채택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세계 111개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 를 사용하는 구세군병사의 신앙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있다.

21) The Salvation Army, "Chapter 5, Section 1-1 The Doctrines of The Salvation Army", Orders and Regulations for Soldiers of the Salvation Army(www.salvationist.org/orsold.nsf), Rightmire, R. David. Sacraments and the Salvation Army: Pneumatological Foundations,(London: The Scraecrow Press, 1990), p.29.

22) General. op.cit., p.2.

23) Sandall, op.cit., p.263.

24) Gordon Michael, "Salvationist Doctrines," The Officer, Vol.24 No.5(London: Salvation Army, 1973), p. 236.

25) Sandall, op.cit., p.281.

26) The Salvation Army, Salvation Army Year Book 1976, (London: Salvationist. 1975), p.9.

27) 1980년 구세군 행동강령은 구세군이 행정과 관습에 차이가 있더라도 완전한 기독교의 일부분이 다. 구세군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주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강조하는 신앙조항들 이다. 구세군 교리의 목적은 교육, 기독교의 진흥과 빈곤을 제거하여 온 인류가 생활하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다.



구세군의 문서 출판의 목적이 구세군 자체의 목적과 동일하게 구원받아 성화된 남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²⁸⁾인 것처럼 구세군 교리형성의 역사적 발전의 배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구세군 병사에게 구원의 도리를 묻는 자에게 성서 신학적이며 교회사적으로 이해하여 자신 있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유능한 구령자(**soul winner**)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완전구원(**Full Salvation**)의 길로 인도하는데 있다.(뵈전 3:15, 요 1:19) 구령을 위한 게릴라 요원인 구세군 병사가 제2의 축복인 성결을 체험토록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정체성(**identity**)을 재확립하고(딤후 1:1-4, 딤후 2:1) 다른 복음을 예방하고 어떤 종교 철학적 학설로 인하여 구세군이 분리되는 일어 없이 결속하려는데 있다. 특히 디트리히 본헤퍼(**Deitrich Bonhoefer, 1906-1945**)가 "제자직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Christianity without discipleship is always Christianity without Christ**)"라고 했듯이 구세군 병사가 만인제사장직분을 충성된 사람에게 필수적인 학습내용을 지혜롭게 전달하여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구세군 병사의 신학(**Soldierships Theology**)훈련을 지속하려는데 있다.(엡 6:10-17; 딤후 6:12; 딤후 2:2-4)

2002년 구세군 제17대 대장으로 선출된 후 존 라아슨(**John Larsson, 2002-2006**)은 임기동안 구세군 선교의 삼중 본질인 영혼 구원(**to save souls**), 성도 육성(**to grow saints**), 고난당하는 인류를 섬기는(**to serve suffering humanity**) 사역²⁹⁾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이 위대한 사역(**the holistic ministry**)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세군 병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병사들에게 가르쳐 사람을 살리는 유능한 구령자(**soul winner**)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스도의 구령을 위한 게릴라 요원들의 성결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레일톤(**George Scott Railton, 1849-1913**)부장이 성결의 은총을 누리지 않고서는 구세군 사관직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듯이 구세군은 성결의 체험과 성결한 삶의 실천을 강조했다.³⁰⁾ 특히 존 라아슨(**John Larsson**) 대장은 이 시대에 구세군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한곳으로(**A force**) 구축해야 한다. 구세군 선교의 고통을 감내하며, 자아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28) General. Orders and Regulations for Editorial and Literary Personnel(London: IHQ. 1990), p. 5.

29) John Larsson, "Renewal!" The Officer, November / December 2002(London: Salvation Army, 2002), pp.4-5.

30) 기독교의 실천은 기독교의 윤리적, 도덕적인 행위요, 이론을 실천하는 일이며, 신앙과 행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문제다.



영문(**Our Corps**)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자. 둘째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인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주자. 셋째로 통합선교(**integrated mission**)를 통해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을 모든 사람(**whole person**)에게 온전한 선교(**whole mission**)를 하도록 주력하자. 넷째로 지역사회에 있는 각계각층을 폭 넓게 접근할 수 있는 친절한 자질을 발휘하자. 다섯째로 소외당하고 있는 변두리 인생을 위해 구세군의 특수선교(**Army's special mission**)에 주력하자고 호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까지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 세상(**the whole world**)에 온 복음(**the whole gospel**)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윌리엄 부스는 그의 생애 83년 4개월 10일(1829.4.10-1912.8.20) 동안 5만 마일을 선교여행을 했고, 60년간 60,000번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선교여행은 5회, 호주와 아프리카 선교여행은 3회, 인도 선교여행은 2회 일본 선교여행은 1회를 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세군교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 인간의 행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교훈을 연구하여 구세군인의 긍지를 갖도록 하며 구세군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데 있다. 구세군 교리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기초와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더불어 사는 삶 과 또한 우리가 행하는 구속적이면서 사랑이 넘치는 사업을 위하여 이 신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구세군 교리편람을 의도적으로 간명하게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전 세계 구세군 병사들이 함께 나누는 신앙에 대한 증언(**Testament**)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³¹⁾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이 구원을 위해 수세기를 거치면서 이루어 오신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의 일부분으로 모든 영원으로부터 사랑으로 태어나 깨어진 인간성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인류가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세군을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이다.³²⁾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한다. 그래야만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는다. 또한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라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도 믿는다. 구세군 교리는 왜, 자신이 구세군 사관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왜, 성도가 구세군 좋은 병사로 입대해야 하는가? 이해케 한다. 구세군 교리는 구세군이 구세군 되며 하나님을 위하여 싸

31) Salvation Story, p. xiv.

32) Salvation Story, p. xi.



우는 구세군 병사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준수하도록 하며 순 복음(**pure gospel**)³³⁾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들의 지도력 훈련을 시키는데 필요하다.

구세군 교리는 신앙고백이며 구세군 병사들이 평생 선포해야 할 내용으로 구세군 병사로 입대하려면 병사입대식 때 구세군 병사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되고 이 **11**개의 신조를 수락해야 된다.³⁴⁾ 또 구세군 교리는 구세군 정신으로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 담임사관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이루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자를 비롯하여 구도자와 구성자를 위한 자비적 상담자, 심방 사역자들을 훌륭한 트레이너가 되도록 함양시키려는데 필요 불가결한 기본적 요소다. 구세군인들은 복잡하고 공허한 이론 보다 단순하게 인간의 실존적 지식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파악케 하여 인간이 범죄 한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상태를 회복하는 길을 보여 주는 일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구세군 군가(**The Salvation Army Song Book**)에 구원과 성결에 관한 주제로 된 군가가 **181**곡이나 되며,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는 주제가 **177**곡³⁵⁾이나 되는 점을 통해 구세군 신학사상을³⁶⁾ 헤아릴 수 있다.

구세군의 교리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확신과 구원받은 병사들에게는 성결의 체험을 갖도록 가르쳐 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도우며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세군에서는 퀘이커처럼 지나친 형식과 의식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영은 의식이나 물질적 수단 없이도 직접 사람의 영혼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세군의 영적 무기인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한다.³⁷⁾ 구세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개하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실천적 교리³⁸⁾를 강조한다. 구세군의 어느 대장은 그의 재임 기간 공적 예배 폐회

33) Catherine Booth, Aggressive Christianity(Toronto: William Briggs, 1883), pp.35-41

34) 구세군대한본영, 구세군 예식문(서울: 성일전산, 1992), pp.9-10

35) Shaw Clifton, Who are These Salvationist? an Analysis for the 21st Century(Alexandria: Crest Books, 1999), p.120.

36) 윌리엄 부스는 1866년대 부흥 음악(Revival Music) 서문에 ‘열렬한 종교 표현(the violent religion), 청중에게 분명한 가사내용을 전달.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세속곡(secular tunes)을 사용했다.’ 1899년대 구세군가(Song Book) 서문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승화되도록 찬송을 부르시오, 기쁨의 원천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도록 찬송을 부릅시다.’라고 했다.

37) Fidelsi, Red Cross Knights of The Salvation Army(Toronto: Williamson, 1884), p.5

38) 구세군의 실천적 교리 : ① 온 인류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②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인



시간에 아무 의미 없이 회중 전체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폐회 하는 일을 금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구세군 교리는 순전히 복음 전도 신학적 의미에서 죄로부터 개인적인 구원 (**personal salvation from sin**)과 악으로부터 사회구원(**social salvation from evil**)을 위한 사회정의와 섬김을 강조한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온전한 성결 (**wholly sanctified**) 생활을 강조³⁹⁾하여 총체주의 신학(**Holistic Theology**)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나는 신학자가 아니고 단지 평신도에 불과해’, ‘나는 신학자가 아니고 다니 목회자 일 뿐이야’라고 무관심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른다. 진정한 기독교의 생존은 기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신학 쟁점들과 적극적으로 씨름하는 양념에 달렸기 때문이다. 신학은 신학자에게 맡기고 라는 말은 오늘의 구세군 병사에게 무의미하다. 교단분열과 교단 전통에 대한 무관심, 성도의 신념에 대한 신앙의 반성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사고의 상실은 기독교 쇠퇴의 비결이 될 것이다. 참된 신학은 서민대중들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학이다. **Charles Ryrie**는 ‘신학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학자가 되어할 필요가 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정도차이는 있어도 신학자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추어나 전문적인 신학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와 불성실한(**ignorant or sloppy**) 신학자들이다.’고 한 내용에 공감한다. 신학은 매일 실천해야 하는 기독교의 사고이며, 사관과 병사라는 직책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laity, laos**)란 하나님의 백성(**people of God**)이라는 라오스라는 신분적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은 만인 제사장(**priesthood of all believers**)으로 사관과 병사가 함께 섬기는 자(**Servant Together**)라는 가정(**supposition**)을 비판하고, 병사들이 구세군의 유산들을 비판 검토하고 실천적 기독교(**Aggressive Christianity**)의 전통을 재확인하게 되므로 구세군 병사들이 세속사회에서 활동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음, 성서, 믿음, 미래, 성결한 삶 등 각가지 필요한 관점(**perspective**)을 자신 있게 전하도록 교회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얼 라빈슨(**Earl Robinson**)의 『구세군 교리사(**The History of Salvation Army Doctrine, 2000년**)』와 고든 마이클(**Gordon Micheal**)의 『구세군인의 교리(**Salvationist Doctrines, 1973**)』 그리고 존 카우스(**John J. Coutts**) 사관의

을 위한 것이다. ③ 회심은 성령에 의한 영적 변화이다. ④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성결한 삶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39) Roger J. Green, War on Two Fronts: The Redemptive Theology of William Booth(Atlanta: The Salvation Army, 1989),



『구세군 교리의 배경연구(This We Believe: A Study of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Salvation Army Doctrines, 1976년)』같은 문헌을 기초 자료로 삼고 첫째로 구세군교리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제설, 둘째로 구세군 창립자의 다양한 신앙세계, 셋째로 구세군교리 형성의 태동기, 넷째로 구세군교리 형성의 성장기 그리고, 구세군 교리편람의 변천을 살펴보도록 했다.

구세군 교리형성의 배경에 관해 연구하면서 가시적인 고문헌이나 무형적 유물이 미흡하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러나 궁금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 독자에게 보다 충실히 이 과제를 연구하고 풀어가도록 격려해주고 싶고 동시에 역사적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료는 구세군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지만, 사관학생의 학습과 훈련을 위해 준비한 자료임을 밝힌다.



I. 교리의 일반적 이해 (General Understanding of Doctrine)

구세군 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교리의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1. 용어 해설

교리의 용어를 다루면서 교리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나아가 그 교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교리(Doctrine)

교리는 영어 Doctrine인데 라틴어 doctrina에서 왔다. 이는 가르치다, 말하다. 라는 doceo에서 유래 되었다.⁴⁰⁾

1. 용어의 의미

(1) 구약성서

(ㄱ) leqach, 레카흐 (jq'l) "무엇을 받아들이다.(What is received)" 그러므로 "문제는 가르침이다." (미국표준개혁신서엔 학습, 교육, 통찰력으로 번역됐다. 신명기 32:2; 욥기 11:4; 잠언 4:2, 이사야 29:24).

(ㄴ) she-mu'ah, "무엇을 듣다." (영국 개역성서 이사야 28:9엔 메시지(message)로, 미국의 개역성서엔 보고하다(report), 뉴스(news), 루머(rumour), 진술(mention)로 각각 번역했다.

(ㄷ) mucar, "훈련(discipline), 단련(chastening), 교정(correction)" (렘 10:8), 무익한 훈련, 근거는 교리다. (영국과 미국의 개역성서)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은 나무뿐이라".

(2) 신약성서

(I) 디다스카리아 (didaskaliva)

(ㄱ) "가르침", "가르침의 행위" (딤후 4:13, 16; 5:17; 딤후 3:10, 16).

(ㄴ) "무엇을 배우다 " (마 15:9; 딤후 4:3).

40) Richard S. Taylor. Beacon Dictionary of theology. Kansas: Beacon Hill Press. 1983. pp.173.



"디다스카리아 (**didaskaliva**)"다. 이 단어는 주로 바리새인의 교훈을 의미할 때 표현되었다(마 15:9, 막 7:7). 후기 바울서신(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목회서신)에도 종종 "디다스카리아 (**didaskaliva**)"를 사용했다. 신구약성서를 조심스럽게 읽으면 교리가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를 결정하는 듯하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교사 명단을 열거하며 교리를 중요시 했다(롬 12:7; 고전 12:28-29; 엡 4:11). 교단의 조직신학자들은 교리 발전과 교회 위임에 민감해야 한다.

(2) 디다케 (**didach**)

신약성서에 디다케 (**didach**)는 교리의 개념을 옮긴 중요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가르침의 행위와 교훈의 본질을 의미한다. 특히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didach**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마 7:28, 요 7:16-17, 롬 16:17).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후에 사도들은 새로운 개심자들에게 교리 (**didach**)를 가르쳤다(행 2:42). 사도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한때는 죄의 노예가 되는 쪽을 택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르친(**didach**) 것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6:17)이라고 했다.

(ㄱ) 교훈의 행위 (막 4:2; 2:42 교리)로 번역.

(ㄴ) 가르침을 받다.(요 7:16-17; 계 2:14, 15, 24 "교리")로 가르침을 받다.

2.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리는 신약성서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던 체험을 내용으로 발전했고, 구원하는 믿음(saving faith)으로 발전했다.

(1) 바리새인의 교리는 떡의 누룩이 아니므로 삼가라(마 16:12, 마 15:9, 막7:7)

(2) 예수님의 교육은 관습에 의하지 않고 특별하고, 광범위하며 비체계적인 새로운 교육이었다.(마 7:28; 22:33; 막 1:22, 27; 눅 4:32) 공관 복음에서 교리를 발견한다. 사도요한은 그리스도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교리를 기록했다.(요 20:31) 이런 사역이 복음전도자의 몫이다.

3. 사도의 교리(apostolic doctrines)



사도들의 초기 교육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a) 예수는 그리스도시다.(행 3:18)
- (b)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행 1:22; 2:24,32)
- (c) 구원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다.(행 2:38; 3:16)

이 진리가 선포되는 동안 구약성서의 계시를 기초를 둘 때 히브리인의 신앙으로 그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했다. 초기의 메시지를 베드로와 스테반이(행 2:14-36; 5:29-32; 7:2-53) 언급했다. 구세군인은 구세군 11교리를 구세군인의 신앙고백(confession)이라고 부르기보다 구세군 11교리를 구세군인의 신앙선포(decla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도그마의 시작

목회서신과 일반서신에는 새로운 상태로 언급되었다. “바른 말” 또는 “바른 교훈”(딤후 1:10; 6:3; 딤후 1:13; 4:3; 딤후 1:9; 2:1)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다. “선한 교훈”(딤후 4:6)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암시하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통파의 표준이 되었다. 믿음은 진리의 본체가 되었기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 1:3)라고 한다. 이 “바른 교훈”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형식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사도신경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로마 가톨릭에 매우 근접하다는 추론이다.

권위 있는 교사로부터 교육(teaching), 가르침을 받다(that which is taught), 교훈(instruction), 과학(science), 학습(learning), 규칙적인 방식(system of rules)의 의미가 담긴 Doctrina는 헬라어 디다스코(didavskw)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의미는 교훈의 행위(the act of teaching 막 4:2, 행2:42)와 가르쳐진 것(which is taught 요 7:16-17, 계 2:14-15)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집회(in religious assemblies of the Christians), 교수방법을 말하다.(to speak in the way of teaching), 말하는 양식들이 탁월하다(in distinction from other modes of speaking in public) 현재는 전적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리(doctrine) 51회 혹은 가르치다(teaching)는 의미로 25회가 사용되었다.

신앙고백이 어떻게 고정화와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교단의 신조이므로 교회 공동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필연적으로 신앙고백 또는 신조가 체계화 내지 이론



화되게 된다. 이 체계화와 이론화도 성서에 기초한 신학적 노력이며 그 주체는 교단 또는 교회이다. 이것을 교리라고 한다. 따라서 교리는 기독교의 통일적 자기파악인 반면에 신조는 교리의 종합적인 정수라고 할 수 있다.

테일러(**Willard H. Taylor**)는 교리의 현저한 특징은 **(1)**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신앙을 가장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 **(2)** 교리의 기초는 특별계시다. **(3)** 신조는 온전한 교회로 존재하려면 교회의 신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⁴¹⁾

1894년도에 찰스 A. 브리그스(**Charles A. Briggs D.D.**) 박사는 구세군 교리는 극히 단순(**few and simple**)하다고 표현했다.⁴²⁾

* 케리그마(**Kerygma**)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다(**proclamation**).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 말에는 선포하는 행위(**고전2:4**)와 선포된 내용(**롬16:25, 고전1:21**)이 모두 포함된다. 신약에 있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행위,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의 모든 책이 케리그마를 반영한다. 바울서신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초기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케리그마는 초대교회시대의 설교 골자였고 복음전파의 메시지였다.(**행 2:14-21; 3:13, 22-25; 10:34-36; 13:16-26**)

* 신앙고백(**confession**)

일반적으로 신앙고백은 개인·단체·회중·교회회의·교회 등이 주로 교리적 신념을 공적으로 선언할 의도로 작성한 공식적인 진술서를 의미한다. 신앙고백은 라틴어로 **confessio**로 승인(**acknowledgement**), 자백(**admission**), 범죄 행위를 자백(**admission of guilt**). 어원상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같은 말을 한다는(**to say the same thing as**)말로 고백한다는 의미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이사르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다가 순교를

41) Ibid.

42) <http://cdl.library.cornel.edu/cgi-bin/moa/moa-cgl?> 콘웰 대학교 도서관장서 참조



당했다. 히브리어 토다(hd:/T)는 인정한다. 고백한다는 야다(hd:y)에서 유래되어 찬양 감사, 자복. 고백의 의미가 있다. 헬라어 호몰로게오(oJmologevw)는 동일한 장소, 시간, 함께의 의미를 지닌 호무(oJmou')를 어간으로 하여 말씀, 교리등의 뜻을 지닌 로고스(logos)에서 유래 되어 고백 감사, 약속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앙고백은 교회 신조와 비슷하지만 대개는 좀 더 포괄적이며, 특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들과 연관된다. 신앙고백이 때로는 교회에서 구원의 본질 그리고 기독교인의 회원 자격에 요구된다고 가르쳤다.⁴³⁾ 중세 그리스도교 교회는 교리를 공적인 문서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고대에서 전승된 신조(니케아 신조)나 중세 초기에 작성된 신조들(사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을 공적인 예배 때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데 사용했다. 교리상의 특정한 문제들은 논쟁을 거쳐 공의회에서 확정했다. 1439년 페라라·피렌체 공의회가 공포한 7성사에 대한 칙령은 교리체계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교리를 문서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또한 중세의 이단운동들도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문들을 내놓지 않았다.

* 신조(Creed)

종교 공동체의 필수적인 신앙조항에 관한 공인된 간략한 형식의 진술인 신조는 라틴어 **credo**는 헬라어에 나는 믿습니다(I believe). 라는 믿음(to believe)¹⁴³회, 신뢰(to trust) ¹³⁴회, 위임(to entrust), 생각 혹은 견해(think or to be the opinion)의 의미를 지닌 피스테오(pisteuvw)에서 파생되었다.

공중예배나 입교의식 때 전례문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신조는 일부 개신교 교회의 신앙고백과 비슷한데, 신앙고백은 훨씬 확대된 공식용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종교적 신념은 대개 신조나 신앙고백처럼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며 의식이나 신화로 표현되는데, 특히 원시종교에서 그렇다. 원시종교 이후의 시대에는 신념이 의식집전서, 경전, 법전, 신학적 사변 등 비 신조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이집트·메소포타미아·그리스·로마의 고대 종교와 전통적인 도교·유교·힌두교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어떤 종교가 타문화에 전래되는 경우에는(셈족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로 전래됨) 단절·변화·개종·다원주의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43) Richard S. Taylor. Beacon Dictionary of theology(Kansas: Beacon Hill Press. 1983). pp.129



위한 노력으로 공적인 신조가 생겼다.⁴⁴⁾

신앙고백의 다른 동의어를 보면 트리엔트 공의회(**The Council of Trent, 1545-63**)에서는 "상징(**symbol**)"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고백(**confession**)"으로, 39조항은 종교의 조항(**Articles of Religion**)"으로, 나사렛 교회는 "믿음의 조항(**Articles of Faith**)"으로 사용했다. 신앙고백은 인격적 진리로서 확신의 표명이다. 진리는 불변성(시간초월)과 타당성(공간초월)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신앙고백은 진리에 뿌리를 내려 고정화 된다. 고정화는 누구든지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 이 신앙고백이 고정화되고 구속력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신조라고 한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친교를 나눌 때 한 교인임을 신조로 확인한다. 신조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벰후 1:20)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구원과 성화를 위한 본질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교의(Dogma)

교의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카타브(bṭ'K;) 기본어근; ‘새기다’ 함축적으로 ‘쓰다’ (묘사하다, 새기다, 규정하다, 기명하다) :- 묘사하다, 기록하다, 규정하다, 기명하다, 쓰다(쓰기, 기록된), 헬라어 도그마(δoγμα)는 칙령, 법령, 결정, 명령 교리로 생각한다. 믿는다. 상상한다. 라는 의미다. 광범위한 인간의 사상을 통치한 튼튼한 의견이라고 표시하기도 한다.(행 4:16) 도그마에는 1. 진리의 계시라고 생각되어져야 한다. 2. 성서와 전통이 함축되어야 한다. 라는 2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부들 중에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Ignatuius, 40?-107?**)와 오리겐(**Origen**)은 일반적으로 채택된 가르침을 교의라고 했다. 정교회와 영국 국교회에서는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규정한 7의 교리를 교의로 수락 했다. 개신교에서는 교의의 모든 분야를 수용하지 않고 신앙의 다양한 주장을 교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고려하고 있다.

44)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3s3009a



개신교의 몇몇은 교단에서는 단편적으로 교의로 묘사하여 그들의 신성하고 불변하는 교리로 취하고 있다. 칼 라너(**K. Rahner**)는 “교의학은 교의를 이해하는 필요한 방법과 내용을 조직적으로 반영한 것이다”라고 했다. 칼 바르트(**Karl Barth**) 역시 “교의는 신학을 과학적으로 시험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언어를 기독교회에 과학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기준”이라고 했다. 교의학의 성서적 주제의 확인과 교회의 설교 그리고 수 세기를 지나면서 교회의 권위 있는 진술들을 거치면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교의는 교회에서 신뢰할 만한 책임져야 할 과업이다. 그것은 교의학자의 삶, 윤리, 그리고 이전의 가르침에서 발생되어진 특징이 포함되었다.⁴⁵⁾

* 신학(Theology)

특히 조직신학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한 부문. 특히 현대사상에 비추어서 전통적인 교리를 재해체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성서신학·역사신학 등이 과거성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실천신학과 함께 현재성에 중점을 두며 역사적·전통적인 교회의 교리를 현대적으로 수용하여, 실천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학의 부분이다. 본 휘퍼(**Deitrich Bonhoeffer, 1906-1945**)는 ‘제자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나 다름없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도그마에 동의하고 도그마를 교회에 가르치면서 그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한 부문. 특히 현대사상에 비추어서 전통적인 교리를 재해체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성서신학·역사신학 등이 과거성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실천신학과 함께 현재성에 중점을 두며 역사적·전통적인 교회의 교리를 현대적으로 수용하여, 실천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학의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교의(교회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도그마)를 다루는 교의학, 행위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취급하는 윤리학, 그리스도교 이외의 입장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성을 밝히려는 변증학의 셋으로 나뉘어진다. 교회적인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도그마의 학으로서의 교의학 대신에 교리학, 특히 19세기에는 신앙론을 주장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윤리학에 다시 그리스도교 사회윤리학이 추가되었다. 변증학에 대해서도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와 같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 브루너(**Emil Bruner**)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논쟁을 일으킨다는 의미

45) Richard S. Taylor. Beacon Dictionary of theology. Kansas: Beacon Hill Press. 1983. pp.173-4.



에서 논쟁학으로 다시 계승하는 입장, 톨리히(Paul Tillich)와 같이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조직신학을 변증신학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등이 있다.

신학을 민중(folk)신학, 평신도(lay)신학, 목회(ministerial)신학, 전문적인 신학(professional), 학문적(academic)신학 분야로 구분되기도 한다.

Scripture
Biblical Theology
Historical Theology
Philosophic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Apologetic Theology, Creed/Dogmatic Theology

			<u>Scripture(Bibliology)</u>
		Biblical Theology	<u>God(Theology)</u>
	Theology Studies	Historical	<u>Man(Anthropology)</u>
	Biblical	<u>Systematic</u>	<u>Sin(Hamartiology)</u>
<u>Theology</u>	Historical	Creedal/Dogmatic	<u>Christ(Christology)</u>
	<u>Doctrinal</u>	Apologetic	<u>Holy Spirit(Pneumatology)</u>
	Practical	Practical	<u>Demons & Angels(Angelology)</u>
		Philosophical	<u>Salvation(Soteriology)</u>
			<u>Church(Ecclesiology)</u>
			<u>Last Things(Eschatology)</u>



II. 구세군 11 교리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제설(Various Theorie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Salvation Army's 11 Doctrine Formation)

구세군 교리형성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서 구세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문헌적으로 구세군 교리의 역사와 사상적 측면에 영향을 끼쳤다는 몇 가지 견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1. 고든 마이클(Gordon Michael)

고든 마이클(Gordon Michael) 정령은 구세군 최초의 교리는 기독교 선교회(The Christian Mission, 1870) 시절에 기독교 부흥협회(the Christian Revival Society)에서 사용하던 교리와 복음주의 연맹(The Evangelical Alliance)의 9개의 신조를 1878년 창립문서(Foundation Deed)에 동일하게 채택하면서 제3조와 제8조 두 가지만 변경했다.⁴⁶⁾ 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세군의 교리적 선언은 요한 웨슬리의 교훈과 18세기 및 19세기의 복음주의의 각성운동으로부터 유래된 흔적이 있다. 특별히 1846년의 복음주의 연맹의 선언문도 참조한 것이다. 복음주의 연맹(The Evangelical Alliance)은 1846년 영국에서 가톨릭과 푸세이즘(Puseyism)⁴⁷⁾의 침해에 반대하여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와 일치협력을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이다. 복음주의 연맹의 신조는 아우그스버그의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영국교회의 39개 신조를 종합하여 그 중에 중요한 신조 6-7개를 뽑아 만든 것이라고 한다.

2. 필립 니덤(Philip D. Needham)

필립 니덤 참령은 그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논문에서 『구속과 사회 개혁』(Redemption and Social Reformation: a Theological Study of William Booth and His Movement, 1967)에서 구세군 교리의 원조는 감리교의

46) Gordon Michael, "Salvationist Doctrines", The Officer, Vol.24.No.5(London: Salvation Army, 1973), p.236

47) Pusey(1800-1882)는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s) 이후 1845년에 로마 천주교에서 개종하여 옥스퍼드 운동을 인도한 영국신학자.



벤자민 필드(**Benjamin Field**) 목사가 젊은 학생,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을 위해 감리교의 알미니안과 웨슬리 신학을 기초하여 저술한 ‘학생을 위한 기독교 신학 핸드북’(**The Students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y, 1868**)⁴⁸⁾이 윌리엄 부스의 목적을 위해 적절했다. 라고 밝혔다.

요한 웨슬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영국 교회와의 신앙을 구별하였던 39개 신조를 미국 감리교회를 위하여 25개 조항으로 채택했다.⁴⁹⁾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 신조 중에서 11개로 줄였다고 한다. 본래 웨슬리 주의자들은 39개 신조를 줄인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신조들 안에 칼뱅주의 요소를 구분시키고 알미니안 주의의 5대 관심과 조화된 것만 증언토록 했다. 감리교의 25개의 신조는 칼뱅주의 요소를 제거한 것이고 웨슬리는 특징적인 3부분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의 보편성(**The universality of the offer of saving grace**). 둘째로 구원의 현재성 확증(**the present assurance of salvation**). 셋째로 완전론(**perfectionism**)을 강조했다. 구세군의 교리의 유래가 아무데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뿌리는 분명하게 웨슬리적인 정통 교리(**the Orthodox Wesleyan Doctrines**)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⁰⁾ 구세군 교리문의 단어와 내용에 있어서 적어도 1838년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감리교 신파인 뉴 커백션의 교리와 내용과 유사하다.

3. 존 카우스(**John J. Coutts**)

존 카우스(**John J. Coutts**)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This We Believe: A Study of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Salvation Army Doctrines**)를 통해 구세군교리가 사도신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⁵¹⁾ 비교종교 및 이단⁵²⁾ 대책 위

48) D. L. Hartman, A Methodist Bibliography, <http://www.imarc.cc/harted8bib.html#matthew>

49) Bratcher, Dennis, The Twenty Five Articles of Religion Methodist, www.cresourcei.org/creed25.html

50) Philip D. Needham, "Redemption and Social Reformation: A Theological Study of William Booth and His Movement," Th. M. thesi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67), p.126.

51) John J. Coutts, This We Believe : A Study of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Salvation Army Doctrines (Albans: Salvation Army, 1976), pp.7-8

52) '이단'(異端)이란 용어는 헬라어 'haireses'에서 파생된 것인데 영어로 Heresy, 독일어로 Ketzrei, 라틴어로 Haeresis, 희랍어로 Hairesis라고 쓰인다. 본래 뜻은 '선택받은 자, 뽑힌 자'로서 처음에는 어떤 특출한 철학적 학파를 지칭하였다. 그러나 점차 신학적 오류를 지닌 분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초대 교회에서는 일반 적인 교회의 교리와 다른 주장, 교리를 내세우는 개인,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변질된 신앙의 도전으로부터 정통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이단과 싸웠다. 그런데, '이단'의 한자적 의미는 '끝이 다르다'는 뜻으로, '처음은 같으나 끝 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이



는 성경에서 본래 말하는 'Hairesis'라는 단어의 뜻과 다르다. 따라서 '이단'을 '이설'로 이해하면 더 쉬울 것이 다. 또한 이단은 불신앙이나 비 신앙, 의심이나 회의를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기독교 진리의 일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단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의나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인 것이다. 정통의 기준에서 위배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할 때,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통진리의 기준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정통진리 없이 이단이 존재할 수는 없다. 구세군이 이단성 여부에 논란이 될 수 없도록 구세군 교리 편람 "구원의 이야기"에는 구세군이 고전적인 신조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구세군 공적 예배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풀러 신학교 조직신학교 이정석 교수는 총신대 동창회보,(1989) 사도신경의 음부강론을 통해 "사도신경(使徒信經, Symbolum Apostolicum)은 신조중의 신조로서,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를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가 다 함께 고백하는 성경적이며 사도적인 신앙고백이다. 따라서 이 세계교회 신조(Ecumenical Creed)는 웨스트민스터신조나 루터교회의 일치신조 등과 같은 교파신조와 달라서, 사도신경의 거부는 정통적인 기독교회로부터의 탈퇴로 간주되어 이단(異端)으로 정죄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사도신경의 일부를 문자적으로 불신하는 자유주의적인 교회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학적 해석을 달리한 채 사도신경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다. 교회사적으로 자기들의 신학과 배치되는 사도신경의 일부를 수정 혹은 삭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19세기 독일에서 자유주의신학이 발호하면서 사도신경에서 동정녀탄생 구절을 제거하려는 운동이 강력히 일어났으며, 오늘날에는 여성신학의 영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절을 수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시적인 호응은 있었으나, 사도신경의 수정이나 삭제는 세계교회에 의해 거부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는 모든 교파가 공동으로 사도신경의 한 조항을 삭제(削除)했다.

바로 그 문제의 구절은 "음부에 내려가시고(Descendit ad inferna)"라는 구절로서, 사도신경 원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로 되어 있다. 교회 역사상 예외 없이 고백되어 왔으며 지금도 세계의 모든 장로교회와 개교회들을 포함한 모든 세계교회들이 고백하는 이 구절을 왜 한국교회는 공동적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는가? 일찍이 1938년에 박형룡교수도 이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최근에 김영재 교수는 이 구절을 삭제한 이유가 아마도 "설명이 곤란해서 슬쩍 빼 버렸든지 아니면 문자적 번역을 피하여 의역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보다 역사적인 설명은 김용준목사가 1963년 {기독교사상}지에 2회 연재한 "사도신경의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발견된다. 그는 한국교회의 초기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이 구절의 삭제가 감리교회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1894년 언더우드선교사의 사도신경 번역판이나 1905년 장로교선교사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들어 있는 반면, 1897년과 1902년, 그리고 1905년에 번역된 감리교회의 사도신경에는 한 결같이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이 구절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8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동찬송가}를 발간하면서 사도신경의 통일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 때 한국 장로교회는 양보해서는 안 될 양보를 하고 말았다. 이후로 한국 장로교회는 부당한 감리교회의 삭제를 추종하고 있으며, 심지어 독자적으로 찬송가를 발행할 때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역사적으로 1440년 Reginald Pecock은 이 구절의 삭제를 제안한 적이 있으며, 종교개혁 시대에도 Walter Deloenus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의 [기독교강요] 2권 16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였다: "이 구절은 우리 구원의 총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만일 이 구절을 삭제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주는 은택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개교회들은 이 구절을 중시하여 왔다. 비록 해석상의 차이는 존재하였고 중요성의 정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절의 삭제란 생각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교리보다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인 정통교리 중에서 난해하거나 상식을 초월하는 일부 교



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감행하였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John Wesley가 1784년 작성한 감리교신조는 영국교회의 신조인 '39신조'에서 발췌한 25신조인데, 이때 칼뱅주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제거되면서 39신조의 제3항인 "그리스도의 음부강하에 대하여"가 전부 생략되었다. 한국 감리교회의 사도신경 번역에 이 구절이 삭제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음부강하(陰府降下)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크게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실제설(實際說)과 음부강하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상징설(象徵說)이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Limbus Patrum에 가셨다고 주장하며 연속설의 근거로 이용하는가 하면, 루터교회는 사탄의 세력에게 그의 승리를 보이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이해하고 이를 승귀의 제1단계로 본다. 그리고 영국교회는 낙원과 음부를 동일시하여 3일 동안 낙원에 가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개혁신의는 상징적으로 이해한다.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보다는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혹은 음부적인 고통의 경험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개혁신의의 상징적 이해에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

개혁신의 신학은 대륙에서 개혁교회를, 영국에서는 장로교회를 형성시켰다. 이 두 교회는 공히 칼빈의 신학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신학적 연대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정치와 신조에서 다소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장로교회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신조는 사도신경의 음부강하 구절을 3일 동안 죽어 있었다는 단순한 의미로 이해한다. 대 요리문답 제50문,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삼일 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칼뱅은 이러한 해석을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였다. 첫째로 쉬운 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쓰는 법이 없다. 음부강하의 의미가 단순히 바로 앞에 분명하게 언급된 "죽으시고 장사되며"를 반복설명하는 것이라면 그 보다 더 난해한 "음부에 내려가시고"란 말을 사용할 리 만무하다는 문학적인 반론이다. 둘째로 사도신경과 같이 압축되고 간결한 신경에 쓸데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복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칼뱅은 음부강하를 단순한 사망상태의 서술로 보지 않고 음부적인 고통의 영적 체험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십자가를 육적 고통으로 음부강하의 체험을 영적 고통으로 이해하고, 이 둘이 합하여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 형벌의 완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대륙 개혁교회의 요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4문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사도신경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을 첨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나의 가장 무서운 시험 중에도 나의 주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불안과 번민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음부강하가 단지 십자가상에서의 음부적인 고통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음부강하를 죽음과 장사 이후에, 그리고 부활 직전에 배열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음부강하를 죽음 이전에 위치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무덤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라면, 예수님의 영혼은 그 3일 동안 어디에 가 계셨는가? 그곳이 낙원이라면, 사도신경은 왜 "낙원에 올라가셨다가"라고 하는 대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나 해석이 다양하거나 난해한 것이 삭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실은 사도신경의 다른 조항들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개신교회가 사도신경의 일부를 삭제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꼭 그래야 할 신학적 이유를 세계교회 앞에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특별히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서 습관적 보수주의를 지양하고 하루 속히 교회의 결의를



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비롯하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여부에 따라 이단 분별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주후 150년 경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태복음 28장 19절 (행전 2:38, 8:12, 10:48)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전 8:16, 19:5), 예수는 주님이시다 (로마서 10:9, 고전 12:3, 고후 4:5, 빌립보 2:11,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골로새 2:6), 사망에서 생명으로 (로마서 6:3-10) 등을 신앙고백으로 요약한 고대 로마신경 (Old Roman Creed)이 있었는데 이 신경이 발전 수정 보완되면서 주후 750년경에 현대 형태인 사도신경이 되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교의학적으로 볼 때 교회의 본질적인 주제가 다수 결여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⁵³⁾

거쳐 원문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53) 사도신경이 성서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사도들이 직접 썼다거나 가르쳤다는 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사도신경이라는 용어는 주후 390년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A. D. 742-814)때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사도신경은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전수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사용되었다.¹⁾ 반명 동방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사도신경을 결코 배척하고 니케야 신조(A. D. 325)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¹⁾

사도신경은 동방교회에서만 사용되어온 신앙에 관한 선언이다. 이것은 증거와 설명을 하지 않고 일련의 간결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확인이다. 사도 신조는 세례식에서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삼위의 순수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삼위는 구성으로 보아 마태복음 28:19절을 바탕으로 한듯하며 성부로서의 하나님, 성자로서의 예수그리스도와 성령이다. 사도신경의 주요 부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며 성령에 관한 간단한 선언을 한 뒤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관한 일련의 구절들이 뒤따른다. 사도신경 형식 자체는 사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이 명칭이 처음 발견 된 것은 390년경 이었는데(로마제국시대) 그 뒤 오래지 않아서 사도들의 공동작품이라는 전승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도가 한 사람씩 각각 다른 조항을 써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뒤 안드레가 (혹은 요한이었을지도 모름) 그의 외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첨가하였고, 형인 야고보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고 계속하였다고 하니...

현행 찬송가 앞에 실려 있는 "사도신경"은 실상은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주후 381년 제2차 공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때 이것을 초안한 사람은 당시 감독 가이사라의 바실 (330-75) 나이사 그레고리 두 사람은 쌍둥이와 나시아스 그레고리 감독 이 함께 제안한 것을 사도신경으로 하자는 결정을 한 후 오늘날까지 아무런 연구나 비판 없이 전해오고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바울은 새로운 교인이 몸 바치게 되었던 가르침의 모범을 밝혀주고 있다(롬6: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디모데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딤후 6:12) “믿음의 선



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 하였도다.” 이것은 곧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시련과도 (딤후 6:13) 연결된다.

2세기 중반에 이르러 세례의식에서 행하는 증언을 이레네우스, 터툴리아 누스, 노바티아누스, 오리제네스 등이 일정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로마교회에서 행하던 형식이 시간이 감에 따라, 또 신학적인 논쟁과 이단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서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점차 공식적인 신조로 성격을 띠게 되었고 믿음의 규칙으로 불리워지게 되었고 때로는 성경에 대한 이단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 읽혀지고 있는 것은 341년 안키라의(마르첼루스)의 헬라이어판에서 인용하여 온 것이다. 390년경 누피누스에 의해서 보존된 라틴형식에는 생략되었다.

전능하사 천지를 - 이란 구절이 처음 나타난 것은 650년경 헬라이어 판 이었다. 이 신조가 만들어져야 했던 필연성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났다. 1) 헬레니즘 - 영지주의 2) 성령체험 - 몬타니즘 3) 로마정부 기독교 법제화 4) 당시에 성경을 개인이 읽지 못한 이유다.

1) 헬레니즘(영지주의): 회람사상의 우주론이 동양종교, 특히 유대교와 철학적으로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다. 영지주의는 본질상 물질은 악하며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적 주장을 펴는 이단이다. 그들은 구원 받은 영혼이 죄 많은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몸의 행위에 대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영지주의 자들은 구원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신앙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이론과 사상을 아는 것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의 위치에 선다. 영지주의는 제2세기 후반부터 교회의 상태는 헤이해지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교리가 독단적인 것이 되고 윤리의 표준이 세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4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 볼 수 있었던 아람답고, 순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특성은 당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침투해오는 야비하고 경건치 못한 세속적인 경향으로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회복시키려는 사람들이 일어나 당시의 교회 질서를 회복한다는 한 단체가 생겨났다. 이 사상이 헬레니즘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인데 이는 한 교회 조직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난 철학 운동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원론, 조물주관념, 가현설 등을 주장하므로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으로 실재적이 아니라 하나의 꾸민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인성 설을 부인하는 사상이 생겼다.

바벨론의 점성술 페르시아의 이원론, 우주론, 예굽의 유물론 등을 종합한 일종의 종교철학. 이들은 이원론에 근거하여 선과 악, 빛과 어둠, 영과 육을 갈라 논 다음 이를 극단으로 대립시켜 영의 세계는 빛이요 따라? 선하게 보았으며, 육의 세계는 어둡고 악하다고 했다. 이 사상이 교회까지 침투하여 구약 만물을 지으신 신 즉 하나님을 열등 신으로 보았고 그리스도는 창조의 신보다 우수한 신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려 오신 분으로 육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령적, 환영적으로 오셨다고 하여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역사적인 근거를 파괴하려 했다. 여기에 편승하여 금욕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성령체험-몬타니즘: 헬레니즘이 있었을 때에 또한 다른 운동이 일어났는데 영지주의를 반대하고, 교회의 도덕적 문란한 점을 막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 계급주의 반대 당시에 일어나는 특별한 섭리와 계시를 믿지 않으려는 사상을 막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이다. 이 사상은 철저한 금욕주의였다.

성령의 직접적 감화를 강조하고 예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믿는데서 신앙의 열정과 엄격한 생활



소, 기성교회의 전승을 무시하며 정상적 신앙을 버리고 금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열광적으로 재림과 내세에만 흥미했다.

3) 로마 정부의 기독교 법제화: 325년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후 기독교를 법으로 인정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을 위하여 힘썼다(325년부터 590년까지) 네로 시대로부터 디오클레티안시대(54-305)까지 거의 250년은 박해 시대였으나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화력과 세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수자적으로 지리적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교회생활은 핍박에 의해 세속화되고 교구가 헤이 해졌는데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자 교회는 더욱더 세속화되고 도덕이 부패해지고 교회의식이 속화되고 교리가 비 성서적으로 되고 교회가 불화하게 되고 그밖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 예로 이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예수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분리하여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나 영원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같은 교회 장로였던 알렉산드와 충돌이 있는 후 아리우스는 파면 당하고 교회에서 축출되었다. 그러므로 대외적으로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온다. 이때 나타난 이론이 인성설과 신성설이다. 이는 예수그리스도는 인간 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되었다는 설이 아니다. 신이 어찌 육을 입을 수 있는가 하나의 꾸밈에 의하여 인간화 하였다고 주장한다. 325년에 그 당시에 종교적인 격심한 논쟁을 진정시켜 또한 로마제국을 강화하여 단합시키는 목적으로 325년에 친히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니케아신조를 채택했다.

4)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한 이유는 1. 성경이 일반화 되지 않은 시기에 이단을 구별하는 것으로는 되지만 오늘날에는 성경 적으로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외울 필요가 있을까? -물론 교육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2.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한 것은 위에서도 역사적으로 알아보았듯이 삼위일체를 부인한데서부터 시작 되었다. 7세기경 혹은 390년경(대백과사전 516페이지 참조) 3. 천주교에서 초신자 들을 세례주기 위하여 필요했기 때문이다.(성서대백과사전 참조) 4. 사도신경 자체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사상에서 나온 것 아닐까? 역사적인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빌라도를 넣었다.

사도신경은 신약성경의 사상인가?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식의 하나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문으로 암송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고백 문이 신약성경의 사상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빌라도 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전연 다른 것이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 와 로마 병정들 이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빌라도의 죄가 있다고 하지 않으신데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나를 잡아서 빌라도에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하셨는데 그 더 큰 죄의 원흉은 간 데 없고 최후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빌라도 와 그 아내까지 애를 썼던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화를 입게 되는 위협에 직면하는가 하면 예수를 석방하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어주면서 이 무죄한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 . "

마27:11-26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게 유대인의 왕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 하는 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



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일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쩔 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 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막 15:1,11-15, 눅 23:1,4-25 요 18:28-40, 19:4-10,11,16-더 큰 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로 되어 있으나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무슨 신분 곧 권능을 갖고 부활을 하셨는지 분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중대한 사명을 위임하셨는데 이 중요한 대 명령을 빼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활하신 몸은 죽으시기 전의 몸과는 달리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심. (2)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13-31,36-43). (3) 부활하신 신분은 "주와 그리스도"로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셨음(마 28:18 빌 2:6-11, 행 2:36). 빌2:6-11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4) 제자들에게 대 명령으로 사명을 위임하셨는데 그것은 이제부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5)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허락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행 1:4-9 ; 24:50-53, 행 2:1-14,36-38,41-47)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고 되었으나 어디로 어떻게 오신다는 내용이 없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 신약 성경은 정확히 명시한다. (1)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 강림 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과 정사와 능력 멸하시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고전 15:23, 계21:23-27). 고전 15:23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갈림 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칠 때라. 계 21:23-27 그 열 두 문은 열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 이라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2) 하나님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 공중에 오신다. (마 24:30-31, 살전 4:15-18) 지상에 있는 자들이 재림 주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이다. 마 24:30-31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살전 4:15-18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 하노니 이것을 말 하노니 주 강림 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서 강림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3) 장차 주님이 오실 곳(행1:8-11).

성령을 믿사오며로 되어 있는 데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을 믿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운동하였는지 분명치가 못한 막연한 표현인 것이다. 성경은 성령을 믿는 과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성령을 믿으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것으로 믿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1) 권능(Power) (2) 은사(Grace) (3) 선물(Gifts) 이는 첫째로 사도들의 신분증명으로 주셨으며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요. 셋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성령은 진리로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인격이요 자연의 원리로 표현된 능력을 가지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일 5:7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 이니시 성령은 진리니라. 요 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이다. 벰후 1:20,21 만일 저희가 우리 주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딤후 3:14-17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 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 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마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 이니라. 롬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 . . 복 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 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0:14-17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 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였는데 이 공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가 없다. (1)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공회가 있다(막15: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 사도들을 죽이려는 공회가 있다.(행 4:13-15,22 23:1-,6,15,20,24) (3) 사도신경을 제정한 공회인지도 모른다(381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되어 있으나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지 또는 어디서 영원히 누구와 같이 사는 지도 분명치가아니하다 일반종교에서 말하듯이 막연하게 영생의 문자로 표현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1) 그리스도에게 붙은 성도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고 다만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다(살전 4:13-18 고전 15:54)
(2) 살아있는 자들은 만국의 영광(나라의 신분으로)을 갖고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 다시는 죽음과 슬픔 없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한다(계 21:1-27, 22:1-5, 마 25:31-40) (3)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유향불 못에 던져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없는 곳에? 영영한 벌을 사단과 함께 받는다(마 25:41-46, 눅 16:19-31) 그러기에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계 20:1-19, 21:8, 15) 그리고 말씀을 가감하면 그 벌을 받는다(계 22:18-19).

이상과 같이 현행 한국교회에서 맹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전면에 있는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약성경의 사상(정신)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아무런 성경대조도 영구도 없이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대로 하는 것만이 보수신앙 인줄 알고 오히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를 이단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태도인 것이다. 성경밖에 있는 자가 이단인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성도들이 주목하여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결코 사단 곧 마귀의 정체에 대한 것이 전연 언급이 없는 것이 신기 하리만큼 이상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이 마귀와 싸워 멸하시고 사람들은 구원코자 오신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과 마귀가 있다는 사실과 지옥 곧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을 받는 곳이 있다는 사실 모두를 은폐하고 막연히 심판한다. 영원히 산 다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천국의 존재를 흐리게 하였을 뿐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이롭게 한 거짓 신경인 것이다. 결코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닌 것에 명심하기를 바란다. 참된 사도들의 신경은 오직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쓴 신약성경 곧 복음서뿐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아닌 것은 저주를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도신경은 신약 성경이다.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말고 거짓 신자에 유혹되지 말고 밤낮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약성경 곧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에 의하여 살 때에 영생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복음에는 사단과 싸워 이기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다(눅 22:53, 빌 2:6-11, 요일 3:8 마 24:24-31 고후 11:13-15 엡 6:10-20 뱀전 5:7-11 갈 1:6-8 계 22:18, 19)

눅 22: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저 음부에서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이니라 (마 24:24-31)
고후 11:13-15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켈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엡 6:10-20)

뱀전 5:7-11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 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갈 1:6-8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장차 누구로부터 고난 받으신다고 하셨나?

- (1)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에 대 제사장들, 백성들, 장로들(마26:1-21)
- (2) 떡을 떤 때에 너희 중 한 사람이(마26:20-24)
- (3) 열둘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막14:10-11)
- (4)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리라(막14:17)
- (5)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막14:20)
- (6) 예수를 잡으려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요18:1-25)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두 성취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에게 넘겨 주니라 대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 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온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 하였도다.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 목매어 죽은지라(마 27:1-10, 26:57-68, 막14:1,2, 41-65, 눅 22:6,51-71)

사도들이 외치면서 증거 하기를 누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하였나?

- (1)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행2:22-24)
- (2)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행2:36)
- (3)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행5:30)
- (4)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행13:27-29)

사도들의 신앙선포는(Declared of the Apostles):

1.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눅 24:20)
2.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행 2:23-24)
3.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
4.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행 5:29)
5.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행 7:52-53)
6.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행 13:27-30)

이상과 같이 사도들이 유대인에 대한 죄 악상을 증거하며 선포한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짜 사도신경에는 살인죄가 있는 유대인들은 온데간데없이 숨어버렸고 예수를 무죄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빌라도 만 예수를 죽인 자로 만든 것은 마귀가 한 일인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현대 교회는 사도의 신앙고백과는 정반대가 되는 가짜 사도신경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각종집회에서 신앙고백을 하게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 가짜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므로 인하여 또 하나의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교회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도신경은 신약성경뿐인 것을 믿고 시간마다 고백하고 증거 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대사전에서 사도신경의 유래를 보면:

신조(creed confession) 신앙의 표준을 말한다. 교의, 교헌, 교구와 함께 교회 존재의 근본을 표식 화한 것으로 거룩한 교회 앞에는 가톨릭(Catholic)이란 말이 650년에 삽입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키프리안이나 어거스틴이 사용한 신경에는 가톨릭 이란 말이 거룩한 교회 앞에서 쓰여 있지 않다.

성도의 교제도 650년 이후에 삽입 되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어거스틴이 사용한 신경에 쓰이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니케아시대 이전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믿어 오던 것을 좀 더 보충하여 세례문답으로 뿐만 아니라 그노시스(영지주의) 이단을 위시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와 구별하여 정통적 신앙고백으로 점차 사용하게 되었다. 성서교제 간행사의 성서백과 대사전에는 서방교회(로마 가톨릭)에서만 사용되어 온 신앙에 관한 선언이라고 하며 신경의 형식 자체는 사도들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도신경이란 명칭이 처음 발견된 것은 서기 390년경이며 오늘날 사도신경보다는 더 짧았고 또는 긴 것도 있었으나 공식적인 사도신경은 650년에서 850년경까지며 손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고 거룩한 교회(Holy Christian Church) 거룩한 가톨릭교회(Holy Catholic Church)라는 용어로 계속 루터파 같은 곳에서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이 만들었습니다.

가톨릭 교리 사전에는 사도신경에 대해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신경이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 개조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상징, 표시, 신분증명서, 계약서라는 뜻을 가진 이 신경이란 단어는 3세기에 성 치프리아노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신경은 천주교 신자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며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천주교신자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할 때 정통 가톨릭의 신앙을 고백하는 뜻으로 이 신경을 외웁니다. 이러한 신경이 생기기까지는 많은 신학자들의 논란도 있었으며 더욱이 이단이나? 아니냐? 를 판단하는 신앙개조의 기준이 곧 이 신경으로 되어 왔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 사도신경을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교의 바탕이 되는 핵심교리를 담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며 가톨릭의 중요 기도문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기원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사도신경아리는 명칭은 서기 390년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도들의 전승이라는 주장은 4세기말 루피누스(Rufinus of Aquileia)가 하였다고 한다. 사도신경의 필요는 세례를 위해 필요하고 또한 미사(가톨릭에서 하는 예배) 때 감사기도로도 하며, 히포리투스(Hippolytus)의 사도전승(Tradito apostolica)에 나타난 신경은 고대 로마 신경이라 불리며 사도신경의 주체였다고 한다. 중세 초기부터 모든 서방교회(로마교회)는 세례의식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웠으며, 미사 때 마다, 주일마다, 암송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방교회(러시아정교회)는 아직도 이 의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톨릭의 사도신경을 참고해 보면: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곧 성소에 내리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 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민나다. 아멘"

여기서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란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는데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Holy Catholic Church)로 고백하는데 사실상 공회란 로마 가톨릭을 뜻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개신교에서 주일에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을 공인하는 논리가 된다. 거룩한 공회(the holy catholic church)는 12-13세기에 5,000만 명을 학살하기도 했다.

또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Sanctorum communionem-라틴어)라는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안에서의 진실한 말씀과 믿음 교제(빌1:5)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성자숭배 즉 죽은 사람들을 성인식 서품하여 선포한 죽은 자들의 성인들 까지도 교제, 교통 한다는 뜻으로 영매, 초혼자들을 죽이라(신 18:10-14)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단어도 바로 이성인들과 통공에서 유래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주문 외우듯 외우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인을 가톨릭교회라는 명칭으로 바꿀 때부터 시작되어 온 세례식 고백문 이었고, 사도 신경 작성은 사도들이 썼거나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성경 어디에도 암송하라는 구절이 없다.

사도신경은 초기 원문은 로마신조(Roman Symbol)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도신경을 미사 때와 세례식 때 고백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는 그 유래가 관련이 없는 것이다. 4세기 초 구 로마 교회 신조(The Old Roman Creed) 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연옥을 믿고, 화체설을 주장하며 고해성사를 집행하는 가톨릭과 같이 할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유래와 전통에 있어 뿌리가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그대로 암송할 필요가 없다. 정확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가 아니면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고, 작성했고, 명령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들이 굳이 예배행사 때마다 암송해야 할 것인가? 2) 용어에 있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사도신경 초기에 모체였던 로마신조에는 거룩한 교회(The Holy Church)로 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The Holy Catholic Church) 는 거룩한 가톨릭교회는 바로 로마 가톨릭을 뜻하기 때문에 칼뱅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단체를 개신교 강단에서 암송하고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주기도문 일치 작업을 한 바 있는 나체운 교수는 가톨릭(Catholic 보편적이라는 뜻)이 로마 가톨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이미 보편적(catholic)은 로마 가톨릭의 고유 명칭이 되어버렸기에 위험하다.

가톨릭이란(Catholic) 캣(Cat) 과 홀릭(holic)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 인데 캣(cat) 산스크리트어 에 어원을 두고 헬라어를 거쳐 파생된 어머니(Mother)란 뜻을 가진 단어이며 홀릭(Holic)이란 뜻을 가진 단어의 근본 의미는 여신, 세미라미스(Semiramis: 성경에는 아세라, 아데미, 아스다롯 이란 이름 등으로 기록되었다) 에서 바쳐진다. 란 뜻입니다. 때문에 가톨릭이란 여신, 세미라미스에게 바치다란 뜻이 들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the communion of saints) 라는 용어도 원래 성인들과 통공하는 것이라는 로마 가톨릭의 죽은 자 성인 들과의 교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리스도인 들은 거듭난 성도라고 가르치지만(고전 2:2) 로마 가톨릭의 성자는 죽은 지 오랜 후에 서품해서 주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다. 만일 사도신경 암송이 성경적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적 성장이 필요하



즉 의인, 화해, 구속, 회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사도들의 케르그마가 언급되지 않아 성서적인 신앙(마 16:16)을 완전히 고백하지 못한 상태로서 당대의 신앙 싸움에서 유래된 것 같다.

신학적으로 봐도 신앙과 신학을 포괄할만한 공감대를 갖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토니 레인(Tony Lane)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성자, 또는 거룩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것은 5세기의 성자들에 대해 증대하는 숭배 즉 성자들과 그들의 유골(유물)을 숭배하는 관행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구세군인의 삶과 믿음의 표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4. 창립자의 통합적이고 체험적이며 성서적인 신앙(Founder: Integration, Experiences and Biblical Faith)

1922년 이바 버로스(Eva Burrows)대장이 국제 구세군 교리장정 위원회 회원 9명의 임명하고 신선한 접근 방법으로 새롭게 집필된 『구원의 이야기: 구세군 교리편람(Salvation Story)』에는 구세군 교리의 뿌리는 웨슬리의 교훈과 복음주의 연맹의 8개 선언문 그리고 감리교 신파의 교리라고 언급했다.⁵⁴⁾ 그러나 본인은 구세군 교리는 창립자가 선교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었던 다양한 신학적 특성과 선교회 시절의 신조가 성경이라고 했듯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이며 통합적인 방법을 통하여 11교리가

다면 용어를 바꾸어서 암송할 수도 있겠으나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 들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3) 사도신경을 가장 중요시 하는 곳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레오(Leo)는 아무도 이 교리에 무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막시무스(Maximus)는 신경에 무지한 신자는 믿음의 적으로 간주했고, 토마스(Thomas)는 신경에 고의로 무지하면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사도신경을 형식적으로 암송해야 할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경의 전부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비록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고 사도들로부터 유래되지 않고 로마신조에서 왔으며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그 용어도 로마 가톨릭적인 부분이 들어 있지만 다른 일부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부를 부인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전부를 신일 할 수 없다. 그러나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도 집회 시 마다 암송하라는 규칙도 없다. 다만 사람의 전통 유전일 뿐입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을 전부 부인해도 이단적 요소가 있고 전부 시인해도 이단적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암송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 정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미국의 침례교회는 암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식을 싫어하신다. 예배는 신령과 진리(요 4:23) 이지 죽은 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다.(마 23:25)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 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마 15:8-9)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나라(롬 12:1)

54) General, Salvation Story, London: IHQ, 1986. p. 131.



형성하게 된 점을 고찰하려고 한다. 윌리엄 부스가 1878년 8월 13일 대법원에 등록할 때 우리교리의 출처는 어느 곳인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세군 교리의 출처가 성서인가요? 물론 ‘예와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물론 성서라고 부촉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⁵⁵⁾

1991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구세군 병사 군령군을 개정판에 ‘구세군 병사는 구세군 교리가 역사적으로 성서에 기원을 둔 역사적인 기독교 교의에서 채택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⁵⁶⁾

에드워드 팔머(**Edward (Ted) Palmer**)는 성서적 기초들이라는 글에서 구세군의 동기와⁵⁷⁾ 구조와⁵⁸⁾ 삶의 양식과⁵⁹⁾ 방법⁶⁰⁾ 그리고 표준이⁶¹⁾ 성서적이므로 우리는 성서

55) John Larsson, Doctrine Without Tears (London: Salvationist, 1974), p.1

56) The Salvation Army, "Chapter 5, Section 1-2, 1883년 구세군의 어머니는 ‘구세군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 교의를 채택한 교회에서 분리되지 않았으며,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복음에서 채택한 것도 아니다.’ 창립자도 ‘구세군은 어떤 새로운 교리를 가르친바 없다.’고 선언했다.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아 신경 등에 구세군 교리의 근원을 두고 있다.

1969년판 구세군 교리편람 서론에서 구세군은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에 있어서 질적으로 교회와 같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 이외에 어떤 다른 교리나 복음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 회개, 그리스도에 의한 신앙의 의인, 순종의 생활, 천국과 지옥 등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The Salvation Army in relation to the Church and State, p. 30).

57) 동기가 성서적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肉)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政事)와 권세(權勢)와 이 어두움의 세상(世上) 주관(主管)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惡)의 영(靈)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싸운다는... 여러분도 내가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빌 1:27-30)

58) 구조가 성서적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不足)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命)한대로 각(各) 성(城)에 장로(長老)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딤후 1:5). 바울은 (군국 사령관)이요, 디도는(지방관)이며 성(城)에 장로와 감독들은(각 영문사관과 하사관들)이다. 초기부터 중앙집권체제로 시작했다. 초대 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동일한 직무를 행하나 명칭만 다를 뿐이다. 구세군에서 단순하게 사용하는 군대용어도 사도들이 사용했던 조직적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Bergisch University 의 Marion Spies 교수는 구세군이 영국군대의 조직을 모델로 군대조직하고 교역자를 사관, 찬송가를 군가, 군기, 군복 등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당시 크림리아 전쟁 (Crimean War)을 비롯하여, 미국의 시민전쟁(American Civil War), 러시아와 터키와의 전쟁 (Russian-Turkish War)에서 당시의 병사는 국가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터였기 때문이라고 그 영향에 관하여 언급했다. <http://www.litencyc.com/php/people.php?rec=true&UID=485> 참조

59) 생활양식이 성서적이다. 바울이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를 묘사한 것이다.

60) 집회 방법이 성서적이다. 가로전도집회(마태복음 5장과, 사도행전 16장 13절), 거리 모퉁이 집회(누가복음 19장), 옥내 성전집회(마가복음 14장 49절), 집에서 드리는 집회(사도행전 2장 46절)등은 모두 신약성서시대의 사용된 방법들이다.



적인 군대(**We are a Biblical Army**)이라고 했다. 구세군 미국 중앙군국 사관학교에서 사관학생의 구세군 교리학습(**Notes for Doctrine Classes**)을 위해 출판된 자료의 서문에 "구세군 교리의 목적은 기독교의 진리의 개요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려는데 있다. 믿음의 상태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며 질서정연하게 확립시켜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딤후 1:9)하는데 있다. 성경은 구세군 교리의 근원이다. 다른 자원도 유익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하나님의 법규라고 제정하는데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다." 라고 밝혔다.⁶²⁾

구세군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구세군 신학의 하향성 접근방법으로서 종교개혁 신학,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주의의 신앙체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1세기가 넘는 구세군 신앙체험과 전통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로저 그린(**Dr. Roger Green**)은 2003년도와 2004년도 한국 구세군 선교신학대학원 가을 학기 특별 강사로 초청되어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의 신학을 다룰 때 구세군 신학의 뿌리는 18세기의 웨슬리안 전통과 19세기의 미국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역설했다. 구세군 신학의 학문성과 현장성을 형성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18세기의 웨슬리운동과 19세기 미국성결운동, 20세기의 오순절운동 그리고 가난한자들을 중심한 선교 현장 중심의 신학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세군의 "완전구원(**Full Salvation**)"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결운동의 성서해석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성서신학을 전공하고 구세군 신학에 관심 있는 구세군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구세군 신학은 교회를 교의에 가두어 넣는 개신교 정통주의와 기독교 신학을 도덕으로 전락시킨 자유주의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구세군 선교공동체는 구세군 신학의 모태와 같으므로 구세군 신학은 1세기가 넘는 전통을 유지해온 구세군 선교공동체와 분리 하여 생각할 수 없다. 오직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융통성을 잃지 않는 보편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립해야 한다. 구세군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세군 창립자 혈화정신을 회복할 목적으로 구세군의 값진 전통들을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61) 표준이 성서적이다. "칼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눅 22:35-38). 병사들이 열망하는 최고 수준은 정결(purity)이며,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성서적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되기를 원하는 것도 성서적이며, 선한 생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트리프(Bramwell Tripp)도 성결의 전통(The Heritage of Holiness)에서 "구세군 교리 제 10 조에 언급되었듯이 구세군의 성결 교훈의 기초는 성서라고 했다."

62) Salvation Army, Notes for Doctrine Classes, (Chicago: School for Officers Training, dn.), p.1.



III. 구세군 창립자의 다양한 신앙세계(The Salvation Army, Founder of Various World Faith)

구세군 창립자 **William Booth**는 1865년 기독교선교회 시절과 1878년 구세군을 세우기 전 기독교의 광범위한 복음주의 독특한 점들을 체험하게 되는 다양한 신앙세계가 있었다. 부스는 **Charles G. Finney**의 과학적 부흥주의 방법을 응용하여 평생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헌신했다. 영국 국교회의 사제이며 기독교 역사학자인 **Owen Chadwick**은 빅토리아 종교(The Victorian Church 1권 1829-1859, 2권 1860-1901 특히 2권에서 초기 구세군 사역을 상세히 언급)를 생각하려면 옥스포드 대학뿐만 아니라 구세군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구세군 교리 형성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이라고 볼 수 있다. 윌리엄 부스는 1829년 4월 10일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장래에 구세군의 대장이 될 윌리엄은 국교회(the Anglican Church)의 교인인 부모들¹⁾에 의하여 그들이 출석하는 데르비쉬 교구 스네인톤 교회(Derbyshire Parish Sneinton Church)에서 4월 12일 조지 윌킨스 박사(Dr. Gorge Wilkins)의 집례에 의해 유아 세례를 받았고 부모를 따라 가끔 교회에 출석했었다.²⁾

윌리엄 부스의 부친 사무엘 부스가 국교회에 정회원이었으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잊고 재물과 생활 수단을 앞세우다가 차츰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사업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윌리엄은 부친으로부터 조직(organization)에 관한 유익성을 물려받게 되었다. 유년 시절에 유대인계의 부유한 농부의 아름다운 딸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경건하며 엄격하고 성실한 모친 메리 모스(Mary Moss)로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적감화를 받으며 자랐다.³⁾ 그는 부모로부터 주일학교에 다닐 것을 허락 받아 스테인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의 사촌 그레고리(Robert Gregory)를 통해 ‘사람이 거듭나야만 된다는 말을 알고 있느냐? 세탁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통해 영적인 감화를 많이 받았다.⁴⁾ 그는 사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1) Roger J. Green, War on Two Fronts: The Redemptive Theology of William Booth (Atlanta: The Salvation Army, 1989), p.8.

2) Harold Begbie, Life of William Booth: The founder of The Salvation Army(London: Macmillan, 1925), p. 7.

3) Ibid., pp. 9-10., Stead, op. cit., p.24.



이유와 참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다.⁵⁾

구세군교리 형성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립자가 다양하게 체험한 신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부스는 1861년 이전까지 단독사역(**independent ministry**)을 하다가 1849년 웨슬리교회의 지방 설교자(**local preacher with the Wesleyan**)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그는 웨슬리 교회에서 단 기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회중교회(**Congregationalist**)에서 사역해 볼 것을 구상했다. 그러나 회중교회(**Congregationalist**)⁶⁾는 칼뱅의 예정설(**predestination**)과 제한속죄(**limited atonement**)를 따르기 때문에 윌리엄 부스는 회중교회를 떠나 고향처럼 느끼는 웨슬리 감리교의 신학을 따르는 신파 감리교(**New Connexion Methodism**)와 연결하게 되었다.⁷⁾

1. 윌리엄 부스와 회중교회(**William Booth and Congregationalism**)

윌리엄은 1844년 15살 때 이웃에 사는 덴(**Dent**) 부부와 그의 딸 안덴(**Anne Dent**) 주일학생의 인도로 18,00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부로우드 웨슬리 교회(**Broad Street Wesley Chapel**)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는 헨리 케리(**Henry Carey**) 교사가 담임하는 성경공부 반에 회원이 되었고, 이삭 마소덴(**Isaac Marsoden of Doncaster**) 평신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에 매료되었다.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일 오후에

4) Begbie, Ibid., p. 17.

5) Taylor, op. cit., p. 4.

6) 회중교회(congregational)는개신교지만1830년대 장로교파 회중교회(Presbyterian Congregations) 1830-1840년대 독립파 회중교회(Independents Congregations)와 정통파 회중교회(Orthodox Congregations) 감독파(episcopal)나 달리 감독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참 머리가 되신다. 회중교회(Congregationalism) 중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의 정치형태를 따르는 독립 회중교회(Independent congregationalism)와 남 침례교(Southern Baptist)의 정치 형태를 따르는 조합 회중교회(Cooperative Congregationism) 그리고 복음감리교회(Evangelical Methodist Church)의 정치를 따르는 결합 회중교회(Connectional Congregationism) 등이 있다.

7) Green, op. cit., p.7.

8) Roger J. Green, The Life & Ministry of William Booth Founder of The Salvation Army (Abingdon Press, 2005), p.11.

역사적으로 평신도 설교자를 살펴보면 Conditions in the Primitive Church (모세-민 11:29, 바울-갈 1:1), 집에 있는 교회. Decay of Lay Preaching until the Middle Ages (소아시아의 문탄이스트). Medieval and Pre-Reformation Revival (성 아시스의 프란시스). The Quakers (조지 팩스). John Wesley and the Lay Preachers (요한 웨슬리). The Primitive Methodist Connection (감리교인들). In the Scotch Presbyterian and Anglican Churches (James, Robert Haldane). The Salvation Army(윌리엄 부스, 캐서린 부스, 구세군 병사들, 함께 섬기는 자들).



애찬에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삭 마소덴 (**Isaac Marsoden**)은 집회 때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초청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가 감리교의 중심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846년 회중교회에서 린컨셔어(**Lincolnshire**)에 있는 스팔딩(**Spalding**)에 지방교회 책임 설교자로 활동했다. 윌리엄 부스가 1852년 6월 25일 캠벨 박사(**Dr. John Campbell**)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회중교회에서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천을 받아 총회의 대표목사님 세분과 인터뷰를 마치고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유급사역에 임했다. 인터뷰 당시 총회 대표목사인 제임스 윌리엄 메시(**James William Massey**)박사는 부스에게 존 캠벨(**John Campbell**) 박사의 추천 내용을 인정하지만 향후 단독목회를 하려면 카튼 앤드(**Cotton End**)에 위치한 회중교회 신학교(**Congregational Training Institution**)에서 2년 과정의 신학수업을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⁹⁾ 1852년 부스의 스팔딩(**Spalding**)에서의 18개월간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 1846년 11월 1일 저녁집회를 인도할 때 구도자 14명이 자비석 앞으로 나왔고 월요일 집회에서선 4명의 구도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 중엔 배교자가 7년 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음 주에는 스팔딩에서 좀 떨어진 **Donnington**으로 가서 3일간 복음을 전했는데 오전에 전도를 했고, 오후엔 **Swineshead** 다리 근처에서 전도하여 14명의 구도자를 얻었다. 월요일 저녁엔 2명이 2명을 화요일 저녁엔 6명의 구도자가 자비석을 앞으로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토요일에 귀가했다.

회중교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선 칼뱅주의 교리를 믿고 설교하겠다고 서명하라고 한다.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칼뱅의 신학 변증서를 읽다가 인간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열납될 수 없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서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칼뱅주의 예정론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는 6개월간 제한된 신학수업을 마치고¹⁰⁾ 1854년에 회중교회에서 사직했다.

부스의 책임교수 스미스(**Dr. George Smith**)는 필독서를 지정하여 주기를 데이네(**Dayne**)의 『성스러운 사회(**Divine Society**)』와 아브라함 부스(**Abraham Booth**)

9) Green, op. cit., p. 48.

10) Murdoch, op. cit., p.2.



의 『은총의 시대(Reign of Grace)』였다. 부스는 특히 **Finney**와 **Watson**의 선택의 교리(**on Election**)와 견인 교리(**Final Perseverance**)를 알게 되었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표식으로서의 성례(**sacrament as the sign**)를 거행함으로 은혜를 받았으며 의식을 존중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어 거행한다. 구세군도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리고 구세군은 교회에서 성례를 베풀어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하여서도 동의한다.¹¹⁾ 그래서 부스는 예배시간에 항상 성례를 행하기를 원하기 까지도 했다. 그러나 내적 은혜의 체험은 외적 표식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구세군의 입장이다. 로마 가톨릭에서 7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종교 개혁당시 루터가 성서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다 폐지해 버리고 성경에 있는 세례(**Baptism**), 성찬(**Eucharist**), 참회(**Penitence**) 세 가지만 개신교의 성례전으로 인정했다.¹²⁾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처럼 윌리엄 부스 개인은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던 때도 있었다. 개혁파에서는 세족식은 잊은 채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존속시켰다. 칼뱅은 성찬을 거행하면 시간이 길어지므로 교인들로 하여금 설교를 더 오랫동안 듣게 하기 위해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자고 했다. 그 이후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서(**Confessio Augustana**)를 작성한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 1497~1522**)은 1년에 12번 하는 것은 너무 많으니 3개월에 한번 씩 거행해서 1년에 4번쯤 거행하자고 격하시켰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거의 무시했다.¹³⁾ 그러나 구세군인은 성례전 자체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처럼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취하게 되었다.

2. 윌리엄 부스와 감리교 뉴 커넥션 교리(**William Booth and Methodist New Connexion Doctrines, 1838**)

윌리엄 부스는 1846년 노팅햄을 방문한 제임스 코취(**James Caughey, 1819~1891**)¹⁴⁾라는 복음 전도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일생을 바치게 되었다. 그 후로 1년간 낮엔 직장에 밤에는 빈민가를 찾아가 봉사하고 주일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환자를 방문하면서 틈틈이 찰스 그랜디슨 휘니(**Charles Grandison**

11) Mark Wagner, *Salvationist and Sacraments*(Unpublished Paper, 1981), p. 2.

12) Alfred Kemp Brown, *Sacraments A Quaker View*(by the 1906 Committee of the Yorkshire Quarterly meeting of the Society of Friends.) p. 1.

13) 강원용, *경동교회 선교의 회고와 전망 2.*, 1998년 2월호 p. 2.

14) 부스는 6년 동안 22,000명을 회개시킨 카우게이의 너팅햄 복음전도 집회 시에 가로전도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www.revival-library.org/catalogues/world3/caughey-methodism



Finnety, 1792- 1875)의 부흥설교(Revivals of Religion)와 강의록(Lectures on Systematic Theology)을 읽고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와 예정교리로 웨슬리와 결별했지만 성령운동의 화신이요 감리교(Calvinistic Methodists)의 전도자 조지 화이트 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의 사역에 관하여 개인 연구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¹⁵⁾ 그는 1850년 웨슬리 지방교회에 회원으로 17세에 지방 평신도 설교자(Lay Preacher)로 임명되었다. 그는 12월 6일(목요일 밤)에 매일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자. 어리석고 수다스런 잡담을 하는 대신 영원한 생명(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생각을 하자. 정결한 마음 구하자. 라고 결심했다. 그는 전당포에서 도제 기간을 마치자 좀 더 마음에 드는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런던으로 갔으나 여의지 않아 몇 년 동안 조그마한 전당포를 차리고 주인으로 일했다. 런던에서 그는 기독교 선교단체에 이끌려 감리교회의 평신도 설교가로 활동했으나 한 지역에서만 설교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 마음이 허락지 않아 그 자리를 사임하고 자유롭게 설교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옥외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구세군은 초기부터 성직자나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구세군 병사 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용어를 공식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웨슬리가 세상을 떠난 6년 후에 감리교가 회중파(Congregationism)와 1811년에 세워진 퀘이커(Quaker)의 영성과 가로 전도와 부흥선교를 강조하는 근본 감리교회(Primitive Methodists)를 비롯하여 독립 감리교회(Independent Methodists), 자유 연합 감리교회(United Methodist Free Church), 그리고 신파 감리교회(Methodist New Connexion)등 으로 분리되었다. 회중파로부터 부스는 개혁자라고 고소를 당했으며 회원권도 박탈당했다. 3개월간 매주 1파운드씩 지원하겠다는 에드워드 H. 라빗(Edward Harris Robbits)씨의 요청에 의해 부스는 1851년 6월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설교가로 인정받아 그 개혁자들과 협약을 맺었다.¹⁶⁾ 그는 1852년 생활비를 받는 설교자가 되어 전당포 직장을 정리했고, 1854년까지 그는 감리교 신파(Methodist New Connexion)와 더불어 좀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개혁자들을 따랐다. 1855년 연회에서는 부스에게 생활비 100 파운드, 전도여행 경비, 그리고 매주 사회봉사비 2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정했다. 부스의 선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라빗(Edward Harris Robbits)은 신파 감리교내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비를 모금하기도 했다.¹⁷⁾

15) Begbie, op. cit., p. 73.

16) Stephen Brook, God's Army(London: Macmillan, 1998), p.10.

17) Roy Hattersley, Blood & Fire: William and Catherine Booth and their Salvation



윌리엄 부스가 뉴 커넥션(**Methodist New Connexion**)에서 목회하기 위하여 뉴 커넥션 신학교에서 윌리엄 쿡(**Dr. William Cooke**) 교수의 문하에서 신학수업을¹⁸⁾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이스링턴(**Islington**)에 위치한 패킹턴(**Packington**) 감리교회에 부임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부흥 강사로도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윌리엄 부스가 남부 런던 스톡웰 예배당(**Stockwell Green Congregational Church**)에서 설교를 하던 날 캐서린 뎀포드가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 후 그들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약혼을 했다. 3년간의 약혼기간에 캐서린(**Catherine Mumford**)은 서신을 통해 윌리엄의 설교를 도왔다.¹⁹⁾

1855년 전임 순회 부흥사로 위임을 받아 복음을 전하던 중 뎀포드 양이 출석했던 스톡웰 예배당(**Stockwell Green Congregational Church**)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스톡웰 교회 담임목사 토마스(**Dr. David Thomas**)의 주례로²⁰⁾ 6월 16일 윌리엄 부스는 증인인 여동생의 축하를 받으며 큰 경비를 드리지 않고 겸손하게 신부 캐서린 뎀포드 양과 혼례를 올렸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들의 시간과 재물을 다 사용하기를 원했다. 신혼기간에도 윌리엄은 신부의 뜨거운 격려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회를 인도할 곳을 찾아 다녔다. 부스는 건강을 위해 가슴부위를 매일 냉수마찰을 했

Army(London: Little, Brown Company, 1999), p.69.

18) William Booth는 William Cook(Christian Theology Explained and Defended(London: Partridge and Oakley, Paternoster Row. Methodist New Connexion Book Room, 1853 3rd. Edition)에서 ‘온전한 성결은 죄가 있는 기질과 애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랑으로 충만해진 당대다. 이런 상태는 신자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케 된다. 이는 약속된 축복이요 명령’이라는 말씀을 비롯하여 Benjamin Field(1827-1869)의 The Students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y(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68)에서 양자(adoption), 온전한 정결(Entire Sanctifica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 즉 ‘온전함(perfection)은 죄에서 분리(고후 7:1)와 하나님께 헌신(롬 6:13)이 예증되어야 하고(exemplified), 기도해야 하며(prayed) 복음 사역에 중대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정결은 신자에게 개심 뒤에 일어나는 성령의 제2 사역이다.’ 등을 수학했다. Richard Watson(1781-1833)의 Theology Institutes or a View of the Evidences, Doctrines, Morals, and Institutions of Christianity(New York: Lane & Scott, 1851.)에서 ‘온전한 정결(Entire Sanctification), 원죄(Original Sin), 의인론에서 죄의 전가(Imputation)’ 등을 수학했다.

19) Catherine Booth Biographical Details, <http://www.salvationarmy.org/heritage.nsf/popupview/5b76774b36d7> Roger J. Green. Catherine Booth (Grand Rapids: Baker Book, 1996), p.45. 뎀포드는 부스가 성공적인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서신을 통해 수시로 용기, 상담, 격려, 위로들 아끼지 않았다. 참으로 뎀포드는 부스의 수호천사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의 역할을 했다.

20) 뎀포드가 출석하여 은혜 받았던 교회 담임목사로서 salvation army 와 church army를 동시대에 창립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동시에 끼치신 분이다. 특히 성역에 성의 구별이 없다는 바울의 신학 사상적(갈라디아서등)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가운데 부스와 결혼 조건가운데 교회사역에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http://www.anoraque.demon.co.uk/fownc/news/2000/012.htm>



고, 조식으로 계란 하나에다 카밀레 티(**Camomile Tea**)²¹⁾를 즐겨 마셨다. 메모드 역시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며 항상 몸을 정결케 했고 양말과 속옷을 자주 갈아입었다. 1856년 윌리엄 부스가 건시(**Guernsey**)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캐서린은 더비셔(**Derbyshire**)의 에쉬브로본(**Ashbourne**)에서 장자 브람웰(**Bramwell**)을 출산했다.

1857년에는 요크셔어(**Yorkshire**)의 브라이어스(**Brighouse**)에 위치한 작은 교회로 발령을 받았으나 제임스 코휘(**James Caughey**)의 방법을 따라 순회 전도하면서 수천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후 구도자를 회개석(**penitent form revivalism**)으로 초청하여 수백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성공적인 사역을 인정받게 되었다.

1858년 헐(**Hull**) 교구에서 감리교 사역자로 안수를 받고 순회 목사로 이스링톤(**Islington**)의 파킹톤(**Packington**)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 후 두레햄(**Durham**)의 게데스헤드(**Gateshead**)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게데스헤드(**Gateshead**)는 웨슬리 감리교파가 유난히 많이 세워진 지역이다. 게데스헤드 지역에는 웨이커(**Quaker**)의 영감을 강조하는 근본 감리교회(**Primitive Methodists**)를 비롯하여 독립 감리교회(**Independent Methodists**), 자유 연합 감리교회(**United Methodist Free Church**), 그리고 신파 감리교회(**Methodist New Connexion**) 등이 세워진 곳이다.

1859년 1월 윌리엄 부스가 1836년에 봉헌된 베데스다 예배당(**Bethesda Chapel**)에 한때 1,200명의 회중이 앉을 수 있는 장소에 1,300명 정도 모였는데, 1843년에는 30-6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쇠퇴하게 될 때 29세의 젊은 목사로 부임하게 됐다. 윌리엄 부스는 1840년대에 영국전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30,000명을 회개시킨 미국인 부흥강사 제임스 코휘(**James Caughey**)의 영향을 받은 그는 부임하자마자 매주일에 3회 설교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도 저녁마다 집회를 인도했다. 1,200명모일 수 있는 건물에 첫 집회에 120명이 모였고, 6명이 자비석 앞으로 나왔다. 그러나 몇 주간이 못 되어 매 집회 때마다 만원이 되었고 2,000명 그리고 5,000여명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21) 카밀레차(camomile tea)가 치통, 신경 안정, 불면증 환자, 생리통, 자궁이완 작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있어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Imperial College London의 화학자인 Elaine Holmes는 남성 7명과 여성 7명으로 구성된 실험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계속하여 2주 동안 이들에게 하루 다섯 잔의 카밀레 차를 섭취하게 하였다. 이때 카밀레 차는 만자니아 (manzanilla)라고도 알려진 독일 카밀레 (Matricaria recutita)의 꽃과 잎으로 구성되었다. 이집트 델타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졌다.



1860년부터 캐서린도 강단에서 저녁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전도와 부흥 운동 중심으로 사역했다. 윌리엄 부스는 연회로부터 전임 부흥사로 활동하던 선교사역을 저지당하게 되었다. 프랭크 베이커(**Frank Baker**)는 복음 전도의 급진주의자(**evangelical radicalism**)들과 함께 복음전도에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하기 위해 신파 감리교(**Methodist New Connexion**)를 떠나게 되었다²²⁾는 연유를 언급했다.

1861년 7월 18일 신파 감리교(**Methodist New Connexion**)를 떠나기 전까지 구령사업에 최선을 다하자 인간 개조소(**The Converting Shop**)라는 별명까지 듣게 되었다.

조지 G. 혼비(**George G. Hornby**)는 『연합 감리교회사』(**The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1861년도에 뉴 커넥션의 신도들이 37,000명이 넘게 성장되었었는데 그 이면에는 윌리엄 부스의 부흥 사역의 영향이 많았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뉴 커넥션은 모험적이며 용맹스런 사역보다는 보수적이고 행정적이었기 때문에 활발한 정신(**vigorous spirit**)과 창조적인 조직력(**organizing genius might**) 그리고 담대한 추진력(**bold advance**)을 지닌 윌리엄 부스가 자유롭게 복음 전도하여 보다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를 위해 신파 감리교(**Methodist New Connexion**)를 떠났다²³⁾고 했다. 윌리엄 부스 자신은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된 소외 지역과 노동자, 실업자, 걸인들이 우글거리는 다리 밑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들이 모이는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리버풀 교구회에 청원하였으나 그가 원했던 뉴 캐슬(**New Castle**)교구로 임명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처음 계획 세웠던 목회철학을 따라 가난한 사람,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 집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소외된 빈곤 계층의 사람들(**Social Marginalisation**)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열정을 억누를 수 없어 뉴 커넥션 교회를 사직했다. 윌리엄 부스가 뉴 커넥션을 떠날 때 평생 사용할 회개석의 개념을 가지고 떠났다.²⁴⁾ 그리고 여성 사역에 대한 뉴 커넥션 헌장과 프렌드파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선교회 헌장 제 7 부에 「여성 설교자들」(**Female Preachers**)의 규칙을 세웠다.²⁵⁾

후일 성례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생을 통하여 웨슬리와 감리교의 선교정신 특히

22) Frank Baker, A Charge to Keep: An Introduction to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London: The Epworth Press, 1947), p. 39.

23) George G. Hornb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Methodist Church Its Origin, Divisions, and Reunion(London: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32), p. 138.

24) Nigel Bovey, The Mercy Seat(London: United Kingdom Territory, 1996), p. 12.

25) Coutts, op. cit., pp. 26-27.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 이신득구(**Full Salvation by Faith**),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복음전도 신학(**Theology of Evangelism**)을 존경했다. 버나드 왓슨(**Bernard Watson**) 부정령은 윌리엄 부스는 그들의 열심(**warm**)과 실용성(**functional**) 그리고 겸소한(**simple**) 정신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창립자는 메도디스트(**methodist**)로부터 가로전도(**open air**)와 부흥 선교(**revival missions**)의 영향을 받았다.

구세군이 메소디즘(**Methodism**)에서 나온 웨슬리안(**Wesleyan**) 교단이며 그 역사적 전통과 교리적 사상적 배경은 웨슬리를 계승하고 있는 웨슬리 가족(**Wesleyan people**)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1876년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는 그의 아들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²⁶⁾에게 편지하기를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설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데 있지 않고 성도를 바르게 육성했다. 우리는 이점에 있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사업은 모래로 싸여진 줄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했다.²⁷⁾

제습(**Harry Edward Jessop**)은 그의 성결론에서 구세군을 “감리교의 밖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단체임이 틀림없다”고 했다.²⁸⁾

구세군은 웨슬리안 교회에서 헌신적이며 책임성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성결의 은혜에 영향을 받았다. 구세군에서 주장하는 성결의 은혜는 자신을 위한 성별된 삶을 영위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고 성례전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자기를 부정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고 고난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성결의 입장을 취한다.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소외된 자와 고독한 자, 사회의 찌꺼기처럼 버림받은 자, 인간의 자격을 박탈당한 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계속 예민하고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으로 사회악을 향해 도전한(**Social Evils the Army has Challenged**)²⁹⁾ 것이 곧 구세군 정신이다.³⁰⁾

26) 브람웰은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8남매(Bramwell, Ballington, Catherine, Emma Moss, Herbert, Marian, Evangeline, Lucy)중 장자로 당시 구세군의 참모총장이었다. 후에 그는 구세군 제2대 대장으로 17년간(1912-1929) 봉직했다. 그는 그의 부모와 신복사관 레일톤(George Scott Railton)과 함께 초기 구세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27) Paul Alexander Rader 사관이 1981년 1월 제1회 하사관 브랭글 성결학술회에서 『성결운동과 구세군』이라는 강의한 노트 참조.

28) Harry Edward Jessop, FOUNDATIONS OF DOCTRINE: In Scripture and Experience A Student's Handbook on Holiness,(Chicago, 1938), p. 112.



그는 감리교 뉴 커넥션(신파) 전도사로 임명을 받을 때 1838년도에 제정된 감리교 뉴 커넥션 교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1.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며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심을 믿는다.
2. 우리는 구신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뤄졌으며 신앙과 실천에 관한 온전한 법규임을 믿는다.
3.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현존하나 권능과 영광으로도 본질상 분류되지 않았음을 믿는다.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5. 우리는 인류가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아담은 그의 정결함과 행복을 잃고 그 결과로 그 후손이 타락하여 범죄 했음을 믿는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속죄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려고 살아 나셨음을 믿는다.
7.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8. 우리는 믿음에 의한 은혜로 의롭게 되며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성결케 되는 것이 특권임을 믿는다.
9. 우리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저주는 자신에 의한 것임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계획인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치료하고 (설명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피조물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피조물임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지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믿는다.
10.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도 은혜 생활이 가능함을 믿는다.
11. 우리는 영혼이 불멸하며 죽은 후에는 즉시 행복이나 불행의 상태에 들어가게 됨을 믿는다.
12. 우리는 육체의 부활-최후의 총 심판-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무한한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³¹⁾

29) Gauntlett, S. Carvosso. Social Evils the Army has Challenged, London: Salvationist Pub., 1946. 참조

30) The Salvation Army, Chosen To Be A Soldier(London: International Headquarters, 1977), p. 88.

31) Norman H .Murdoch. Origins of the Salvation Army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3. 윌리엄 부스와 복음주의 연맹의 9가지 신조(William Booth and Evangelical Alliance, 1846)

윌리엄 부스는 1858년에 뉴 커넥션(Methodist New Connexion)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4년 동안 사역하다가 1862년에 뉴 커넥션(Methodist New Connexion)에 사표를 제출한 후 윌리엄 부스가 처음 헌신한 목적 데로 동부 런던 소외당하며 살아가는 s도 시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받는 고통과 가난을 함께 나누며, 교회와 상관없는 군중을 위해 살면서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했다. 이는 교회가 하는 사역을 돕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개심자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적이 못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개심자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교회도 이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부스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 후 수많은 군중들을 위한 독립사역을 시작하고 집회를 개최했다.

1864년에 동부 런던 부흥 선교회(East London Revival Mission)에서 독립집회를 인도하면서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Alliance, 1846) 9교리를 수용했다. 복음 동지회는 160여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성회, 침례회, 영국교회, 엘링 오순절, 감리교, 신약 성회, 신약 하나님의 교회, 장로교회, 연합 개혁신교회, 구세군과 가정교회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회원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지금도 구세군은 복음 동지회와 함께 일하고 있다.³²⁾

복음 동지회의 선교 선언문과 기본 신앙은 다음과 같다.³³⁾ 하나님, 성서, 죄, 그리스도의 사역, 칭의, 성령, 교회론, 재림과 같은 기본적인 8가지의 신앙은 강조하나 공식적인 교리는 없다.³⁴⁾

1.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이며 권위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계시.
2. 성서는 정확하며 은밀한 심판이 있음을 설명한다.
3.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을 갖추었으나 한 분이시다.
4.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결과로 완전 부패되었다.
5.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계속 중보 기도를 하시기 위함

1994), pp.173-4.

32) Captain Charles King, "Alliance on the March" Salvationist (London: Salvation Army, 2.Feb. 2002), p.8.

33) www.eauk.org

34) The Evangelical Alliance: 1846-1996 editorial, p.2.



이다.

6.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다.
7. 성령은 죄인을 개심 시키고 성결케 한다.
8. 영혼의 불멸, 육체의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 의인은 영원히 행복하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9.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며 세례와 성만찬 의식은 영구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구세군은 제9교리 중에 “세례와 성만찬 의식은 영구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내용을 제외하고 8교리를 수용했다.

4. 윌리엄 부스와 프렌드 파의 15교리(William Booth and The Society of Friends, 1675)

구세군 창립자는 당시 외적 의식에 얽매인 종교가 횡행하고 생생한 기독교적 체험이 거의 없어졌을 때 퀘이커교도³⁵⁾는 일어서게 되었고 굉장한 세력으로 확장됐다. 그들은 교회 성례전이 단지 영적 진리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걸어 치웠다. 그리고 그 상징이 뜻하는 체험만을 직접 추구하게 됐다.³⁶⁾

35) "퀘이커"란 명칭은 처음에는 자기네 스스로를 "친우들(Friends)"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말입니다. 오늘날 친우들은 퀘이커라 불리는 것을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더 특색 있는 이름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세상이 그렇게 부를 때는 자선사업단체, 혹은 평화운동조직, 그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반의 생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퀘이커들의 활동의 어느 특수한 것에만 붙잡혀서 도리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 친우회(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Quaker)의 생활과 사업의 한 특수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퀘이커들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기독교의 한 갈래입니다. 그리 오랜 것도 아니고(1650년경에 와서 겨우 창설됐습니다) 또 그리 큰 교파도 아닙니다. 전 세계의 회원을 다 합한대야 20만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들의 신앙과 실천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증거하는 데서도, 인류의 정신적 전통에서도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quakersmm.org/>)참조

36) Carpenter, op. cit, pp. 92-93. (<http://www.quakersmm.org/>) 참조.

친우들의 예배에 성만찬, 물세례 등 외양으로 준수되는 여타의 성례전이 없는 것은 내면 경험의 실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친우들은 참된, 내면의 성령 세례가 주는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예배 모임이 한창 무르익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서로간의 우정(fellowship)을 압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외양적 의식(rites)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며, 또한 그 외양적 의식들이 어떤 친우들에게는 상징적으로 다뤄지는 영적 경험들에 한껏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수 세대에 걸쳐 외양적 형식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전해내려 온 도움에 충분히 감사하면서도 친우들은 성례전이 갖는 본질적인 내면적 본성을 자신들의 바로 그 상징의 결여를 통해서 상징화합니



윌리엄 부스와 부람웰 부스는 항상 1675년에 출판된 프렌드파의 신학자인 로버트 바크 레이(Robert Barclay)의 『기독교 변증서』(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 최초 영역판 1678)³⁷⁾을 곁에 두고 전통적인 퀘이커의 15개조의 교리와 신학의 해설서를 연구했다. 윌리엄은 프렌드파의 15개 조항의 주장 가운데 견인과 은혜에서 떠나 타락할 가능성에 관한 내용인 9번째 주장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내적이며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가능하다. 참 세례는 성령의 세례요, 개인적인 신앙고백으로 간증이 필요하다는 13번째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1883년 1월 2일 사관 총회 이전까지는 비 성례전적 이 아니고 웨슬리안의 입장이었다.³⁸⁾ 캐서린 부스가 1882년 비 성례전적 입장인 퀘이커의 연회에 참석한 후 “우리로 폭스, 웨슬리, 화이트 필드처럼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다”³⁹⁾고 느꼈다. 캐서린 부스는 행정적인 성례 거행보다는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결 교리를 주장하며 구세군에서 성례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제안에 따라 비 성례전적 입장인 퀘이커 교도들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구세군 창립자들(윌리엄 부스, 캐서린 부스, 브람웰 부스, 레일톤)이 1883년 1월 2일 사관 총회에서 기도하고 숙고한 끝에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성서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행하지 않기로 대장은 결심하고, 구세군은 비 성례전적 입장에 서야 된다고 천명했다. 17일자 구세 공보를 통해 구세군은 비 성례전적 입장(non-sacramental position)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⁴⁰⁾

윌리엄 부스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전통적 성례 의식인 세례와 성만찬에 대하여 ‘그 문제를 먼 훗날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 그러나 의식과 형식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럼으로써 영적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과 의식을 교조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생명이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친우들은 생활 전반이 영(the Spirit)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의 그 생활이 갖는 성례전적 본성을 주장합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관계, 어떠한 대상도 그렇게 감동이 될 경우에는 성례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고백에 충실하는 한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생활이 내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제에 대한 외양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7) Robert Barclay, An 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 Being an Explanation and Vindication of the Principles and Doctrines of the People Called Quakers, London: Edward Marsh, 1849. 11th ed of 1st ed, 1675. xvi, 556pp.

38) Ibid., p. 195.

39) Roger J. Green, Catherine Booth: A Biography of the Cofounder of The Salvation Army (Grand Rapids: Baker, 1996), p.229.

40) Ibid., p.240.



라고 중단할 것을 알렸다.⁴¹⁾ 필 니덤은 선교공동체에서 그러나 성찬의 길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 구세군은 성례전을 반대하지 않는다(**The door was not completely closed; the Army was not opposed to the sacraments**).⁴²⁾라고 언급했다. 그 후 윌리엄 부스는 1889년 3월 13일 엑시터 회관(**Exeter Hall**) 집회석상에서 ‘물이나 성례 그리고 교회 봉사 그리고 구세군에서 행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심령의 내적 변화와 살아서 역사 하는 실제적인 믿음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잃어버린 죄인들을 실제로 주님의 발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만이 가능한 것’⁴³⁾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구세군에서는 교리적으로 성례를 거행하지 않으면서도 성례전적인 생활을 강조한다. 본질적인 성례가 아니면 무의미하므로 매사가 성례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원받는데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구세군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다.

재 침례주의자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개념을 개발시킨 것이다. 로마 천주교회에서도 동일한 사고에 의해 신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영국 소설가인 로렌스(**Lawrence, 1885-1930**)는 「부활」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예배들 드릴 때 하나님께서 현존 하신다’고 했다. 라벗 바클레이(**Robert Barclay**)는 기독교 변증 열세 번째 주장⁴⁴⁾에서 케이커의 영성에 대한 경험담을 ‘주님의 성찬과 주님의 채워주심 그리고 삶과 피를 나누심은 특별한 시간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더라도 참되며 진지하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따금 주님의 빛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적 사람이 보호를 받을 때 영혼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천국의 생활의 일부를 느낄 수도 있었다.’라고 전해 주고 있다. 초기 구세군 저술가인 브랭글(**Brengle**)은 ‘나는 나의 마음속에 자비석을 반세기 이상 지니고 살면서 그곳으로 피하는 대신 항상 필요할 때 그 곳에 있었다.’라고 했다. 성례전적 삶의 본질을 잘 표현한 앨벌 오스본(**Albert Orsborn, 1886-1967**) 대장의 구세군 찬송가 642장(**sacramental song**)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⁴⁵⁾

41) Flagg, Deborah. "What is Sacramental?" *The Officer*, 14, No.12,(30,June 1996), p.2.

42) Phillip D. Needham. *Community in Mission: A Salvationist Ecclesiology*. London: IHQ.,1987, p.123.

43) Clifford Kew. *Closer Communion* (London: The Salvation Army, 1980), p.50.

Shepherd, Victor A. "Form New Connexion Methodist to William Booth" *Papers of the Canadian Methodist Historical Society*, Vol. 9, (Toronto: Canadian Methodist Society Historical Society, 1993), pp.91-107

44) Barclay, Ibid., pp.373-406.



내 삶은 주가 떼신 떡 내 사랑 그의 잔
주 이름으로 만찬상 베풀어 놓셨네
다 와서 함께 배불리 그 생명 받으라

나 주의 손에 들리어 떼신바 되었네
그 포도즙 틀 저편에 내 길을 걸으리
그 사랑 명령 따라서 주 위해 살리라

내 주여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땅에 묻히어
나 주와 함께 죽어서 영생케 하소서

캐서린 부스는 웨이커 교도인 한나 스미스(**Hannah W. Smith**)가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쉽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을 전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비결’(**The Christian's Secret of a Happy Life**)이란 서책을 항상 곁에 두고 애독했으며 영향을 받아 실천적 기독교(**Practical Religion**)를 강조하게 되었다.

레일톤은 웨이커와 구세군 사이에 생각하는 내용과 실천하는 점이 **12**가지가 매우 유사하고 언급했다. 월드론(**John D. Waldron**)은 구세군이 여성이 머리에 보닛을 쓰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여성 사역을 비롯하여 교리의 유사성, 사회적 양심, 성례전등을 웨이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역설한다. 웨이커교에서는 의식이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의식이 신성하지만 모든 의식이 다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례전적인 생활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진정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신중하게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웨이커 교도인 트루브루드(**D. Elton Trueblood**)는 구세군인과 웨이커 교도인 사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옹서버가 아니고 크리스천 팀이라고 했다.

구세군 창립 증서에는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2년 2월** 이전까지는 성찬식이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부스 자신이 영국 국교(성공회)에서 세례를 받고 감리교회에서 양성을 받아 온 관계로 보수주의와 정통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회가 구세군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로 정착하면서 구세군 개심자들에게 전통적인 성례가 신앙생활에 불화를 야기 시킨

45) Henry Gariepy, Songs in the Nigh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pp.219-21.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때부터 성례에 대한 구세군의 입장은 비 실천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창립자도 “구세군은 어떤 새로운 교리를 가르친 바가 없다”고 선언했다. 구세군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 신조를 굳게 지키고 신앙고백도 사도 신경(Apostles' Creed)⁴⁶⁾과 니케아 신경(Nicene Creed)⁴⁷⁾ 그리고 아타나시아 신경(Athanasian Creed)⁴⁸⁾ 등 세 가지

46)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 나는 한 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만물보다 먼저 아버지께로 나셨으니 신(神)중의 신이시요 빛 중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며 지음 받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똑같은 본체를 가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못박히심을 당하시사 수난과 장사지남을 당하셨고 삼일 만에 성서대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또 내가 믿사오니 주되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또 나는 하나의 거룩한 공회와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만 인정합니다. 또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봅니다.

48)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통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없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정통신앙이란 이것이니 곧 삼위로서 일체이시며, 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삼위(位)는 혼동되지 않으며 이 본체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부의 한 위가 계시고 성자의 다른 한 위가 계시고, 또한 성령의 한 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성에 있어서 다 하나이시며, 영광이 동등하며 존엄함도 동일하게 영원하시다. 성부께서 존재하심과 같이 성자도 성령도 그러하시다. 성부께서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것같이 성자도 성령도 창조함도 받지



신경에 구세군 교리의 근원을 두고 있다.⁴⁹⁾ 구세군은 세계적으로 교회가 인정하는 2대 신경을 인정한다.⁵⁰⁾ 그러나 구세군 예배 의식에서 세례(Baptism)와 성찬식(Holy Communion)을 거행하지 않는다. 300년이 넘도록 비-성례전적 전통을 지켜오는 웨이커 교와 구세군을 제외한 어떤 교파에서도 이와 같은 의식을 공공연히 없애지는 않는다. 성례에 관한 구세군의 입장은 반-성례(Anti-Sacramental)가 아니라 단순히 비-성례(Non-Sacramental)적 이다.⁵¹⁾

않으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무한하시다. 성부께서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러나 그들이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이다. 창조함을 받지 아니한 세 분 또는 무한한 세 분이 아니라 창조함을 받지 아니한 한 분이며, 무한한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러나 세 전능자가 아니라 한 전능자이시다. 그러므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주가 아니라 한 주 이시다.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의하여 이같이 각각의 인격을 하나님이요 주이시라고 인정한다. 이같이 정통신앙에 의하여 우리는 세 신(神)과 세 주(主)가 있다 함에는 금지 받고 있는 것이다.

성부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며, 창조 받거나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성자는 아버지께만 속하여 만들어 지거나 창조되지 않고 나신분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 속하며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고 또한 나신 것도 아니며 보탬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한 성부이시고 세 성부가 아니며 한 성자이시고 세 성자가 아니고, 한 성령이시고 세 성령이 아니다. 또한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느 한 위가 다른 한 위의 앞이나 후가 될 수 없으며, 어느 한 위가 다른 한 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없다. 삼위는 동등하게 영원하고 동등하게 같으시다.

그러므로 이미 말한 대로 매사에 있어서 삼위 안에서 한 통일된 분과 한 통일된 분 가운데 삼 위께서 경배 받아야 한다. 그런즉 구원 받으려는 자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믿어야 한다. 나아가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올바르게 믿는 일이 필요하다. 올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심을 믿고 고백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부의 본체에서 나신 신이시며 온 세상 보다 앞서 나셨고 인간으로서의 성모 마리아의 본체에서 나시사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성이 있는 영혼과 인간의 육신으로서 존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의 신성으로 는 성부와 동등하시며, 그의 인성으로서는 성부보다 낮으시다. 그는 하나성이며 인간이지만, 둘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신성이 육신으로 변천하여 하나가 됨이 아니며 신성이 인성을 취한 것이다. 온전히 하나이신데 본질의 혼동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의 통일로 그러하다.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신이 한 사람인 것 같이 신이시며 인간이신 그분도 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몸으로 부활 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행한 대로 보응 받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나 악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정통신앙이니 이를 진실 되고 성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영광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9) Salvation Army, Chosen to be a Soldier(London: International Headquarters, 1977), p. 21.

50) Ibid., p. 22.

51) Non-sacramental의 입장을 R. Bultmann, Gunther Bronkamm, E. Kasemm, E. Lohse등이 주장하고, Ultra-sacramental의 입장은 E. Schweitzer, O. Cullmann, W. Bauer, Alf Corel, 등이며, Anti-sacramental의 입장은 A. J. B. Higgins, James D. G. Dunn, Scott, W. F. Haward, Gancner,



구세군에서 성례를 거행하지 않는 반면 개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성례전의 타당성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구세군의 활동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목적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알리는데 있었다. 설교는 가장 단순한 단문 형태로 이루어졌다. 부스는 성례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총의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고 확신함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많은 논쟁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성례전을 거행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스는 구세군 운동이 급성장 하는데 일선에선 사역자와 선교자금 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웨이커교의 영향을 받는 그는 구세군에 몰려오는 여성들을 무익하게 방치하지 않고 초기부터 선교자금 조달과 구세군 전 사역에 여성을 등용시키기로 확대했다. 웨이커교도들은 성령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인류는 평등하다고 믿었다. 캐서린 부스가 1860년 성령강림절 주일에 런던 **Exeter Hall**에서 1,000명모인 회중 앞에서 최초로 공중설교를 할 때 수많은 개심자를 얻은 것을 보았다. 구세군은 이들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성령 안에서 남성 못지않은 역량을 열마든지 발휘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교회들은 여성이 성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던 시대이므로 여성이 성례 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구세군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차별이 없어야 함을 믿었다. 그 후 근 30년간 설교와 교육, 그리고 저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미래 여성 사역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⁵²⁾

그리고 제7대 윌프레드 키팅(**Wilfred Kitching, 1954-1963**) 대장이 프렌드파와 구세군간의 관계는 타종교단 대체와는 달리 그 사고방식이나 행하는 바가 서로 닮았음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많다고 언급한바와 같이 구세군과 웨이커는 성령의 직접 영감의 가능성 문제(침묵을 통해 빛을 기다림, **waiting upon the Light**)는 와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성결 생활에는 분리와 헌신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내용이나 집회(**meeting**)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다. 캐서린 부스는 성결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푸렛처, 웨슬리, 휘니, 프렌드파의 교훈과 미국의 성결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Macgrogro, James D. G. Dunn이고, **Moderate-sacrament**의 입장은 J. H. Bernerd, C. K. Barrett, C. H. Dodd, R. E. Brown등이 주장한다.
Needham. Ibid., p. 24.

52) Roger J. Green, "Lessons form the Life and Ministry of Catherine Booth" Portrait of a Model Minister, www.restorationfoundation.org/women's%20issue/51_32.htm



고 했다. 스테드(**W. T. Stead**)는 “17세기 중엽의 영적인 부흥과 19세기 후반의 그것과는 너무나 흡사하고 많은 점이 닮았다. 마치 조지 폭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부스의 영성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폭스의 영혼이 오늘날 부스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나 부스 터커가 언급한대로 구세군 교리와 퀘이커 교리는 본질적으로 불일치하나, 존 취둘러(**Major John R. Cheydleur, Ph.D., ACSW**)의 표현을 빌리면 구세군의 역사적 뿌리는 퀘이커 교와 메도디스의 쌍둥이의 열정적인 전통을 받고 시작되었다. 구세군 창립자들은 인간을 존중이 여기며 돌보는 봉사의 열정과 ‘누구든지 오라하시느’(계 21:17) 신학으로 포괄적 전도의 열정인 쌍둥이 열정(**twin passions**)은 이어 받은 것이다.⁵³⁾

53) John R. Cheydleur, Beyond Passion: Developing Sustainable Structures for Our Future p.3. www.salvationarmy-usaeast.org/resources/social_services/beyond_passion.pdf



IV. 구세군 교리 형성의 태동기(The Salvation Army Doctrine Formation - The Growth Progress)

1. 기독교 선교회(The Christian Mission of Doctrine Formation)

1865년 6월 윌리엄은 동 런던 화이트채플(Whitechapel) 거리를 거닐다가 브라인드 베거(Blind Beggar)라는 술집 앞에서 가로전도 하는 팀(동 런던 특별 봉사 위원회 회원인 W. Jones Hayden 와 거리 선교회(street mission)의 Gloucester Hall, Sclater)를 만나게 되었는데 전도하는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부스에게 팀원 한 분이 다가오더니 경고를 해달라는 부탁받자 선 듯 허락하고 말씀을 선포하자 수많은 구도자를 얻게 되었다.¹⁾ 계속 전도대원들과 Blind Beggar앞 도로변과 Mile End로 향하는 사거리에서 가로전도를 계속하게 되었다. 물론 가로에서 구원받은 이들로부터 자기들의 대표자가 되어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 받게 된다. 전도회는 공동묘지 장소에 천막집회를 마련해 놓고 오후 6-7시까지 가로전도하고 있었으나, 초청한 부흥 강사가 몸이 아파서 인도할 수 없게 되자 강사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 이들은 가로전도집회에서 만난 윌리엄 부스에게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간청했다.

부흥사로 불리는 윌리엄 부스는 1865년 7월 2일 주일 케이커 교인들의 공동묘지(quaker burial ground, 현재는 어린이 공원)사용할 부지에서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증가하여 국제적인 구세군으로 성장하게 될 집회를 2,300명이 모이는 천막에서 역사적인 최초로 인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1주간 집회를 계획하고 시작하였으나 6주간 동안 집회가 계속되어 8월까지 모였는데 개심자와 배교자들이 회복 되어 4, 500명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선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기 시작하자 장난꾸러기들이 천막 창문을 통해 돌과 횃불을 던

1) 1865년 이전에 구세군 창립자들은 10대 때부터 찰스 휘니(Charles Finney)를 비롯하여 제임스 코휘(James Caughey), 베비 팔머(Phoebe Palmer)의 체험적인 부흥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캐서린도 10대 소녀시절 때부터 휘니의 부흥 설교안(Lectures on Revivals)을 읽기 시작했고 그의 자녀 브람웰에게 성경과 함께 이 책을 많이 읽도록 권했다. 윌리엄 부스도 사관들에게 자신이 점심시간에 노팅햄 거리에 나가 가로전도할 때 수차에 걸쳐 휘니의 부흥 설교를 인용했던 추억을 말하며 성경과 함께 휘니의 기독교 부흥 설교집을 꼭 읽으라고 추천했다. 제임스 코휘 목사의 부흥회 방식에서 배운 것은 철은 불에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야 하는 것이니 내려치기 위해서는 뜨겁게 달궈야한다는 충고를 기억하게 되었고 창립자 부부는 폼 파머 여 부흥강사로부터 감동을 받아 여성들도 공중 설교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캐서린은 여성사역(Female Ministry: or, Woman's right to Preach the Gospel, 1859)과 여성교육(Female Teaching: Or, The Rev. A.A. Rees versus Mrs. Palmer. 1861)이라는 글도 남기게 된다.



지기도 했다. 타 교파들에 의해 박해를 받아 가면서 교파와 상관없이 복음 전도하여 단 순히 대중들을 교회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 회심과 개심자들을 만드는데 열중했었다. 어느 때는 집회를 마치고 16마일을 피로에 지친 몸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 게 되었다. 어느 때는 옷이 찢어진 채로 들어오기도 하고, 돌에 맞아 머리에 피가 낭자 하게 될 때는 붓대로 머리를 감고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부스의 마음은 영혼 구원, 극악의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받치기로 더욱 다짐했다. 동 런던 주민 은 가난과 비참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다. 부스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의 사랑으로 다가갔다. 부스는 “우리는 성령에 의해 서 집회가 진행되었다”고 회고했다.

기독교 선교회의 신조는 7교리는 1870년 6월 15-18일간 런던 인민 선교 회관 (**People's Mission Hall**)에서 개최된 기독교 선교회 제1차 총회에서 채택됐다.²⁾ 기독교 선교회에서 채택된 신조는 본래 동 런던 기독교 부흥협회(**The East London Christian Revival Society**)에서 1866년 최초로 인쇄된 문서의 내용을 참조한 것 이다. 1868년도의 협정서(**bond agreement**)가 1875년도 회의에서 기독교 선교회 규 칙(**Rules of The Christian Mission**)으로 채택됐다. 1876년도에 구세군은 기독교 선교회 교리를 수용했다. 1878년도에 선교회의 교리를 채택한 후 구세군의 11교리를 새롭게 정리했다. 구세군은 선교회의 2조를 구세군 교리 2조와 3조로 나누고, 7조 신 론과 삼위일체론, 8조 은혜로 구원받는다(**saved by grace**), 9조 배교의 가능성(**on the possibility of backsliding**), 10조 온전한 성결(**entire sanctification**) 의 교리를 추가 했다.

1. 우리는 구신약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유일하시고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신 아버 지와 아들과 성령이신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며 종교적 예배에 합당한 대상이심을 믿는다.
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으므로 참으로 정당히 하 나님도 되시고 참으로 정당히 사람도 되심을 믿는다.
4.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불순종한 결과로 죄인이 되고 성결을 잃고 하나님의 법 을 어긴 것이 정확히 드러난 것을 믿는다.

2) Robert Sandall, The History of the Salvation Army,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1947), pp. 262-63.



5.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음으로 온 세계를 구속하셨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6.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7. 우리는 영혼 불멸, 몸이 다시 사는 것, 세상 끝의 총 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무한한 형벌을 믿는다.³⁾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1조는 감리교 뉴 커넥션(**Methodist New Connection**) 교리 제2조의 ‘하나님 영감’(**Divine inspiration**)과 복음 동지회(**Evangelical Alliance**) 교리 제1조의 ‘하나님 영감’(**Divine inspiration**)을 참조하여 ‘하나님의 영감’(**inspiration of God**)으로, 완전한 형태(**form a complete**)를 유일하다(**are the only**)로 수정하여 제2조 ‘성서는 정확하고 은밀한 심판이 있음을 설명한다.’ 라는 의미를 함축시키고 수용했다. **Divine**을 **God**으로 하나님이란 기본적인 단어로 통일 시켰다. **Divine**(Θεός)는 **God**(Θεός)에서 유래되었다. **God**은 **Divine**의 기본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the one true God**)이란 의미다. **God**은 히브리어의 엘로힘과 여호와를 번역한 것인데 능력 힘센, 능력, 탁월하심과 기원이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으로 창조사역에 임하셨다(잠8:27, 요8:27, 엡3:9, 히1:2, 롬26:13).⁴⁾ **Divine**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성품과 본질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2조는 뉴 커넥션 교리 제3조의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현존하신다(**Three persons exist in the Godhead**)를 살아 계시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there is only one living and true God**)로 수정하고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동등하심(**undivided in essence and co-equal**)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세 위가 있으며(**three persons in one God-equal**)로 수정하고 복음 동지회 교리 제3조의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을 갖추셨으나 한 분이시다’의 의미를 함축시키고 수용했다.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3조는 뉴 커넥션의 제4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

3) Murdoch, Ibid., pp.174.

4) Robert Jamieson, A. R. Fausset and David 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1871).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Commentary by ROBERT JAMIESON. by <http://blueletterbible.org/Comm/jfb/Gen/Gen001.html>.



성과 인성이 연합 되었으므로 참으로 정당히 하나님도 되시고 참으로 정당히 사람도 되심을 믿는다.’ 라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수용했다.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4조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불순종한 결과로 죄인이 되어 성결을 잃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정확히 드러난 것을 믿는다.’ 는 복음 동지회 교리 제4조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결과로(**in consequence of the fall**) 전적으로 타락했다.’ 와 제7조 ‘성령은 죄인을 개심케 하며 성결케 하신다(**sanctification of the sinner**).’를 함축하여 수용했다.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5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음으로 온 세계가 구속되었으니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는 뉴 커백션 교리 제6조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죄를 위해 속죄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려고 살아 나셨음을 믿는다.’와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계속 중보 기도를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복음 동지회 교리 5조의 신학적 의미를 수정했다.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6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라는 뉴 커백션 교리 제7조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and faith in our Lords Jesus Christ are necessary to salvation**)을 믿는다. 라는 내용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and regeneration by Holy Spirit**)을 내용을 추가하고 수용했다.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7조는 복음 동지회 신조 제8조의 내용을 수정하고 수용했다.

1870년 기독교 선교회 일곱 개의 신조를 선택한 직후에 현재의 구세군 교리 제8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by grace though faith**) 의롭다함을 얻으며 믿는 자 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라는 전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뉴 커백션 교리 ‘우리는 믿음에 의한 은혜로 (**by grace, though faith**) 의롭게 되며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성결케 되는 것이 특권임을 믿는다.’라는 8조와 복음 동지회 교리 ‘믿음으로(**by faith**) 죄인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제6조를 수정한 후 추가했다.



기독교 선교회 제1차 회의가 1870. 6. 15-18에 런던 인민회관(**People's Mission Hall**)에서 모였을 때 복음 동지회 교리 8 조 '영혼의 불멸 육체의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 의인은 영원히 행복하고 악인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를 참조하여 교리 7조를 '우리는 영혼 불멸, 몸이 다시 사는 것, 세상 끝에 총 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무한한 형벌을 믿는다.'라고 결정했다.

1873년도 기독교 선교회 제2차 회의 시에는 궁극적인 성결(**Perseverance in holiness**)을 궁극적인 견인(**final perseverance**)으로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전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설교(**preach**)라는 용어보다는 말씀(**spea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기록 서기 **Bramwell Booth**와 부서기 **Dowdle**). 회의(**council**)라는 일반적인 용어 대신 전략회의(**war councils**)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윌리엄 부스 목사는 1876년 6월 연회에서 전도자들은 회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거리끼는 모든 죄를 버리라는 「회개(**Repentance**)」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Faith**)」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까지 몸과 혼과 영혼이 흠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성결(**Holiness**)」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고 했다.



V. 구세군 교리 형성의 성장기(The Salvation Army Doctrine Formation - Growth Period)

1. 구세군 11교리(The Salvation Army's 11 Doctrines of Doctrine Formation)

구세군 창립자들은 구세군 11교리(The Salvation Army Doctrines, 1878)를 채택하게 된다. 구세군 교리는 초기보다 33퍼센트가 증가되었다. 구세군인 들은 1867년도 최초의 신앙 진술서에는 4교리가 빠져있는 일곱 개의 신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최초의 신앙 진술서에는 신론과 삼위일체론이 합쳐있었다. 4교리 중에 하나이고 다른 3교리는 첫째로 현재의 교리 제8조 은혜로 구원받으며(We are saved by grace)이고, 둘째로 제9조인 배교의 가능성(on the possibility of backsliding)과 온전한 성결(on entire sanctification)이다. 1870년 교리에는 제10조를 추가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앙선포와 동일하지 않으나 세부적으로 두 용어를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제9조를 후기에 추가했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We believe that continuance in a state of salvation depends upon continued obedient faith in Christ.)는 교리는 구세군인 들의 신앙을 진술하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¹⁾

1875년 기독교 선교회의 일곱 개의 신조(Articles of Faith)를 구세군 11 교리로 채택하여 1876년 기독교 선교회 제 3 차 회의 결과 교리 제9조와 제10조를 정리하여 추가하기로 했다. 제9조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함을 믿는다.’ 칼뱅주의 예정론인 자동적 구원인 once saved, always saved의 이론을 배격하며 배교의 가능성(on the possibility of backsliding)을 생각하여 구세군 교리 제6조를 보충하여 순종이라는 조건적 내용을 추가한 교리이다. 웨이커 교리 9번째 주장 ‘견인(궁극적 구원)과 은혜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이것이 은사와 하나님의 내적 은혜인 구원 밖으로 나가려고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정죄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정결하고 성결케 되어 완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순종하면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한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 신앙이 파선되고 다시 타락하게 된다.(딤후1:6, 히6:4-6)’라고 주장한다.

1) Robert Jamieson, A. R. Fausset and David 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1871). THE SECOND EPISTLE GENERAL OF PETER Commentary by A. R. FAUSSETT. by <http://blueletterbible.org/Comm/jfb/2Pe/2Pe001.html> O) Larsson. op.cit., p.29.



10조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개심 후에도 신자들의 심중에 남은 악의 쓴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하여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악한 경향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서부터 정결한 마음으로 된다. 온전한 성결은 성령의 열매로 인해 생긴다. 감리교회의 복음적 신앙인 성결 교리(**entire sanctification**)를 추가하여²⁾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온전한 성결도 주 앞에서 무흠하고 비난받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야 한다.’ 라고 1876년도에 결의했다.³⁾

1878년 5월에 기독교 선교회를 구세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세군 11교리와 헌장을 채택했다. 기독교 선교회 일곱 개의 신조에 2조를 추가하고 3조와 8조에 **by grace through faith**를 **through grace by faith**로 수정했고 9조 성결의 교리는 레일톤에 의해 채택되었고 11조의 무한(**endless**)이란 용어를 영원(**everlasting**)으로 수정한 후 채택했다.

1. 우리는 신구약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유일하시고 (무한)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3.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심을 믿는다.
5.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6.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7.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8.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2) Owen Chadwick, The Victorian Church Part Two 1860-1901, London: SCM Press, 1970, p. 289.

3) 기록 서기 레일톤(Railton) 부서기 가너(Garner).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9.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10.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살전 5;23, 공동번역).

11.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 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⁴⁾

구세군 교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연구하므로 신학적이고, 인간의 행실에 관하여 연구하므로 윤리적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에 관한 교훈을 연구하므로 기독교적이다. 그리고 역사적 기독교 교리의 개요와 일치한다.

구세군 교리 제1조 "우리는 신구약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We believe that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we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that they only constitute the divine rule of Christian faith and practice.)**는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1조에 '유일한 규칙'(and are the only rule)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한국 구세군에서 번역한 교리에 생략된 '유일하신 하나님의 규칙으로 제정되었다'(and that they only constitute the divine rule)라는 구문을 삽입한 후 전문을 수용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1865년 동부 런던 선교회의 신조를 채택할 때 성서의 전적 신뢰(Biblical Trustworthiness)⁵⁾와 삼위일체론(Trinitarianism)⁶⁾을 따랐기 때문에⁷⁾ 성경을 '구원의 헌장(Our Charter of Salvation)'이라고 외치면서 주의 깊게 읽고(to be more carefully read), 믿고, 경건을 실천(to practical godliness)하라고 강조한다.⁸⁾ 성경은 교리를 성립케 한 유일한 근거이며 모든 교리

4) Sandall, op.cit., pp.288-9

5) Doy Moyer, "Biblical Trustworthiness: Internal Criteria"

6) Stanley L. Derickson, Trinitarianism, <http://www.open.org/~mrdnts/d01900.htm>

7) Murdoch, op.cit., p.2.

8) Waldron, op.cit., pp.105-7.



의 권위가 된다. 성경이 권위에 있어서 유일성과 완전성을 주장하며 축자 영감(**verbal inspiration**)이나, 기계 영감(**mechanical inspiration**)을 인정하지 않고,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⁹⁾인 성서기자의 사상적 영감(**thought inspiration**)¹⁰⁾과 능력, 그리고 특성을 인정한다.¹¹⁾

부스는 성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었다. 그는 항상 어떤 활동을 결정하려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했는데 먼저 그 활동이 성서적이냐? 그리고 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나? 라는 것이다. 실천의 원리(**principles in practice**)를 따랐다.¹²⁾

제2조 “우리는 유일하시고 (무한)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 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We believe that there is only one God, who is infinitely perfect-the Creator, Preserver and Governor of all things-and who is the only proper object of religious worship.**)는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2조에 ‘유일하시고 살아 계신 참 하나님’(there is only one living and true God)을 삭제하고, 일신론(**monotheism**)인 ‘유일하신 하나님’(there is only one God)으로 수정했다.

뉴 커백션 교리 제1조 ‘하나님은 무한 완전하며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who is infinitely perfect, the Creator, Preserver, and Governor of all things)를 ‘무한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who is infinitely perfect-the Creator, Preserver and Governor of all things-)로 comma(,)대신 dash(-)로 수정했다. comma대신 dash를 사용한 것은 구문을 중단하고 낱말을 생략하여 ‘무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강조했다.

9) <http://www.holybible.com/resources/doctrine1/p58.asp>

성령이 필자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등을 살리면서 일점일획이라도 (마5:18)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명하신 것이다. John Coutts, This We Believe: A Study of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Salvation Army Doctrines(London: Campfield Press,1976), p.22.

10) <http://www.newadvent.org/cathen/08045a.htm>

11) John D. Waldron, "The Bible" form "The doctrines and disciplines of The Salvation Army" published by The Salvation Army Headquarters, New York(1890), The Salvationist and the Scriptures (New York: Salvation Army, 1988), p.2.

12) Stephen Court & Danielle Strickland, Salvationism 201 : Training Warriors to Win The World for Jesus(Salvation Army, 1999), p.9.



‘예배의 참 대상이심’은 기독교 선교회 신조 2조의 **and the only proper object of religious worship**에 관계 대명사 ‘**who is**’를 삽입하고 **and who is the only proper object of religious worship**으로 수정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란 사도신경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와 니케아 신조의 ‘한 분이시며 전능하사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고백과 아다나시우스(**Athanasius**)의 영광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고백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만물의 창조자란 ‘창조이전의 발생’(**πρὸ πάντων τῶν αἰώνων**)과 ‘발생되고 피조 되지 않음’(**Ἰεννηθεὶς οὐ ποιηθεὶς**)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용어들은 동방 교회가 451년 아리안(**Arius**)이단과 반세기 이상 피나는 싸움 끝에 얻어낸 트로피이다.

제3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We believe that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undivided in essence and co-equal in power and glory.**)는 뉴 커백션 교리 제3조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현존하나’(**that three persons exist in the Godhead:**)중에서 현존하나(**exist**)를 삭제하고 ‘하나님 안에 세 위가 있으며’(**the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로 수정했다.

‘성부, 성자, 성령’(**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은 뉴 커백션 교리 제3조 ‘아버지, 아들, 성령’(**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과 기독교 선교회 신조 2조에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을 참조하여 삽입했다.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undivided in essence and co-equal in power and glory**)은 뉴 커백션 교리 3조의 **and co-equal in power and glory**와 기독교 선교회 교리 2조 **equal in power and glory**를 참조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격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equal**보다는 **glory equal** 즉 **co-equal**로 수정하고 채택했다. 동등 즉 **co-equal**(ὁμοούσιος τῷ πατρὶ)이라는 용어도 동방 교회가 얻어낸 트로피이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라는 첫째로 강조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성부, 그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일체 신앙을 계승한



것이다.

제2조와 제3조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 예배의 참 대상이시며 세 위가 있으며 본질상 동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trinitarianism**) 되심을 선포한다. 이는 삼태양설이나 삼신론이나 단일 신론 혹은 일신론을 배제한다. (325년 니케아 회의)

제4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심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the divine and human natures are united; so that he is truly and properly God, and truly and properly man.**)는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3조가 뉴 커백션 교리 제4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the Divine and human natures are united, so that he is truly and properly god, and truly and properly man.**)를 수정하지 않고 채택했는데 문법적으로 **semicolon(;)**이 **comma(,)**보다 무거운 구독 점이므로 바꾼 것이다. 참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범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니케아 신조의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만유보다 먼저 아버지께로 서 나신 자요 [신중에 신이시며] 빛 중에 빛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바 되었으며’에서 신중에 신 즉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 (Θεὸς ἀληθινὸς ἐκ Θεοῦ ἀληθινὸς)에서 유래되었으며 약간의 수정이 가하여 수용됐고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음부에 내려 가셨으며]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라는 두 번째로 강조하는 항목인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 죽음, 부활의 신앙을 계승한 것이다. 예수는 인성을 지니신 한 인간이시고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시므로 인성과 신성이 결합을 보이셨다. (451년 칼세돈 회의)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Athanasius**) 신경은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에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이지만 즉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Christology**)을 주장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5조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



을 믿는다.”(We believe that our first parents were created in state of innocency but, by their disobedience, they lost their purity and happiness; and that in consequence of their fall all men have become sinners, totally depraved, and as such are justly exposed to the wrath of God.)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our first parents were created in state of innocency)는 문구는 뉴 커백션 교리 5조 “우리는 인류가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that man wa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로 수정 채택된 것이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는 뉴 커백션 교리 제5조 “그들의 불순종으로 아담은 그의 정결함과 행복을 잃고 그 결과로 그의 후손이 타락하여 범죄 했음을 믿는다.”와 복음 동지회 교리 제4조의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결과로 완전 부패되었다.”와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4조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로 죄인이 되어 성결을 잃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정확히 드러난 것을 믿는다.”를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며 인간의 타락은 도덕적 선택의 자유를 오용한 때였으며 전적타락은 전연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구석구석에 죄의 부패성이 침투되어 있는 상태를 가르친다. 칼뱅(Cavinistc)이나 어거스틴(Augustinian)의 혹은 반 페라기우스 주의와는 다르다. 아르미니안의 original sin, total depravity, universal judgment를 따르고 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제6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the Lord Jesus Christ has, by His suffering and death, made an atonement for the whole world, so that whosoever will may be saved.)는 뉴 커백션 교리 제6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속죄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려고 살아 나셨음을 믿는다.(We believe that Jesus Christ has become the propitiation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orm the dead, and that he ever live to make intercession for us.)의 내용과 유사한 복음 동지회 교리 제5조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계속 중보 기도를 하시기 위함이다.’The incarnation of the Son of God, his work of atonement for sinners of mankind, and His



mediatorial intercession and reign.)과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5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음으로 온 세계를 구속하셨음으로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We believed that the Lord Jesus Christ has, by His suffering and death, made an atonement for the whole world, so that whosoever will be saved.) 중에 '누구든지 구원받았다' (so that whosoever will be saved)를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다' (so that whosoever will may be saved)로 교정하고 전문을 수용했다. 니케아 신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사 고난을 받아 장사 지낸바 되었으며 삼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사 그의 나라를 그치지 않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신앙을 계승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라고 한 것은 단순히 성서적 진리를 해명한 것이 아니라 "예정론"에 대한 반박으로도 볼 수 있다. 어떤 일정한 심령만이 "구원받는다."든지 "타락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학설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다.¹³⁾ 칼뱅주의자들처럼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배제하고 요한 웨슬리 휘우(John Wesley Hughes D.D.)가 1890년 에즈베리 대학(Asbury College) 설립이념처럼 "만인 구원과 완전 구원"(Free Salvation For All Men and Full Salvation From All Sin), 아르미니안의 구원의 보편적 속죄(universal atonement)를 강조한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복음전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7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repentance toward God,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and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are necessary to salvation.)는 기독교 선교회 교리 제 6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를 전체 수용했다. 뉴 커백션 교리 제7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 (and faith in our Lords Jesus Christ are necessary to salivation)을 믿는다. 라는 내용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and regeneration by Holy Spirit)을 내용을 추가하고 수용한 기독교 선교회 신조 제6조를 수정하지 않고 전문을 수용했다. 이는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표현하기 위

13) The Salvation Army, "Chapter 5, Section 2-3, Orders and Regulations for Soldiers of the Salvation Army, date composed: Feb. 1, 1998.



해 세 번째로 강조하는 부분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과 니케아 신조 ‘또 성령, 곧 주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를 믿으니’라는 신앙을 계승한 것이다. 존 카우스(**John Coutts**)는 “구세군은 오래된 구원방식을 믿는다. 우리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유일신주의(**Unitarianism**), 무신론(**Nothingarnism**) 등을 통해 발전되었거나 가져오지도 않았으며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성서에서 가르치는 구원 즉 루터, 웨슬리, 화이트필드 등이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게 믿고 가르치는 것”¹⁴⁾ 이라고 했다. 구원을 받는데 필수 조건은 회개¹⁵⁾와 믿음이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의인, 중생, 양자됨, 확증이다.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시며 신약의 교회를 세웠고 개인과 사회를 위해 역사 하시며 구속 사업을 위하여 역사 하시는 능력이다. 즉 삼위일체적인 구원(**trinitarian soteriology**)을 강조한다. 구세군의 성령의 불(**the fire of the Holy Spirit**) 교리는 16세기의 웨이커 교인의 열정(**the enthusiastic Quakers**)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8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We believe that we are justified by grace, through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and that he that believeth hath the witness in himself.**)는 뉴 커백션 교리 8 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음을 믿는다.’(**We believe that justification is by grace, through faith, and that he that believeth hath the witness in himself;**)라는 상반절의 내용 중에 **by grace, through faith**를 **through grace by faith**로 수정하여 수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교정 이전의 원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복음 동지회 교리 제6조의 이신칭의 교리와 맥을 같이 한다. 브랭글(**Samuel Logan Brengle**)은 선행적 은총(**prevenient grace**), 구원의 은총(**Salvation Grace**), 성결의 은총(**Sanctification Grace**), 영화의 은총(**Glorification Grace**)을 언급했지만 성례전을 은총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제9조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We believe that continuance in a state of salvation depends upon continued obedient faith in Christ.**)는 창립자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

14) John Coutts, The Salvationist(London: A. R. Mowbray and Company, Ltd., 1978), p.5.

15) 구원의 조건인 회개에는 자각, 증오, 후회, 방기, 자백, 용서간구, 하나님께 복종, 기쁨으로 변상함이 포함된다.



스가 평소에 휘니(Charles Grandison Finney)의 부흥 설교 교안(Lectures on Revivals)¹⁶⁾을 통해 큰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제 21번과 제 22번 째 수록된 “배교자”(backsliders: 잠언 14:14)와 “은혜 안에서 성장”(growth in grace: 벰전 3:18))강의안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창립자가 웨이커 교회의 기독교 변증서(An 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를 애독해오던 중이었다. 레일톤은 창립자에게 프렌드파의 신앙 9번째 주장인 ‘궁극적인 구원과 은혜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에 대하여’¹⁷⁾ - ‘이것은 은사와 하나님의 내적 은혜에서 구원 밖으로 나가려고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 정결하고 성결케 되어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사를 맞본 후에 성령과 동행한다할지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 신앙이 파선되게 되어 다시 타락하게 된다(딤펴 1:1-6, 히 6:4-6).’라는 주장을 제안하자 받아들였다. 아르미니안의 조건적 견인(conditional perseverance, backsliding possible)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세군 교리 제 6 조를 보강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870년에 자동적인 구원인 ‘once saved, always saved’라는 예정론을 거부하고 18세기의 웨슬리나, 조지 화잇필드 등이 지지하는 ‘배교 할 가능성’(on the possibility of backsliding)이 있으니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믿음과 순종하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다는 교리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16세기의 제네바의 최고의 권위자인 요한 칼뱅의 교의 때문이다. 제6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칼뱅의 선택교리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세군 교리 제9조에는 이의를 제기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칼뱅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가치하다고 한다. 인간이 자기의 죄 값으로 죽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원한 보장(eternal security)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한번 구원은 영원 구

16) Finney, Charles G. Lectures on Revivals,
www.ccel.org/f/finney/revival/revival6.txt

17) Barclay, Robert, An 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 Being an Explanation and Vindication of the Principles and doctrines of the People called Quakers (New York, Samuel Wood and sons, 1827 8th ed), pp.223-9. 제9명제: 견인과 은혜에서 떠나 타락할 가능성에 관하여 - 비록 하나님의 내적 은혜를 선물로 받았을 지라도 구원 밖에서 저항하고 비난하는 활동을 한다면 아직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어떻던 불순종과 방종한 믿음은 정결하고 성결하며 완전한 상태에서 떨어지며 믿음이 파산될 수 있다. 천국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 했어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



원'(**once saved, always saved**)이기 때문에 배교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칼뱅의 완전 구원으로 구원받은 자가 배교할 수 없다는 교리가 된다. 18세기에 요한 웨슬리와 조지 화이트필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 교의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감리교가 분리되는 진통을 겪게 되었다. 오늘날도 감리교인 혹은 칼뱅파에서 갈라진 감리교라고 구별한다.

초기 구세군 내부에도 칼뱅의 이러한 교의가 스며들어오게 되어 분리되는 일이 있었기에 이를 견고케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1870년 후부터 구세군에서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자동적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 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적이라는 제9조를 추가하게 되었다.¹⁸⁾

1873년에 브람웰 부스는 기독교 선교회 교역자회의에서 '누구든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자라는 견인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상부로부터 한번 지적을 달나 사람이 또 다시 이런 설을 가르치면 본 교단에서 전도나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선교회 내부에 소속된 모든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칼뱅의 구원 교리를 설교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감독관을 두어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세군 내부에 칼뱅의 교의라는 불씨가 남아 계속 연기를 피우고 있고 있었기에 칼뱅설의 침투를 막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면 안 되었고 대내적인 동요와 분열을 방지해야 만 했다. 3년 후인 1876년 총회에서 본 9조를 추가하기로 채택하게 되므로 구세군의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¹⁹⁾ 우리는 성서의 교훈대로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요, 진정으로 개심한 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을 잃고 영원히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원을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제10조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 주실 것"을 믿는다(살전 5:23, 공동번역). "**We believe that it is the privilege of all believers to be 'wholly sanctified', and that thei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may 'be preserved blameless un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1 Thess. 5:23).**"는 뉴 커백션 교리 제 8 조 우리는 믿음에 의한 은혜로 의롭게 되며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주

18) John Larsson, Doctrine Without Tears (London: the Salvation Army, 1974), p. 30.

19) Ibi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성결케 되는 것이 특권임을 믿는다.(**We believe that justification is by grace, through faith, and that he that believeth hath the witness in himself; and that it is our privilege to be 'fully sanc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spirit of our God.**)와 복음 동지회 교리 제7조 성령은 죄인을 개심 시키고 성결케 한다.(**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conversion and 'sanctification' of the sinner.**) 그리고 기독교 선교회 신조(1870) 제 4 조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불순종한 결과로 죄인이 되고 성결을 잃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정확히 드러난 것을 믿는다.(**We believe that all mankind, in consequence of the disobedience of Adam, are sinners, destitute of 'Holiness', and justly exposed to the penalty of the Divine Law.**)를 참조했다.

1876년에 **Quakers**의 중요한 교리적 용어인 ‘온전한 정결’(**on entire sanctification**)을 윌리엄 부스는 1891년 사관학생을 위해 준비한 구세군 교리 제14편에 사용했다. 그 후 추가로 정리할 때 다시 ‘온전히 거룩하게(**wholly sanctified**)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살전 5:23) 성서적 개념인 완전으로(**ὁλοτελής holotelēs**) 개정했다. **ὁλοτελής**의 어원은 **ὅλος**(완전히, 전체, 완벽하게, 철저히)와 **τέλος**(영원한, 불변, 끝이 없는)이다.²⁰⁾

큐(**Clifford W. Kew**)는 성서의 낱말을 인용할 때 공인역(**Authorized Version**)을 사용하다가보니까 ‘**wholly sanctified**’라는 동사구가 ‘**entire sanctification**’이라는 명사구로 바뀌게 되었다고 밝혔다. 1861년 윌리엄과 맴포드는 결혼하기 전 게이트헤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의 견해를 강조하는 휘니 신학(**Finney's Theology**)의 영향을 많이 받고 10조의 성결(**Sanctification**)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연구했다. 구세군의 성결은 웨슬리(**Wesley**), 플레처(**Fletcher**), 휘니(**Finney**)의 사상을 지향하고 있다.

요한 웨슬리가 초기에는 루터의 종교 개혁의 조류를 따랐다. 그는 루터의 ‘행위에 의한 구원’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좀 지나친 변화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어떤 이는 개혁한 신조에 도취하는 현상까지 보였다. “야!

20) Blue Letter Bible



참 잘됐다. 이제부터는 극기, 제자, 성경통독, 교회에 출석하여 기도하는 일 같은 것은 않아도 된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이 옳지 않음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 날까지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 합니까? 자! 이제 부터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안식하게 되었으니 평안히 쉬고 지냅시다. 이렇게 하여 당시 교회는 점차로 침체의 현상을 가져왔다.

루터의 가르침이 이렇게 한심하게 전락하는 것을 목격한 요한 웨슬리는 구원 (**salvation**)이라는 말이 대한 해석에 혐의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구원이라고 하면 의례히 심판 날에나 있을 구원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다. 즉 엄격히 말해서 하늘에 관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요한 웨슬리는 이 잘못된 견해를 시정하기로 했다. 웨슬리는 시종일관 이 지상에서 개인의 성결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구원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문제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면에서나 정당하게 사는 것이 의무요, 특권이다. 사상, 동기, 행동, 이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과 영향이 미치는 테두리 안에 있다. 반 쪼가리 신자란 있을 수 없다.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간에는 금전을 숭배하는 것... 성결은 지도자 몇 사람의 관심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중심 곧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만 할 것이다. 구원과 성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웨슬리는 매우 신중했다. 물론 성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지만 위대한 루터의 교리의 관점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금식, 기도, 참회의 엄격한 고행을 통하여 거룩해진다는 옛 교리의 강조 대신에 루터의 교리를 한걸음 더 전진시킨 것이다. 웨슬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대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한다. 고 가르친 것이다. 웨슬리는 믿음으로 즉시 구원받음과 같이 신앙의 행위로 즉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부터 성결, 완전 구원, 전체적인 성화라는 용어로 알려지게 되었다.

1870년 구세군의 신조가 공식적으로 진술되기 전 성결의 교사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가 1868년 10월 동 런던 전도자(**East London Evangelist**)에 신자를 위한 집회를 성결회(**Holiness Meeting**)라는 용어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동 런던 기독교 선교회 시절 1868년 8월 13개 집회소에서 8,000여명이 모였고, 매주 150여명이 4,000명에게 봉사했다. 1874년 4월엔 11개 집회소가 증가 되었고, 11,000명에게 봉사한 결과 3,220여명의 개심자를 얻게 되었다.²¹⁾



구세군은 1877년 1월 기독교 선교회 연회에서 윌리엄 부스가 동의하므로 시작되었다.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1877년 6월 12일-14일까지 모이는 선교회 회의에서 악대와 성결 교리를 채택하는 일 그리고 찬양에 관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²²⁾ 특히 기독교 선교회에서 성결의 교리를 강조하게 된 것은 1876년 12월에 화잇차플에 있는 필드게이트 홀(Fieldgate Hall)에서 성결의 교사이며 “흑암에서 빛으로(Out of Darkness into Light)”를 저술한 아사 마한(Asa Mahan. D.D)목사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성결의 교리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²³⁾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는 1879년 『구세군인(Salvationist)』지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Full Salvatio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을 간직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우리 자신이 더욱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은 심령천국을 이루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도록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²⁴⁾

브람웰 부스는 1880년 『구세공보』를 통하여 “온전한 성화(Entire Sanctification)”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1. 온전한 성화는 칭의에서 비롯된 뚜렷한 은혜의 상태
2. 온전한 성화는 모든 외적 내적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해방되고 교만과 분노, 세상 사랑의 뿌리로부터 해방되는 것
3. 온전한 성화는 모든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쌓는 것.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존재, 그릇이 커져 감에 따라 현재의 수용 능력까지 가득 채우고 채워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윌리엄 부스는 1891년 구세군 편람을 통하여 성화의 열매를 언급했다.²⁵⁾

21) Magnuson, Norris A, Salvation in the Slums Evangelical Social Work 1865-1920, (Grand Rapid: Baker, 1990), p. 3.

22) Asa Mahan(1799-1889) 목사는 Oberlin 대학 초대 교장으로 Adrian 대학에서도 다양한 재능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했다. 19세기에 미국에 설교자 Charles G. Finney를 비롯하여 Mark Hopkins 교사, James McCosh 학자, Charles William Eliot 대학교장을 배출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 New Life 신학을 가르쳤고 하버드 대학에 신교육을 전했다. William Booth가 선교회의 교리 중에 성결의 교리를 강조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다. *Freedom and Grace: The Life of Asa Mahan*. 1982. p. ix.

23) Mahan, Asa. Out of Darkness into Light; or The Hidden Life made Manifest (London: Wesleyan Conference Office, 1877) 참조

24) R. David Rightmire, “The Life & Thoughts of Samuel L. Brengle(1860-1936)”, Officers Institute of Missionary Autumn 2005 Semester, THE THEOLOGY AND THOUGHTS OF THE SALVATION ARMY 8-11 August 2005. note of lecture 2.



1. 영혼에 온전한 평화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모든 논쟁을 그치게 될 때 찾아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의 영혼은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 더러는 영혼의 놀라운 기쁨은 휴거 될 때만 이뤄진다고 말들 합니다.
3. 온전한 성화의 열매는 위대한 기적과 축복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4. 온전한 성화의 열매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의하게 됩니다.
5. 하나님과 사람에게 열성을 다하여 끝까지 부드럽게 섬기게 됩니다.
6. 세속적으로 향하던 모든 쾌락과 야망을 파괴시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7. 죄에 얽매었던 모든 열정과 습관들과 싸워 온전히 구출되어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캐서린 부스(**Catherine Booth**)는 1881년 **Exeter Hall**에서 “열정(**Enthusiasm**)과 온전한 구원(**Full Salvation**)”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일도 있다.

창립자 동부인은 레일톤, 브람웰, 브랭글 등을 구세군의 성결 교사로 연합하여 구원과 성결사역에 임하도록 했으며 후일 교리에 따라 주일 집회의 이름을 성결회와 구령회로 부르게 되었다.²⁶⁾ 현재 전 세계 구세군에서는 브랭글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관과 하사관 그리고 전 병사에 이르기까지 성결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1969년도 교리 편람에는 1881년 구세군 초기에 최초로 사용하던 **Entire Sanctification**을 다시 단순한 용어인 **Sanctification**으로 개정했다. 2010년 교리 편람에서 성결의 교리를 『온전한 구원(**Full Salvation**)』으로 명시했다.

성결은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다. 성결의 필수조건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있다. 성결은 위기(순간성)와 과정(계속성)의 체험이고,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구원이다. 구원에는 거듭남(**new birth**)과 온전한 정결(**entire sanctification**)인 성결의 체험(**experience of holiness**)을 할 때 신자들은 정결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된다.²⁷⁾

25) The General, The Doctrines of The Salvation Army: Prepared for the Training Homes. London: IHQ. 1891. p. 89.

26) Larsson, op.cit., p.34.

27) Murdoch, op.cit., p.2. Leo G. Cox 박사가 "신자의 죄(Sin in Believers)"라는 글에서 언급한대로 '신자의 죄는 불신자의 죄와 구분되고 온전한 정결에 실패된 상태요, 즉 칭의 이후에 남아 있는 곧 온전한 정결함이 없는 것이다.' 초기 성결(initial sanctification)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세군인은 개인적인 성결(**personal holiness**)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히 12:14, 벰전1:15-16, 마 5:8)는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1889년 뉴욕 빈민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을 실천한 구세군 여사관 엠어 J. 본(**Emma J. Bown**)정위의 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세군 빈민가 자매들(**salvation army slum sisters**)은 구세군 군복을 입고 돌씩 짝지어 매일 30가정 이상을 방문했다. 이들은 최악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빈민들의 가제도구를 비롯하여 방바닥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아기를 목욕시켜주고, 환자의 가정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해주기도 했다. 심지어 예수 사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장례까지 치러 주었다.²⁸⁾

제11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 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We believe in the immortality of the soul;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in the general judgment at the end of the world; in the eternal happiness of the righteous; and in the endless punishment of the wicked.**)는 뉴 커넥션 교리 12 조 우리는 육체의 부활-최후의 총 심판-영원한 의인의 행복과 악인의 무한한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 (**We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in the general judgment at the last day-in the eternal happiness of the righteous-and in the endless punishment of the wicked.**)와 기독교 선교회 신조 7 조 우리는 영원불멸, 몸이 다시 사는 것, 세상 끝에 총 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무한한 형벌을 믿는다. (**We believe in the immortality of the soul-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in the general judgment at the end of the world-in the eternal happiness of the righteous -and in the endless punishment of the wicked.**)를 참조했다. 제11조는 영혼의 불멸(**immortality of the soul**), 육체적 부활(**resurrection of the body**), 보편적인 심판(**general judgment**)을 강조했다.

1875년에 구세군 교리를 채택하기 위해 준비할 당시 영원한(**everlasting**)으로 된 문헌을 1878년도에 수정 작업하면서 무한한(**endless**)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전문을 채택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과 니케야 신조 ‘영광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사 그 나라를 그치지 않게 하실 것을 믿는다.’ 라는 성서적인 종말론을 신앙고백으로 채택한 것이다. 구세군교리는 구원사적인

28) Stanley, S. "Social Holiness in New York City: Wesleyan/Holiness Women Share God's Love." *Holiness Digest*, Fall, 1989. pp.1-2.



각도에서 취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조는 구원의 계획(성경), 제2조-제4조는 구원하는 자(성부 성자 성령), 제5조는 구원의 대상(인간), 제6조-제10조는 구원의 방법(7단계), 제11조는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삶(하나님의 나라)이는 곧 구세군 전도의 표제였고 내용이었다.

1878년 7월 잡지에 구세군의 11교리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878년 8월 13일자로 고등법원에 등록하게 되었다. 1879년에 구세군 11교리 헌장을 3차에 걸쳐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선교회의 일곱 개의 신조를 수용하기로 하고 1880년 6월 24일 고등법원에 재등록했다.



VI. 구세군 교리 편람의 변천사(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

한국에서 구세군의 선교 사역은 1990년 10월 1일에 지금의 서울 종로구 평동 76번지 (현 강북 삼성 병원 뒤편)에 있는 덴마크의 대사관을 매입하여 한국 구세군 선교의 진지를 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부흥 운동이 한반도 전역에 번져가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인 호가드(Robert Hoggard) 선교사관 부부와 일행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Heart to God, Hand to Man)”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구세군의 모토를 가지고 구령사업과 사회사업을 병존하는 복합선교(Integrated Mission)를 시작했다.

1. 구세군 국제본영과 구세군 교리 편람(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 and The Salvation Army International Headquarter)

구세군교리 편람들: 1881-1969년도 판,

윌리엄 부스 대장은 최초의 교리 편람을 1881년(The Doctrines and Discipline of The Salvation Army. Prepared for the Training Homes)¹⁾부터 1920년까지 사관후보생을 위한 구세군 교리와 훈련교본(The Doctrines of The Salvation Army : Prepared for the Use of Cadets in Training for Officership by the General)으로 한정판으로 출판했다. 창립자는 구세군 교리편람 할 때 구세군의 사역자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윌리엄 쿡(William Cook) 박사의 집필 양식인 서술체보다, 벤자민 필드(Benjamin Field) 목사의 집필 양식처럼 문장이 간단 명료하며 매번 성서본문을 참고하도록 배려했다.

1885-1917년 사이의 구세군 교리편람은 사관후보생(Prepared for the Training Homes 1891)들을 위해 12회 출판했는데, 1900년도 판에는 사관후보생들이 사용하도록 준비된 (The Doctrines of The Salvation Army: Prepared for the Use of Cadets in Training for Officership) 120쪽 분량의 교리편람이 출판됐다.²⁾ 구

1) 1881년 Railton 사관이 The Doctrine of the Salvation Army를 교정, 1883년 시판, 1885, 1890, 까지 111쪽으로 12차 출판

2) 1900년판이 1911년까지 11차 출판



세군교리(**Doctrines of The Salvation Army 132쪽**)가 1881년부터 1908년까지 9회 출판됐다.

1922년에 브람웰 부스대장은 구세군 교리편람(**Handbook of Salvation Army Doctrine, 180쪽**)을 사관후보생만을 위한(**Training Garrison Edition**) 한정판으로 발행했다. 1923년 1월부터는 판매용으로 런던과 뉴욕에서 구세군 교리편람(**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을 구세군 대장 이름으로 출간했다. 1925년에는 일반용 교리가 재판되었다. 1927년에는 다시 일반용 교리의 어구를 수정하여 구세군 교리 편람(**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이라고 변경했다. 1935년과 1940년에 히긴스 대장에 의해 교리의 어구를 수정한 후 출판했다.

1955년, 1959년 **Articles of War**에 11 교리 삽입 1960년, 1961년, 1964년에 출판했다. 1958년 3월 제7대 대장 키칭(**Wilfred Kitching, 1954-1963**) 재임 당시에는 교리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11년간 개정 작업을 거친 후 1969년도 구세군 교리편람 개정판을 출판했다. 키칭(**Wilfred Kitching**)대장은 새로운 구세군 교리편람을 개정작업 할 때 주의사항은 1.교리 각조에 본문을 삽입할 것. 2.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것. 3.진술한 내용이 교리 각조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할 것. 4.교리 각 신조에 중요한 부분을 나타 낼 것. 그리고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주의할 점은 1.구세군 교리의 근본 사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2.어느 사관이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것. 3.교리편람을 교육시키는 자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을 1958년 4월 구세군 교리 장정 위원회 회원들³⁾에게 지시했다. 부록에 구세군 입장의 성례전을 첨부했다.

키칭 대장은 1960년 4월 라벌 하가드(**Robert Hoggard**) 부장에게 개혁 작업을 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경험담을 듣고 조언을 받아 들었다. 1962년 11월 6일 크라이런스 와이즈맨(**Clarence Wiseman**) 참장이 회장으로 재임시나, 1967년 6월 헬버트 웨스트칼(**Hervert Westcott**) 부장이 회장으로 직위를 계승할 때까지 모든 원고정리는 **Gordon Mitchell** 정령이 책임 짓고 완성했다.

1969년 1월 10일 구세군교리 장정 위원회는 새로운 구세군 교리편람의 최종 회의로 모였을 때 프레틱 카우스(**Frederick Coutts**) 대장은 신판 구세군교리편람(**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 195쪽**) 서문에 “이 교리편람은 신학생

3) 회장 우드(Reginald Woods)참장, Gordon Mitchell정령, Olive Gatrall부정령, 서기 Cyril Boyden정위



들이 박사학위(Ph. D.)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새로운 교리편람은 11교리의 핵심적인 구원과 성결의 진리를 성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해설서이다.” 라고 기록했다. 부록에 구세군 성례전과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첨부했다.

구세군 교리 편람: 1998년도 판, 1979년판에는 요약 간추린 교리편람(**Handbook of Doctrine**)으로 편찬되었다. 1969년도 교리 편람은 연구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구령 확장 운동에 지장이 되므로 1979년 토론토 국제 지도자 회의에서 비영어권 군국에서 방대한 교리 편람을 쉽게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하면 좋겠다는 중견을 모으게 되어 대장의 동의를 얻어 개최되었다.

이들은 구세군 교리를 첫째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했다. 둘째 비영어권 군국에서 자국어로 번역하기 쉽도록 어휘를 제한했다. 셋째 구세군인이 구세군 교리의 근본 원리와 기초에 빗나가지 않도록 교육하도록 했다. 넷째 구세군의 성례전, 사도 신경, 니케아 신경을 첨부했다.

1980년도 구세군 헌장이 추가 되었다. 구세군 헌장이 추가되기 전까지 1878년도의 구세군 교리편람이 변경되지 않았다. 1980년 교리편람은 1969년판 구세군 교리편람을 기초로 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출판했다. 1982년도에는 구세군 교리 요약(**Doctrine We Adorn. An Abridged Study of Salvation Army Doctrines**)을 출판했다.

1998년 가을 구세군 교리 편람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Salvation Story**)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특히 부록에 구세군 교리 편람에 15%나 되는 분량의 13항목을 첨가했다. 11항에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전문을 나란히 삽입했다. 이봐 버로스(**Eva Burrows**)대장은 1986년 구세군 국제 교리장정 위원회(**The International Doctrine Council**)회원을 새로 임명하고, 1992년도에 1969년판 교리 편람을 수정하는 것 보다 전적으로 새로운 교리 편람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 임무의 성취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종래의 구세군 교리편람에 대한 또 다른 제목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을 이루어가는 전체 기간 동안 원래 회원 가운데 위원장과 서기가 바뀌는 일 외에 위원의 변동은 없이 진행되었다.⁴⁾

구세군 국제 교리장정 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다. 과거 런던에

4) 데이비드 가이(위원장), 얼 로빈슨(위원장), 존 아모아, 필 니드햄, 레이몬드 케디, 구드런 리드홀름, 크리스틴 파킨, 래 메이저(서기), 베니타 로빈슨(서기)과 통신위원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출판되었다.



위치함 국제본영 교리장정 회원들은 영국사관들을 구성된 인상을 받았다.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서유럽과 영국인들이었고 국제사관대학과 국제사관학교 그리고 국제본영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선임된 회원들의 내적성찰과 의견을 모아 구세군 교리를 상호보완하기 위해 전 세계 사관들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구성했다.

아프리카 사관과 영국 사관, 덴마크 사관, 캐나다 사관, 그리고 미국 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과 서기는 국제 본영에서 근무하는 영국사관으로 선출했고 7명의 회원 중에 2명을 여성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호주, 브라질, 인도, 스위스와 한국 사관등 4명이 통신 회원으로 되어 있어 이들이 의견을 기고하면 반영하기로 결정했다.⁵⁾

우선 이들이 다뤄야 할 과제는 1991년 세계 지도자 회의에서 질의해온 과제들을 해답하는 문제다. 첫째는 카리스마 운동의 승인 여부에 관한 문제였고, 다음은 장기적인 면에서 새로운 교리 편람을 제작하는 문제이다.

1996년 가을 완성된 새로운 교리 편람을 각 군국 사령관에게 자료를 보내 논평과 제안을 받은 다음 교리 위원 회원들이 숙고한 끝에 새롭게 교정한 후 1997년 7월 대장 자문위원회에 상정되었다.⁶⁾ 교정된 원고를 1997년 가을에 인쇄될 수 있도록 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1998년 2월에 인쇄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대장은 1998년 멜본에서 개최되는 구세군 국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증정했다.

1998년 라의도(Paul Rader) 대장은 구세군인들의 신앙의 기초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불어 사는 것과 구속적이며 사랑에 넘치는 사업과 복음 선교를 위한 구세군인의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구세군 교리편람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Salvation

5) 회장: 정령 데이빗 자이(David Guy) 영국, IHQ 서기 참령 레이 캐디(Ray Caddy) 국제본영, 회원: 부정령 존 에모(John Amoah), IHQ, 부정령 필립 니드햄(Philip Needham), 미국, 참령 겨드랜 라이덤(Mrs. Major Gudrun Lydholm), 덴마크, 참령 크리스틴 팔킨(Mrs. Major Christine Parkin, 영국, 부정령 얼 라빈슨(Earl Robinson), 캐나다. 통신회원: 부정령 더글라스 데이비스(Douglas Davis), 호주, 남군국 참령 그레이햄 더스턴(Graham Durston), 호주, 동군국 참령 김준철, 한국, 부정령 잔손(John Jones), 브라질, 부정령 조지 메일러(George Mailler), 스위스. 대표 등이다.

1992년 7월 2일 목요일 영국대표 데이빗 자이(David Guy) 정령의 인도아래 1996년 은퇴 직전까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구세군의 11교리의 기본 진리인 성서와 역사적 교리들이 언급하는 개념을 위배 되지 않도록 하되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여 표현하도록 했다. 구세군 교리 장정 위원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출판되기 까지 년 3-4회 걸쳐 2-4일간 교리 위원회가 모임을 갖게 되었고 브람웰 틸스레이(Bramwell Tillsley) 대장과 폴 레이더(Paul Rader)대장까지 세분의 대장이 관여하게 되었다.

6) 대장 자문 위원회의 회장은 부장 노르만 마셜(Norman Marshall), 서기 부장 레오 워드(Leo Ward), 회원 부장 아나 헤네빅(Anna Hannevik), 데니스 헌터(Denis Hunter), 에드윈 메리온(Edwin Marion), 존 니드햄(John D. Needham), 콜넬리스 벨라울(Cornelis Verwaal), 카스틴 솔하즈(Karsten Solhaug), 라버트 체벨리(Robert Chevalley)등 이다.



Story)라는 용어로 통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 우리는 혈화 군대⁷⁾라고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공동체, 선교, 성례, 교회라는 용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 구속을 위한 계획 속에서 구세군의 역할을 성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병사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새롭게 출판된 구세군 교리편람: "구원에 대한 이야기(**Salvation Story**)"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안내서(**Salvation Story Study Guide**)"⁸⁾가 구세군 병사들의 신학과 윤리의 사상을 돕기 위해 연결시켜 집필되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안내서에는 실용적(**practicality**) 윤리인 도덕적 실천(**usefulness**)과 사회적 이슈들인 생활양식을 신학과 연결시킨 점이 특징이다.

1999년 구세군 국제 교리장정 위원회⁹⁾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학습 안내서가 출판되었다. 특히 1999년 구원에 대한 이야기 부록에 구세군 국제 영성 위원회의 보고서가 첨부되었다.¹⁰⁾ 라의도 대장 재임시 사관이 아닌 병사를 교리 장정 위원 회원으로 임명

7) 구세군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선포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보혈과 복음 전도자를 정결케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한다.

8) 1963년에 We Believe: A Digest of Salvationist Doctrine 39쪽, The Eleven Points: A Doctrinal Study 46쪽, 1976년 John Coutts 사관이 This We Believe: A Study of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Salvation Army Doctrines 133쪽, 1982년엔 The Doctrine We Adorn: An Abridged Study of Salvation Army Doctrine 142쪽의 교리학습에 보조 자료가 출판되었다.

9) 레이 캐디(Ray Caddy) 정령보, 구드룬 리드홀름(Gudrun Lydholm), 필 니드햄(Phil Needham), 크리스汀 파킨(Christine Parkin), 얼 로빈슨(Earl Robinson), 베니타 로빈슨(Benita Robinson) 위원

10) 구세군 국제 영성 위원회보고(INTERNATIONAL SPIRITUAL LIFE COMMISSION REPORT)

구세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았다. 이 자유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구세군의 영성과 사역은 이미 준비된 기쁨 가운데 부유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유를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경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약속된 것이다. 구세군의 이러한 전통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효과적인 독창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다.

구세군의 군인들의 영적 성장과 구세군 운동의 본질적이 요소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구세군 국제 영성 위원회를 소집했다. 위원들이 5주에 한 번씩 만나서 위탁받은 내용을 104개 국가의 다양한 문화이해하면서 사역할 때 보편적인 믿음과 실천에 장애 되는 일이 없도록 통일하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도전적이며 약동적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치를 위한 자료와 제안을 접수하고 후원하기 위해 서신 교환을 담당하도록 했다. 구세군 신앙생활의 관점들인 불신자를 위한 사역(ministry to the unchurched), 만인 제사장(the priesthood), 개인 구원(personal salvation), 성결한 삶(holiness of life), 자비성 활용(the use of the mercy seat), 사회적인 사역(social ministry)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함을 얻은 구세군이 타 교회에 실천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상세하고 분명하게 고찰하도록 했다. 구세군의 전통이 아닌 말씀과 행함의 형태를 언급할 때 타 교파의 전통도 소중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성찬 예식(holy communion)에 관한 연구와 재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재고해볼 가치가 있다는 연구도 했다.

구세군 국제 영성 위원회원들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PIRITUAL LIFE



한 것과 같이 존 가완스(**John Gowans**) 대장도 2000년도에 구세군 신학과 사역에 관한 간행물인 말씀과 실천(**Word and Deed**)의 부편집장 로저 그린(**Roger Green**) 박사를 회원으로 임명했다. 존 가완스(**John Gowans**)대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지침서를 자국어로 번역 출판할 때 교리강사, 사관, 사관후보생들이 병사 준비반에서 신앙 교육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학연구 보조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군국 지도자들에게 지시를 했다. 1894년에 찰스 A. 브르그스(**Charles A. Briggs, D.D.**)교수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구세군의 교리는 초기부터 어려운 용어를 피하여 단순했고 분량도 많지 않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catholic faith**)을 일반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다.”



COMMISSION) 대장은 구세군 국제 영성 위원회의 회원들을 사관과 병사 중에서 임명했다. 부정령 Robert Street (회장), 부정령 Earl Robinson (서기), 부정령 Linda Bond, 정위 Teofilo Chagas, 부장 Doreen Edwards, Roger Green 박사, 부정령 Margaret Hay, Miss Susan Harris, 영문정교 Warren Johnson, 부정령 David Lofgren, 정령 Emmanuel Miaglia, 부정령 Stuart Mungate, 정령 Phil Needham, 참령 Lyell Rader, 정위 John Read, 정위 Oscar Sanchez, 참령 N. M. Vijayalakshmi.

통신회원: 부장 Ian Cutmore (직전회장), 정령 Shaw Clifton, 참령 Ian Barr, 특무 William van Graan. 부정령 David Kim, Chong-won, 정령 Douglas Davis, 부장 Peter Chang 신병부교 John Bayliss. 이 위원들은 5주에 나눠서 회의를 했다.



The General and the Chief of the Staff with the International Doctrine Council

Back Row, from left: Lars Lydholm, Colonel Devavaram Prathipati, Major Barbara Robinson, Major Lester Ferguson, Major Karen Shakespeare, Major Edwin Okorougo, Dr Roger Green.

Front Row, from left: Colonel Earl Robinson, General John Larsson, Chief of the Staff Commissioner Israel L. Gaither, Colonel Benita Robinson.

새 천년에 들어가면서 교리 장정 위원회는 장래에 교리편람에 추가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는 1995년 구세군 국제 지도자회의에서 "영적 지도력과 구세군 신학(**Towards a Salvationist Theology of Spiritual Leadership**)"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인사역과 구세군 신학(**A Salvationist Theology of the Ministry of the Whole People of God**)"이라고 개칭했다. 이 자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제10장에 구세군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백성을 위하여 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구세군 국제 교리 장정 위원회와 캐나다 범유다 군국의 윤리 토론회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승인을 받은 후 2001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위니펙에 위치한 윌리엄 캐서린 부스 대학에서 "구세군 국제 신학과 윤리 심포지엄(**International Theology and Ethics Symposium**)"이 "새 천년을 위한 구세군 신학과 윤리"라는 주제로 개최 되었다.

이때 예일 대학 신학부에 조직신학 교수 볼프, 헨리 B. 라일(**Volf, Henry B. Wright Professor of Theology at Yale Divinity School**)의 "교회의 삼위일체 선교"라는 기조 강연으로 시작하여 참모총장 존 라아슨(**John Larsson**) 부장의 "새 천년을 향한 구세군 신학과 윤리"라는 강연으로 맞췄다. 심포지엄에서 구세군 신학과 윤리의 정립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의 개발, 교회에 구세군의 기여, 우주적인 복음화를 위한 국제주의의 신빙성, 구세군 신학과 윤리에 관한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중시, 구세군의 다양한 문화배경 속에서 대화를 통한 연대감 형성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구세군 교리편람은 1881년도에 캐드린 부스가 선언한바와 같이 "구세군 교리는 기독교



교의와 분리한 바 없으며 어떤 신신학을 채택한 바 없다”고 했다. 창립자도 “구세군은 어떤 새로운 교리를 가르친바 없다”고 선언했다. 오늘날까지 구세군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구세군 교리 편람은 시대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교육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이 구원함을 받으며 성결생활을 하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개정되어 왔다. 구세군 교리 편람은 1878년 법적인가를 받은 구세군 교리를 구세군 사관이 개인적 혹은 공적으로 구세군의 11교리의 취지와 일치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세군 사관의 학습과 훈련을 위한 해설서다.

전용섭 부장은 “우리의 의도는 오직 우리의 구세군 교리에 명시된 구원과 성결의 도리를 잘 이해하여 그대로 충실하게 실천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¹¹⁾ 이제 구세군 교리 편람은 누구든지 기독교의 진리인 순 복음을 조직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믿음이 혼돈되지 않도록 질서 정연하게 확립시켜나가도록 앞으로 개정되어 질 것이다.¹²⁾

2. 한국 구세군과 교리편람(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 and The Salvation Army Korean Territory)

한국에 구세군 교리가 공식적으로 1908년 개전 후 19년이 지난 1927년 1,2월 사관지에 구세군 11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 선교회 시절의 7 개의 신조가 먼저 소개되었다. 정령(후에 부장이 됨) 허가두(Robert Hoggard, 1908-1916) 초대 사령관 시절 1910년 2월 15일 서울 종로구 평동 76-9 번지에 위치한 한국 구세군 사관대학(Training Garrison)에¹³⁾ 참령 바우거(G. Bonwik, 1910.2.15-1911.2.15) 참령이 1대 교장으로 부임했다. 정령 브래지(1916-1919) 2대 사령관, 참장 신태빈

11) 구세군대한본영, 구세군교리 (서울: 구세군대한본영, 1974), p. iii.

12) 딤편 1: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하는데 있다.

13) 구세군사관학교는 한일 합병되던 해, 1910년 2월15일 평동 본영 구내에 「성경 대학」(영어로는 Training Garrison)이라는 명칭으로 사관 양성소를 개설하고 참령 반우거(G. Bonwik)가 초대 교장이 되었다. 그해 10월 3일 황종을 외 21명을 제 1기로 사관 임관 후 파송하였다. 당시는 한국교회 부흥기여서 각 교단별로 여러 교회에서 성경학교, 성경고등학교, 성경 대학 등을 개설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 및 교역자를 양성하였다. 한국에 신학교가 세워지기는 1901년에서 1911년 사이에 장로교 신학대학 전신인 “장로회 신학교”(1901), 감리교 신학대학 전신인 “협성신학교”(1905), 구세군사관학교 전신 “성경 대학”(1910), 서울신학대학 전신인 “서울 신학교”(1911)가 세워졌다. 「성경 대학」은 1912년 8월 1일 영국식 명칭인 「구세군사관학교」(Officer Training College)로 개칭하여 1년 단기 과정을 이수토록 하였다. 영국에서 「Training College」는 훈련과 실습을 통한 7개월 전문직 단기교육 과정이었다. 이곳에서 제1기(황종를 학기)부터 4기(윤영모 학기)까지 임관되었다



(1919-1924) 3대, 참장 배일수(1924-1926) 4대, 정령 두영서(1926-1928) 5대 사령관 시절인 1926년에 『구세군 성경요강(Syllabus of Bible Lessons)』이 번역 출판되었고, 그 후 『구세군 사관학생을 위한 성서 개요(The Salvation Army Outlines of Cadets' Bible Lessons)』가 1958년도에 출판되었고 1960년도에 개정판이 재판되었으나 번역하지 못했다. 1927년에 사관학생 교육을 위해 군령군율이 번역되었다. 박준섭(Joseph Barr, 1928-1936) 정령이 제6대 사령관으로 취임되면서 구세군의 신조가 알려지게 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해외 선교사관은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이가 없고 학력도 대학이나 신학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정도였다.¹⁴⁾ 초기의 한국 구세군 지도자들은 인력 수급을 위한 선교와 교육훈련을 병행하기보다 선교에만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러나 한국 구세군의 시작은 마치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과 같았다.

참장으로 승진된 박준섭 사령관 재임기간에 서울 종로구 평동 76-9 번지에 위치한 한국 구세군 사관대학(Training Garrison)에 4대 교장으로 참모정위 로드(Harbert A. Lord)가 1925년 9월 26일 취임했다. 참모정위 로드(Harbert A. Lord)는 한국에 부임하기 전 1925년 7월에 구세군국제사관학교(International College for Officers)에서 사관학교학교장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raining Principals)¹⁵⁾에 참석하고 한국에 부임 했다.

1차로 1933년 10월 20일 인쇄하여 10월 26일 구세군 조선 본영 발행인 참장 박준섭(Lieut Commissioner Joseph Barr, 1869-1945) 6대 사령관(1928-1936)¹⁶⁾ 이름으로 발간된 구세군 교리 편람(387쪽, 정가 1원50전)은 부람웰 대장 재임 당시 참모정위 로드(Harbert H. Lord) 교장과 정명하 사관이 일본어 역본 구세군 교리 편람을 참조하여 한글로 번역작업을 했으며, 1927년도 기독교 선교회의 일곱 개의 신조도 어구 수정하여 출간했다¹⁷⁾고 장형일 부령은 사관학교 개교 기념 공개강좌(1995년 2

14) 장형일, 한국 구세군의 초기 개척기, 구세군 사관학교 개교 기념 공개광좌(모음집 2호), 1995. p. 12. 참조

15) 사관학교장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raining Principals)에서는 주로 사관학생의 훈련기간(Training Course)을 비롯하여 사관학교 전반적인 개념(Total College Concept), 교내 교육과정(Internal Curriculum), 전장훈련(Field Training Programme), 영성훈련(Spiritual Training), 각종 특별 세미나(Specialization and Seminars), 기타 훈련교관(The Training Officer), 사관학생 후보생 개발(Development of the Cadet), 사관학교 행정(College Administration) 등을 토의 연구하게 된다. 특히 구세군의 전통적인 영성인 3S(Soap, Soup, Salvation)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구세군 영성이 3S(Soap→ Saints, Soup→ Servant, Salvation→ Saved)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16) 참장 박준섭(Joseph Barr, 1869-1945) 한국 구세군 제6대 사령관으로 1928-1936 재임



월)에서 언급했다.

2차로 1956년 8월 12일 인쇄하여 8월 15일 1955년도 판을 위도선 사령관¹⁸⁾과 장형일 사관의 수고로 구어체 한글 어구를 현대어로 개정 보완하여 구세군 교리 편람(277쪽, 정가 600원)을 출간했다.¹⁹⁾

3차로 1974년 6월 15일 부장 전용섭 사령관 재임 당시 권성오 참령의 수고로 1969년도 구세군 교리 편람을 구세군 교리로²⁰⁾ 개정판을 번역 출간했다. 부장 김석태 사령관은 1989년 4월 15일 재판했다.

4차로 2000년 9월 20일 부장 강성환 사령관은 구세군 대한본영 문학부 발행으로 구세군 교리편람: 구원에 대한 이야기(Salvation Story, 116쪽 1998년도 발간된 영문판)²¹⁾을 번역 출간했다. 2002년 7월 1일 구세군 교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학습안내(Salvation Story Study Guide, 91쪽)²²⁾를 번역 출간했다.

구세군 교리 편람을 구원의 이야기(Story)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아주 먼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야기를 사용해 왔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게 된다.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이야기가 전달해 주는 사실 이상의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효과적인 이야기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마지막 단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가슴속에서 새로운 싹이 움터오게 하는 어떤 씨앗을 남기기 마련이다. 강력한 이야기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게 하며, 그것이 일어나게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것이 드러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놀라기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그 장소와

17) 구세군조선본영, 구세군교리편람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3)

18) 정령 위도선(Chris W. Widdowson) 한국 구세군 제9대 사령관으로 1953-1957) 재임

19) 구세군대한본영, 구세군교리편람 (서울: 구세군대한본영, 1956)

20) 구세군대한본영, 구세군 교리 (서울: 한림문화사, 1974)

21) The General of the Salvation Army, Salvation Story (London: MPG Books Ltd, 1998)

22) 구세군 국제 교리 장정 위원: Ray Caddy, Gudrun Lydholm, Phil Needham, Christine Parkin, earl Robinson, Benita Robinson. Study Guide to Salvation Story: Salvationist Handbook of Doctrine, London: Salvation Army International Headquarters, 1999.



사건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인물(**character**)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일시(**identification**)를 갖게 한다. 이야기는 청중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understand**),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킨다(**attention**). 또한 이야기는 오래 기억하게 하며(**remember**), 감성적인 부분들을 고양시켜준다(**stir up**). 인간들의 삶은 이야기로 채워져 왔고, 이야기에 의해서 아름답게 채색되어져 왔다.

김운용 교수는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소고에서 자세히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맥을 잡을 수 있다. 설교학에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그래디 데이비스(**H. Grady Davis**)가 그의 책, 『설교의 계획(**Design for Preaching**)』을 1958년에 발간하면서 그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움직임들과 함께 꾸준히 설교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관심하게 되고, 1971년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이 그의 기념비적인 책인 『권위가 없는 사람(**As One without Authority**)』을 펴내면서 가속화되었다. 그는 설교의 새로운 틀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거의 비슷한 때에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에드문드 스타일을(**Edmund Steimle**)과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이 발간되면서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인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설교의 방법론을 "이야기 설교" (**Story sermon**)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설교에 있어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교에 있어 이야기 사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체계적인 방법론까지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1980년도에 캔사스 시티의 성 바울 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인 유진 라우리(**Eugene L. Lowry**)가 이야기식 설교 구성(**The Homiletical Plot**)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전통적인 설교 형태를 비판하면서 이야기와 같은 구성 혹은 줄거리(**plot**)를 가진 형태의 설교 형태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야기체 설교(**Narrative preaching**)는 이러한 설교학적인 흐름 속에서 태동된 설교 방법이다. 이러한 일련의 설교학적인 관심과 연구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설교 방법과는 전적으로 다른 설교학적인 틀(**paradigm**)을 제시하고 있는데, 70년대 이후의 이러한 흐름들을 "새로운 설교학"(**the New Homileltics**)으로 명명되어진다. 리차드 에슬링거(**Richard Eslinger**)는 이러한 일련의 설교학적인 연구들을 가리켜 "설교학의 코페루니크스적인 혁명"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설교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러 갈래로 발전되어왔으며, 이야기체 설교는 그 흐름 가운데 한 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는 그의 최근의 책에서 이러한 흐름을 여섯 줄기로 표현 한다: 귀납적 설교(**the inductive sermon**), 이야기 설교(**the story sermon**), 이야기체 설교(**the narrative sermon**), 흑인 교회의 설교(**the trans-conscious African American Sermon**), 전개식(**the phenomenological move sermon**), 대화체 설교(**the conversational - episodial sermon**). 그러나 보다 최근의 경향에는 여기에 예일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포스트 리버랄(**post-liberal**)한 관점에서 설교학을 전개하는 컬럼비아 신학대학의 척 캠블(**Chuck Campbell**)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리버랄 설교(**the post-liberal preaching**)가 이 흐름에 합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복음의 선포는 언제나 이야기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 13:34) 그래서 신약성경의 배후에 있는 초대교회의 설교(**speech**)가 어떠했는지를 추적하였던 하버드 신학교 교수 에이모스 윌더(**Amos N. Wilder**)는 『초대 기독교의 수사학(**Early Christian Rhetoric: The Language of the Gospel**), 1971, 168쪽』에서 “기독교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드는 이야기”였으며,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을 이야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이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초대교회 생활과 증언의 기초를 이루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그들의 성경이 없어도 이야기를 함으로, 일련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다. 하늘과 땅이 이야기 안으로 모아져 온다. 하나님은 역동적이고(**active**) 인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좋은 이야기와 같이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으며, 그리고 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비전과 환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꿈의 장면과 같은 것이 아니고, 순레이며,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경기이며, 간단히 말해서 역사이다. 새로운 기독교의 설교는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이야기의 형태를 가졌다.

사실 이야기(**narrative**)는 하나님과 세상(**world**)을 드러내는 도구였으며, 하나



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선명하게 노출시키고 계시하시는 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가장 중심 되는 매개체로 삼았으며, 예수님은 이야기 (**parable**)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마 13:34). 실로 이야기는 복음을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었다. 그는 개념이나 조직적인 논리를 통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늘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셨다. 이것은 단지 이야기의 효과성(**effectiveness**)이나 탁월성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청중들의 관심만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야기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었으며, 복음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리하셨을 것이다. 복음의 구조는 잘 갖추어진 논증을 통해, 즉 일련의 개념(**idea**)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정의하고, 삼단논법과 같이 논증하는 것도 아니며, 종교적인 정의를 열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를 삼단논법이나 지적인 논증, 혹은 정의로 바꾸어서 전한다면 복음 그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형시키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은 복음의 선포로서의 설교의 “본질적인 구조는 언제나 이야기(**narrative**)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이웃인 누구인지를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좋은 이웃이란 첫째, 둘째”와 같이 논리적으로 정의하려 하시거나 논증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으로 시작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이야기가 전달해 주는 사실 이상의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정의보다도 선명하고 훌륭하게 이웃에 대해 정의를 내리셨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야기(비유)를 들으면서 청중들은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서게 되며, 그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게 된다. 가슴을 파고들 듯이 밀려오는 메시지를 통해 참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가슴으로 느끼게 되며 결심하게 된다.

구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대를 넘어서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를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경험한다. 기억하고(**remembering**), 이야기하면서(**telling**)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들은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storytelling event**)를 통해 현존하신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형성되어지고, 거룩한 이야기들을 되뇌면서(**retelling**)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미래의 사건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그 자체



가 이야기의 특성을 가진다.”고 말한 웨인 로빈슨(Wayne B. Robinson)의 주장은 옳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중심에서 우리는 그러한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와 엎드렸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narrative)를 통해 예배자에게 들려줄 것을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잘 섬겨야 한다.”는 명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리 하는 아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말하라고 명령 하신다 (신 26:5-9). 이야기체 설교는 계몽주의 이후 합리주의의 이성애 근거한 설교가 30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면서 새로운 설교를 찾으려는 시도 속에서 태동된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설교분야뿐만 아니라 신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야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대 신학적인 토양 속에서 형성되어진다.



결론(Conclusion)

이제까지 구세군 11교리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제설을 비롯하여 한국 구세군과 교리 편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윌리엄 부스와 1865년에 설립된 동부런던 기독교 선교회의 회원들은 7 신조를 채택했다. 회원들은 다양한 교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다. 부스 역시 단순한 감리교인 이라고 볼 수 없다. 그는 침례파, 회중교회, 복음연맹회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1865년 동부런던 기독교 선교회의 7교리에는 칼뱅주의와 대치되는 구원의 확신에 성결(holiness), 배교의 가능성(backslide), 잃음(lost) 등의 교리가 빠져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1870년 10월 1차 총회에서 성결(sanctification)의 교리와 신자들은 구원의 간증(witness)을 해야 한다는 교리와 선교회의 규칙을 채택하게 된다. 이처럼 초기 구세군 교리는 복음 선교를 강조하여 인류 구원에 주력한 선교회의 범주를 넘지 못했으나, 구세군의 선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리로 점차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873년 브람웰 부스는 회원 중에는 칼뱅주의자들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구원은 항상 구원(ONCE SAVED, ALWAYS SAVED)’이라는 설교는 하지 말자. 라고 제안을 했다. 윌리엄 부스는 요한 웨슬리 알미니언 신학인 만인구원(free salvation for all men)과 완전구원(full salvation from all sin)¹⁾ 교리를 받아들였다. 따라 1838년에 제정된 뉴 커넥션 교리 가운데서 1878년에 현행 구세군교리 제9조가 추가하게 되었다. 구세군교리는 기독교 선교회가 세워진 후 10년 동안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 구세군의 깊이와 그 폭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창립자들은 구세군교리 제1조를 통해 성서의 무오성을 믿고 선포한다. 속죄론 부분에서는 신학적 논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적 측면에서 운동력을 약화시키거나 분리를 유발케 하는 여러 부분들은 피하고 성결의 교리로 대치하여 교회(a church)가 아닌 구세군(Salvation Army)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지혜를 보이고 있다.

구세군의 신학적 방법론은 카프만(Gordon Kaufman)이 언급한 경험적 신학(In Face of Mystery: A Constructive Theology)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경험적 신학은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기독교 진리의 실천적

1) Murdoch, op.cit., p.2.



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트레이시(David Tracy)가 말하는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에 가까운 방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레이시가 말하는 실천신학은 기독교(the religious)와 거룩(holy)에 관계된 선(the good)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실천(faith praxis)을 통한 인간 조건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립자들은 구세군을 실천하는 기독교(Aggressive Christianity), 즉 삶의 현장으로 가서 행동하는(go and do something)²⁾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8-19세기 까지만 해도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해 회심시키는 것이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1974년 로잔에서 열린 세계선교 대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제창한 점과 1989년 마닐라에서 모인 제2차 로잔 대회에서 채택한 마닐라 선언문은 사회적 책임을 중요성을 더 무게 있게 다루었다. 보쉬(D. Bosch)는 선교가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등식 보다는 전도를 선교의 중심(center), 핵심(core), 또는 심장(heart)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맥가브란(D. McGavran)은 “교육, 문맹퇴치, 농업, 의료, 현존, 대화, 선포 및 사회 행동 등 일체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목적으로 행해질 때에 만 선교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일체의 교회나 기독교적 사역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선교가 아니라고 했다.³⁾ 구세군은 1975년 나이로비 대회(Nairobi) 이후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 총체적 사역(Holistic Ministry), 혹은 총체적 신학(Holistic Theolog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미 구세군 초기 사역부터 실천해오던 하나의 성육신적인 사역(one incarnations ministry)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미국 구세군에서는 브랭글 세미나와 병행하여 성육신적인 사역을 강화하는 부스 타거(Booth Tucker) 세미나가 실시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사역이다. 이러한 조치는 구세군의 기본사역인 전도와 사회봉사 즉 뼈와 살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의 여파로 영국 내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케 되었고, 가치관은 혼란에 빠졌다. 그중에 가장 극심한 사회적 문제는 노동과 임금분배에 관한 것이었다.

2) Cyril Barnes, Words of William Booth(London: Campfield Press, 1975), pp.49-50.

3) Athur F. Glasser and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Grand Rapids: Baker, 1983), p. 27.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의 발달을 가져왔으나 인간의 힘과 수고를 덜 수 있는 이로운 점이 많으나, 반면에 사회문제도 많이 발생케 되었다. 실업자나 실직자들이 도시로 나와 취업하려고 하여 도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 혁명의 여파로 노동자들의 총 인구의 5분의 3이 런던 시내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저임금 정책과 노동시간 연장 등으로 혹사를 당했다. 화려한 빅토리아 시대는 물질적 번영은 누리고 있었으나 그 혜택이 동부런던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 밑바닥 인생들은 궁핍, 질병, 부도덕과 고통이 깔려 있었으나 이들은 불행을 체념하고 지냈다. 이들의 경제적 가난은 이들의 도덕생활에 영향을 끼쳤다. 영세민의 자녀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길거리나 주일학교가 그들의 학교였다. 당시 런던 시내에 방황하는 어린이는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웬 채드윅(Owen Chadwick)는 『빅토리아 시대의 교회(The Victorian Church)』에서 “영세민이 많을수록 그 지역 교회 신자들의 질도 좋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1858년부터 1885년까지 런던 주교로 시무했던 존 잭슨은 “화이트 채플 구역은 내 평생에 사역했던 교구 중에서 최악의 교구였다. 온 동네는 범죄자로 가득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기록들로 보아 구세군이 출생한 빈민지역은 범죄와 빈곤, 인구밀집, 각종질병 발생 율이 높고, 부도덕이 가득한 최악의 도시였다. 당시의 영국 사회는 구석구석에 살아가기 위해 창부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1861년에 공포된 영국의 법률에는 여성의 결혼허가 연령을 보통법에 1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흥등가에서는 최저 연령마저 어기는 것이 보통이고, 14세 된 여아들을 고용하는 포주가 많았다. 런던 시내 도처에 어린 여아들의 매음굴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곳이 동부 런던이었다. 로날드 피어셀은 피가로(Figaro)라는 신문에 “매일 밤중이면 12세에서 15세까지의 어린 소녀들이 줄을 지어 피카딜리와 워털루 사이를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행렬의 길이는 30야드나 되었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런 정황만 상상해 보더라도 당시의 동부 런던이 얼마나 불결하고 타락된 지역사회였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구세사회주의자인 윌리엄 부스는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사회 복음(social gospel) 지향적인 기독교 특별 봉사회를 세워 현장전도(outreach)를 하게 되었고, 1890년 『최 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In Darkest England And The Wayout)』⁴⁾라는 책을 저술했고, 세상속의 교회로서 구세군이 흩어져 선교할 대상을 찾아 실천에 옮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⁵⁾ 1912년 8월 영광으로의 승진(the Promotion to Glory) 3개

4) William Booth, In Darkest England and The Way Out London: Salvation Army, 1890.



월 전 83회 맞는 생일 1개월 전 노알 앨버트 홀(Royal Albert Hall)에서 10,000여 명이 모인 회중 앞에서 그의 선교에 대한 영적 비전인 “나는 싸우리라(I'll Fight)”고 선언한 요약된 내용을 통하여서 살필 수가 있다. 부스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예수의 공적사역에 대한 말씀을 반향 했다.⁶⁾

구세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근본주의라기보다는 복음주의 입장을 포용하고 있다. 구세군 교리를 통해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복음과 성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웃(OTHER)이 필요로 하는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비를 베풀기⁷⁾ 위한 총체사역(HOLOGISTIC MINISTRY) 혹은 총체신학(A HOLOGISTIC THEOLOGY)⁸⁾을 위한 신앙을 표방하고 있다. 구세군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위 캠벨의사(Captain Campbell M.Dr.)를 중심으로 구세군 지역개발부에서 지역공동체의 에이즈(AIDS) 등 건강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1980년엔 총력 선교(Total Mission)로, 1990년부터는 통합선교(Integrative Mission)로 발전되면서 총체적 치유(Hologistic Healing)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Hologistic Healing에서 hologistic이란 용어는 holism(哲, 心, 生)의 관형사로서 전체론적, 전체관의 의미다. 이것은 각 부분을 결정하는 총합이 아니라, 각 부분을 결정하는 통일체라는 입장으로 보아 큰 전체의 하나의 전체(哲)의 의미다. 따라서 총체는 각 부분의 총화(sum)보다 위대

5) 한 예로 부스는 1891년 구세군에서 안전성냥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다. 안전성냥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과 노동 임금 문제에 혁명적인 모범을 보였다. 당시 성냥은 독성이 강한 인(phosphorous)을 재료로 사용했기에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그 성냥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인에 중독되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 중독성이 없는 안전성냥(safety match)을 제조하여 직업병과 소비자들, 사회적인 공해병을 물리치는 일에 기여했다. 노동임금 역시 당시 여성 근로자(부녀자나 소녀들)가 생산하는 노동 현장에서의 하루 임금이 2전 5리(2D 1/2)인데 비해 구세군 안전성냥 공장에서는 당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온당한 임금 4전을 지불했다. 또한 숙련공에게는 1주에 15원까지 벌수 있게 했다. 다른 생산 업체에선 고작 9원에서 4원 5전 정도였다. 부스는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Fair wages for Fair Work)”을 대사회적을 부르짖었고, 소비자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성냥 박에 “어두운 영국을 밝히자(Light in darkest England)”라는 표어까지 첨가 시켰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구세군은 사회 복음적 사상이 깊었고 기독교 사회정의와 개혁적 사고도 매우 고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6) Geoff Ryan, "The Mission of the Salvation Army" Journal of Aggressive Christianity Issue 21, June-July 2002, pp.33-4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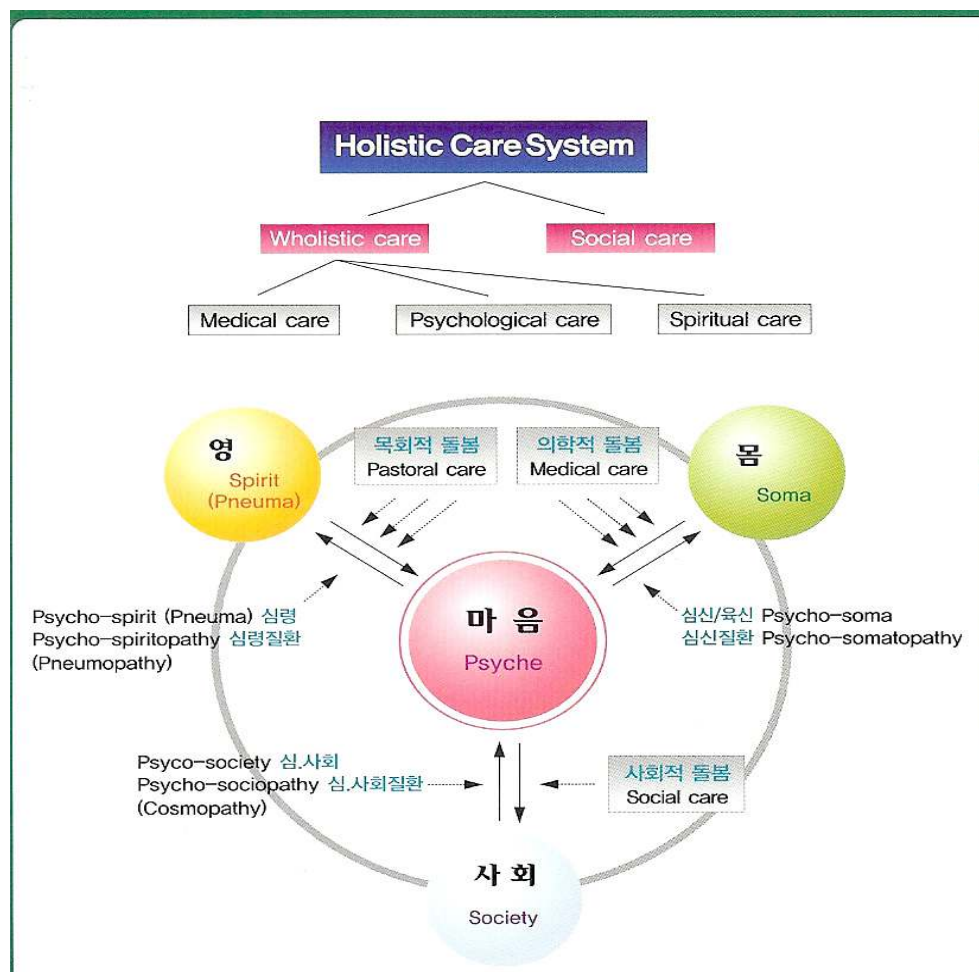
7)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종말 심판의 기준은 교리적 신앙이나, 어느 종파가 아닌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였다.

8) Henry Gariepy, Mobilized for God: The History of The Salvation Army Voume Eight 1977-1994 (Atlanta: The Salvation Army USA Southern Territory, 2000), p.342. Paul E. Bollwahn, Hologistic Ministry: A Compendium of the Best Practices in America(Alexandria: Salvation Army, 20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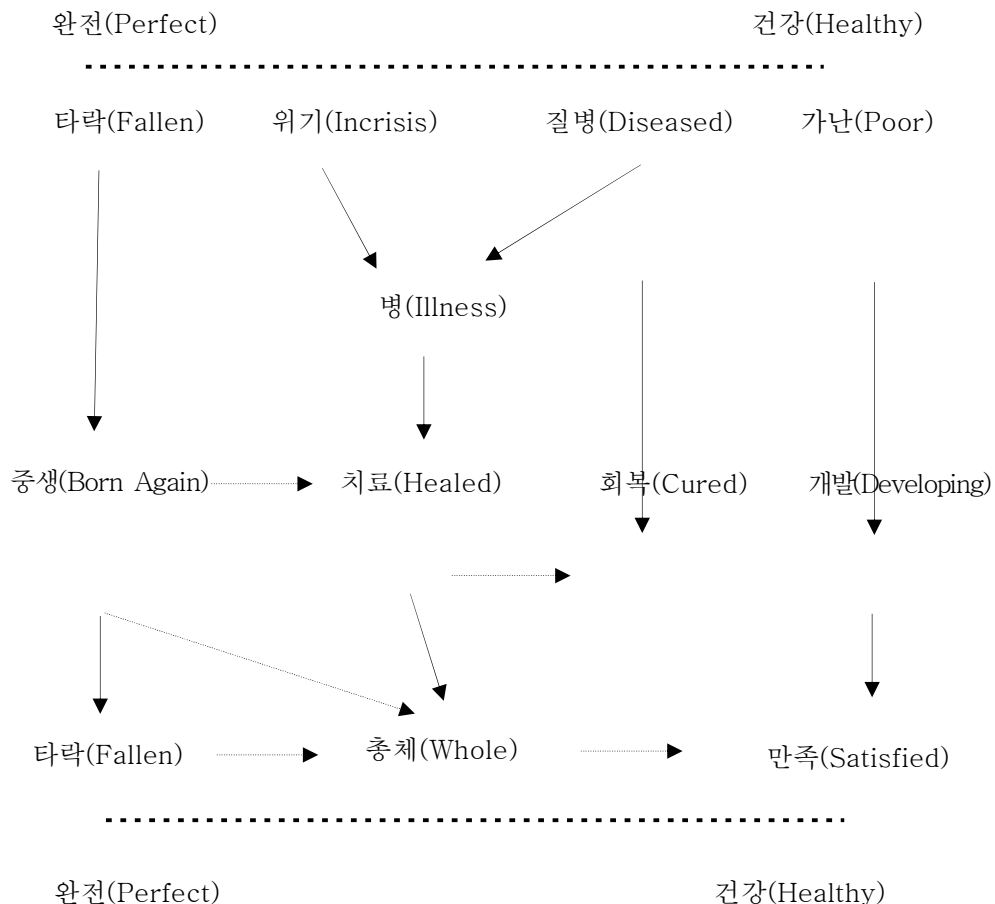
하다. 따라서 부분은 총체를 증명하고, 총체는 부분을 계시한다. (과학은 증명하고, 종교는 계시한다) 그러므로 holistic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cosmos/universe)의 총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총체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의 총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총체적 치유(Holistic Healing)는 인간과 사회(자연환경 포함)를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적 전체 영역에서의 치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적 각 기관(organ)과 몸의 전체(physical whole)와 마음의 지(cognition), 정(emotion), 의(volition)와 마음(mind)의 전체(psychic whole), 영성의 전체적 차원(spiritual whole)과 생물과 환경의 종합체(biotic whole)의 전체적 회복과 치유를 의미한다.

총체적 치유(Holistic Healing)는 전인치유(Wholistic Healing)와 사회치유(Social Healing)와 우주치유(Cosmic Healing)를 포함한다.





총체적 복음 신학에 대한 폴 두 프레스스(Paul du Plessis)의 도표를 살펴보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⁹⁾ 그는 구세군 선교는 재발견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구에 응답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건강을 원하는 운동의 조짐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제10대 대장 와이즈맨(Clarence D. Wiseman, 1974-1977)은¹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곁에 서야한다는 약속, 실족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약속, 연약한 자들을 돕고 노숙자들의 방패가 되겠다는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생명이심을 전파해야 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다.”라고 했다.

9) Paul du plessis, “Mor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Africa: A Salvation Army response” The Officer, February 1997, Vol.XLIII No.2, p.71.

10) Clarence D. Wiseman, 'Call to Renewal and Change' Creed and Deed, (Ontario: Salvation Army, 1986), p.286.



캠벨(Campbell) 정위는 구세군의 온전한 신학은 건강, 치유, 그리스도의 긍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고 삶의 가치, 지역사회에서 변화와 나눔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엔 구세군이 있다(Where there is a Need, there is the Salvation Army).라는 표어처럼 구세군은 예수의 이름으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세군교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본문으로부터 성경의 근본 주제인 인간 구원이라는 대주제의 각 요소에 대한 성경의 모든 계시를 추출하여 종합 체계화했다. 즉 구세군교리 편람은 성경의 근본 주제인 인간 구원의 전 과정이라는 대 명제가 갖는 논리적인 요소와 체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각 성경 본문과 그에 대한 해석을 재구성하여 체계화 한 것이다. 구세군교리는 성경 및 성경 신학과 필연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 처럼 구세군 교리는 창립자의 창의적이며 체험 과 성서적 신앙에 의해 발전되었음을 고 찰할 수 있었다. 구세군교리의 역사적 발전은 인간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 계시 를 가장 논리적이며 통일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종합되었다.

구세군 교리편람을 구세군 병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세군 병사들이 믿는 믿음의 원리 와 참된 교훈으로 영적인 면에서 장성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하며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으로 보다 큰 인물이 되도록(딤후 4:6)돕는데 있다. 또한 구세군 병사들로 하여금 이단을 극복케 하고(갈1:1-9), 신앙 성숙과 복음 전도자의 필 수적 요소인 구원의 도리를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유 1:3, 마 28:20, 롬 2:8). 특히 구세군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신학이라는 차원에서보다는 복음전도 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제8대 Frederick Coutts(1963~1969) 대장 의 말과 같이 교리편람 역시 신학생이 박사학위를 얻기 위한 연구서가 아니다. 신학은 신학자들에게 위탁하고 구세군인은 부스가 말하던 구세 사회주의자(Salvation Socialist) 가 되어 여인들이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들이 배고파하는 한, 사람들이 교도소를 드나 드는 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나는 끝까 지 싸우리라고 한 뜻을 이어 나가기 위해 행동하는 구세군(doing Army)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윌리엄 부스가 83세 되던 1912년 8월 20일 화요일 영광으로 승진하기 위해 그의 성경 을 놓자 세계인은 애도를 했다. 크렙톤 콩그레스 회관(Clapton Congress Hall)에 준비 된 빈소에 금, 토, 월요일까지 65,000여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8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신임 대장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 1912-1929)가 인도하는 장례 예배 에 조지 5세(George V)와 메리(Mary) 여왕을 대신하여 알렉산드리아(Alexandra) 여왕



을 비롯한 조객들이 35,000명이 넘었다. 조문객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후 4시부터 10,000여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8월 29일 목요일 하관예배도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대장이 직접 인도했다. 스톡 뉴잉톤(Stoke Newington)에 위치한 공원묘지(Abney Park Cemetery)까지 20리가 넘는 거리까지 운구하는 동안 수많은 런던의 시민들은 4시간동안 연도에 나와서 애도했다. 40명의 악대를 비롯하여 7,000명의 구세군 병사들과 580명의 시 공무원들 그리고 2,370명의 경찰 병력의 도움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다. 여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스의 업적은 영원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조문을 보내왔다.¹¹⁾

구세군교리 형성의 배경과 교리 편람사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하면서 기초 자료를 충분히 찾을 수 없어서 곤란을 겪게 되었고 11교리에 성서적 지지를 다루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구세군 병사들이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구세군이 구세군답게 되기를 원하다.

구세군인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덕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 옛날 아모스나 하박국 선지처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긴급명령에 순종하여 극악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특공대원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120년 동안 구세군이 사회봉사와 복음 전파를 동시에 실천해 오면서 터득한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21세기 구세군 병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인류를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해야하는 양면전에서 전투해야할 구세군 병사들의 삶의 방향이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제15대 라의도(Paul Rader, 1994-1999) 대장은 구세군 국제 교리 장정 위원회원들에게 구세군 교리편람(Handbook of Doctrine)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Salvation Story)라는 용어로 통용하도록 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학습 안내서에는 그린신학(Green Theology)특성들인 생명, 성화, 영성, 희망, 열린 예배, 환경, 해방, 경제조화, 지구촌 공동체, 생명윤리의 부분도 다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교리 학습 안내서는 구세군 병사들이 신앙과 실천, 예배와 성경공부 등으로 나뉘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므로 실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을 갖고 편집한 학습 교재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회화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편집했다. 매 교리마다 성경본문을 참조할 수 있도록 했고, 구세군은 쿼터리즘(quarterism) 시대에 사는¹²⁾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¹³⁾ 간단명료하

11) Wiggins, op. cit., pp.238-9.



게 편집됐다. 이는 구세군병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계되는 모든 신학적(theological)인 것¹⁴⁾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했다. 동시에 인간 구원에 관한 복음적(evangelical)인 사역¹⁵⁾을 하나로 통합, 연관시켜 놓은 것이다. 구세군병사들이 교리와 교리편람을 학습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구원의 도리를 계시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하는 믿음을 자기 소유로 만들도록 자극하고 있다. 오늘날 구세군 안에는 보수파(conservation salvationist)가 있는가 하면 구세군 정신과는 다르지만 모방하는 파(mimic non-salvationist), 구세군 재복고파(retro-salvationist) 그리고 구세군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쓰임 받도록 재 설비(re-tooling)하려는 파(grass-roots salvationist)들이 있다.¹⁶⁾ 포스트모던 이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세군인들 즉 21세기에 구원받은 구세군 병사의 구원의 상태를 지속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며, 성결한 신앙생활 하도록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 구세군의 증진과 발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구세군의 혈화 전사의 정체성을 재확립시켜주고 있다.

구세군 교리는 1980년 구세군 행동강령에서 언급했듯이 기독교 신앙의 주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강조하는 성서적 신앙조항들이다. 구세군교리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면서 이 시대와의 관계성을 발견케 하며 오늘 살아가는 구세군 병사에게 체형과 소명을 새롭게 한다. 구세군 병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을 재확인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이다. 구세군의 교리는 성서적 근거에 의하여 구원의 복음과 성결의 복음 2대 교리를 강조하게 된다. 구원의 복음 교리는 5조에 구원의 필요성, 6조에 구원의 본질과 범위, 7조에 구원의 조건, 8조에 구원의 결과를 언급하므로 구세군 교리의 중심 교리임을 알 수 있다. 성결의 복음 교리 역시 10조에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성결의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라고 하였고,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12) <http://www.leeuuiyong.pe.kr/new2/old/sub1/1-2/07.html>

13) John R. Rhemiek, "The Theology of a Movement: The Salvation Army in its Formative Yea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Vol.22, Number 1, Spring,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1987.

14) General, op. cit., p.6. 하나님은 (가)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시다.(제2조) (나) 속죄자시다(제4조와 제6-10조) (다) 성서에 나타난 진리의 계시자시다(제1조) 모든 교리를 종합해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 구속자, 계시자이시다. 그는 자신의 역사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통치하시며 모든 일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제11조)

15) Ibid., 구세군교리 제1,2,4,6-10조에 언급된바 테로 하나님의 최상 목적은 바로 인간의 구원이었다.

16) Major Gregory Morgan, 『Who are we?』 The Officer, March/April 2006, pp. 11-12. Captain Charles Roberts, 『The Salvation Army: Retooling for the Post-Modern World』 <http://www.next-wave.org/apr99/SA.htm> 참조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고 하신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복음을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세군 교리를 개정하지 않았다. 이는 구세군의 혈화(Blood & Fire)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구세군 병사는 먼저 성령의 불(Fire)을 받아 성결한 체형을 해야 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구세군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Blood)의 능력을 온 인류에게 선포한다.

교리의 목적이 그저 단순한 성결(mere holiness)이 아닌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 즉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Heart to God, Hand to Man)¹⁷⁾라는 구세군의 모토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외된 자들을 단순히 보는(see) 것이 아니라, 그에게 관심(concern)을 갖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는 성례전적 삶을 그들이 사는 현장에서 함께 피부로 느끼며(feel)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구세군 사회봉사 신학과 실천(Saved to service)은 정착될 것이다. 구세군의 선교는 사건(event)이 아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메시지가 현실(real)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보 브레케(Bo Brekke) 부정령의 글이 생각난다.¹⁸⁾ 최근 방글라데시 구세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빈민선교를 준비하고 있다.¹⁹⁾

구세군 교리가 어떤 신학적 양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구세군 병사들이 순전히 믿음으로 복음전도를 실천할 때(Saved to save) 필요한 성서적 지침서라는 점이다.²⁰⁾ 또한 구세군 병사의 구령교육과 기독교의 진흥, 인류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윤리를 성례전적 삶으로 지역공동체 안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여²¹⁾ 구세군의 선교

17) 구세군의 사명을 고린도전서 10장 31-33절을 중심으로 2H2S로 표현하기도 한다. HEART TO GOD (고전10:31)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을, HAND TO MAN (고전10:32-3) 베풀어 선 인간들이 세상에서 살맛나도록 돕는 손길을, SAVED TO SERVE(고전10:33) 모든 이가 복지 혜택을 받도록 봉사하고, SAVED TO SAVE (고전 10:33) 모든 이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전도할 사명이 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이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혈화 정신은 인류를 향한 구령애로 타오르는 불을 유지할 때 공격적인 전도(고후 5:14)를 할 수 있다.

18) 부정령 Bo Brekke, “우리는 가난한 자다”(We are the poor), 사관지(The Officer)- 2001년 4월호

19)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고 연합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연합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전 9:19-22). Incarnation Ministry를 실천하고 있다.

20) General, op.cit., p.4.

21) Ibid., pp.4-5. 구세군 교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나) 예수의 속죄(atonement)는 온 인류(for all)를 위한 것이다.

(다) 개심(conversion)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내적인 영적 변화(inward spiritual change)를 말한다.



사명²²⁾을 잘 감당하려는데 꼭 필요로 하는 은혜로운 지침서다.

(라) 죄에서 구원을 받은 후 계속 성결한 생활(holiness of life)을 가져야 한다.

22) Ibid., 구세군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희의 구주로 믿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구세군 선교 선언문: 구세군은 국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단체이다. 구세군이 전하는 말씀은 성서를 기초로 한다. 구세군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구세군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 Adams, T. Stephen. Holistic Ministry: A Compendium of the Best Practices in America. Alexandria: The Salvation Army National Headquarter, 2002.
- Badger, Mat. The Changing Nature of Salvation Army Officership: 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Institutionalization on the Mission of the Salvation Army, Final Report for M423 Research Topic, 2005.
- Baker, Frank. A Charge to Keep: An Introduction to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London: The Epworth Press, 1947.
- Bale, Malcolm. Marching On! The Salvation Army-Its Origin and Development, London: IHQ. 1990.
- Barclay, Robert. An 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 Being an Explanation and Vindication of the Principles and Doctrines of the People Called Quakers, London: Edward Marsh, 1849. 11th ed of 1st ed, 1675.
- Barnes, Cyril J. The Founder Speaks Again: A Selection of the Writings of William Booth, London: Salvationist, 1960.
- Begbie, Harold. Life of William Booth; The founder of The Salvation Army London: Macmillan, 1925
- Berkhof, Louis,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Eerdmans, 1974.
- Booth, W. Bramwell, Orders and Regulations for Social Officers (Men), London: The Salvationist Pub., 1915.
- Booth, W. Bramwell, Orders and Regulations for Social Officers (Women), London: The Salvationist Pub., 1820.
- Booth, Catherine. Aggressive Christianity, Toronto: William Briggs, 1883.
- Booth, Catherine. Papers on Godliness, London: IHQ. 1890.
- Booth, Catherine. Practical Religion, London: IHQ. 1891.
- Booth, W. Wycliffe, We Believe, Toronto: Salvation Army, 1960.
- Booth, William. The Christian Mission Magazine, July, 1876. How to Manage a Mission Station.
- Brook, Stephen. God's Army, London: Macmillan, 1998.
- Burtner, Robert W. & Chiles, Robert E. John Wesley's Theology: A Collection From His Work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Carpenter Minnie Lindsay, William Booth: Founder of The Salvation Army, London: Epworth Press, 1942.
- Cheydleur, John R. Beyond Passion: Developing Sustainable Structures for Our Future.
- www.salvationarmy-usaeast.org/resources/social_services/beyond_passion.pdf
- Cleary, John. Boundless Salvation: An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Theology of Salvationist Mission, up, 2001.
- Clifton, Shaw. Who are These Salvationists? An Analysis for the 21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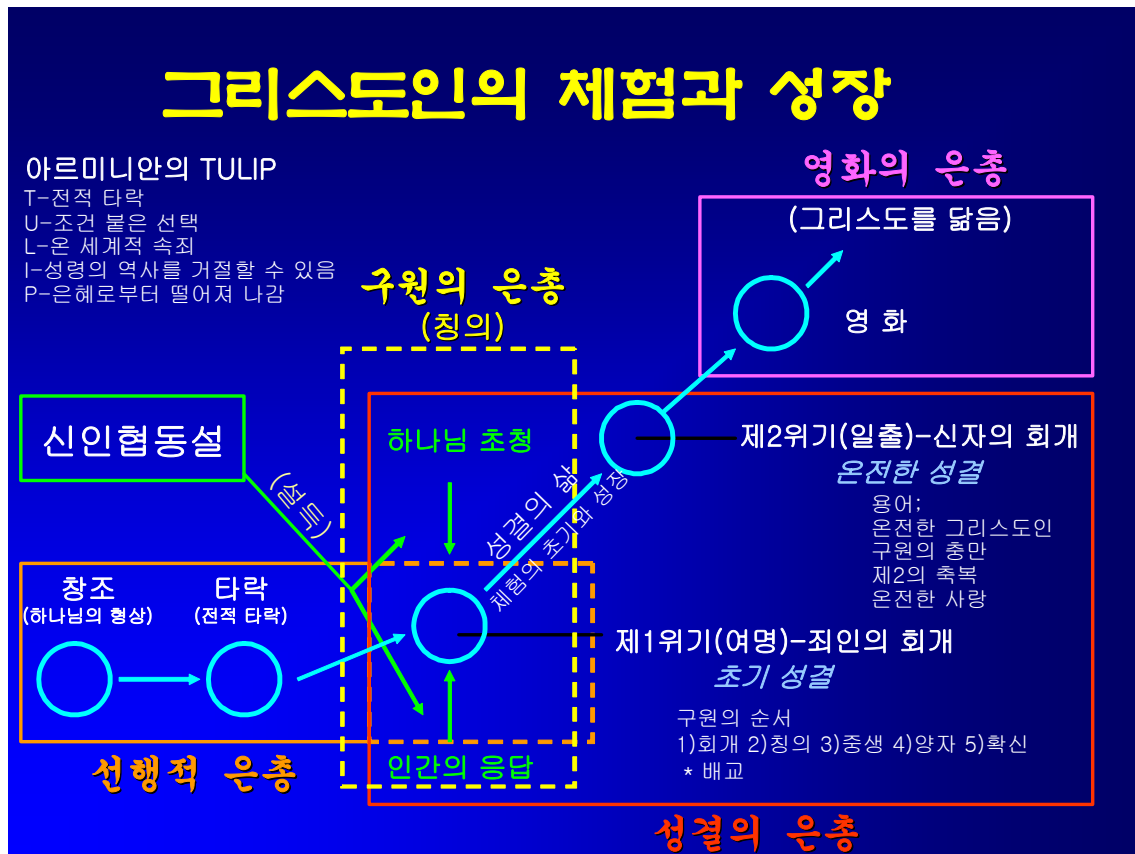
- Century, Alexandria: Crest Books, 1999.
- Cobb, John B. Lay Theology, Chalice Press, 1994.
- Cooke, William. Christian Theology: Explained and Defended, London: Parteidge and Oakey, 1853.
- Coutts, John J., The Salvationist, London: Mowbrays, 1977.
- Coutts, John J., This We Believe, Albans: Coalfield, 1976.
- Cox, Harvey. God's Revolution and Man's Responsibility, Dunn, James D. G. Baptism in the Holy Spirit, SCM, 1970.
- Engels, Frederick. Socialism: Utopia and Scientific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62.
- Field, Benjamin. The Student's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y,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86.
- Fidelsi, Red Cross Knights of The Salvation Army Toronto: Williamson, 1884.
- Gariepy, Henry. Songs in the Nigh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 General, Chosen To Be A Soldier : Orders and Regulations for Soldiers of the Salvation Army, London: IHQ., 1977.
- General, Orders and Regulations for Editorial and Literary Personnel, London: IHQ. 1990.
- General, Orders and Regulations for Soldiers of the Salvation Army, General, The Doctrine We Adorn, London: IHQ. 1982.
- General, 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 London: IHQ. 1955.
- General, 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 London: IHQ. 1969.
- General, Salvation Story: Salvationist Handbook of Doctrine, London: IHQ. 1998.
- Green, Roger J. Catherine Booth: A Biography of the Cofounder of The Salvation Army. Grand Rapids: Baker, 1996.
- Green, Roger J. War on Two Fronts: The Redemptive Theology of William Booth, Atlanta: The Salvation Army Supplies, 1989.
- Higgins, A. J. B. The Lord's Supper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1956.
- Hornby, G. G. The Methodist Church It's Origin, Division, and Reunion, London: Methodist Pub. 1932.
- Kew, Clifford. Closer Communion, London: The Salvation Army, 1980.
- Kew, Clifford. The Good Life, London: The Salvation Army, 1991.
- Kew, Clifford. The Salvation Army, Oxford: Pergamon Press, 1977.
- Kim, Deuk Joong. ed. The Johannies Studies, Seoul: Nathan Press, 1989.
- King, Charles. "Alliance on the March" Salvationist London: Salvation Army, 2.Feb. 2002.
- Käsemann, Ernst. Essays On New Testament Themes, London: SCM. 1964.
- Lany, Tony. The Lion Book of Christian Thought
- Larsson, John. Doctrine With out Tears, London: Salvationist, 1974.
- Larsson, John. Spiritual Breakthrough, London: Salvationist, 1997.



- Magnuson, Norris A, Salvation in the Slums Evangelical Social Work 1865-1920, Grand Rapid: Baker, 1990.
- Martin Luther Jr. King, Stride Toward Freedom: the Montgomery Story. New Your: Harper & Brothers, 1958.
- Mahan, Asa. Out of Darkness into Light; or The Hidden Life made Manifest. London: Wesleyan Conference Office, 1877.
- McGrath, Alister, Affirming your Faith; Exploring the Apostles's Creed, Leicester:IVP, 1991.
- Michell, Gordon, "Salvationist Doctrine," The Officer, 1973-1974,
- Murdoch, Norman H. Origins of the Salvation Army,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4.
- Murdoch, Norman H. Wesleyan Influence on William & Catherine Booth, 1985.
- Murdoch, Norman H. The Salvation Army and The Church of England 1882-1883, 1986.
- Needham, Phillip. D., Redemption and Social Reformation: A Theological Study of William Booth and His Movement, Th. M. thesi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67.
- Niebuhr, H. Richard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Henry Holt and Co, 1929.
- O'dea, thomas F. The Sociology of Religion, London: Prentice Hall, 1966.
- Parkin, Christine, The Ninth Point Today, The Officer, Sept., 1978.
- Peter Ferguson, Response to the Questions Relating to The Salvation Army's Non-Sacramental Position, Unpublished Paper, 1979.
- Rabinson, Earl, 'The History of Salvation Army Doctrine' Word and Deed: A Journal of Salvation Army Theology and Ministry, Vol.2. No.2. Alexandria: The Salvation Army,2000.
- Rhemiek, John R. A New People of God: A study in Salvationism, Des Plaines: The Salvation Army 1984.
- Rhemiek, John R. "The Theology of a Movement: The Salvation Army in its Formative Yea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Vol.22, Number1, Spring,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1987.
- Robert Barclay, An 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 London: Harris & Co.,1886.
- Sandall, Robert. The History of the Salvation Army, Vol.II. London: Thomas Nelson, 1966.
- Schaff, Philip. Creeds of Christendom, Salvation Army, Basic Social Services: An Introduction to Salvation Army Principles and Practices, Alexandria: The Salvation Army Eastern Territory, USA., 2002.
-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 International Headquarters,1955.
- Salvation Army, Heritage of Holiness, New York: Salvationist, 1977.
- Salvation Army, Holiness Readings, Salem: Schmul Publishers, 1984.
- Salvation Army, Notes For Doctrine Classes, Chicago: School for Officers Training, d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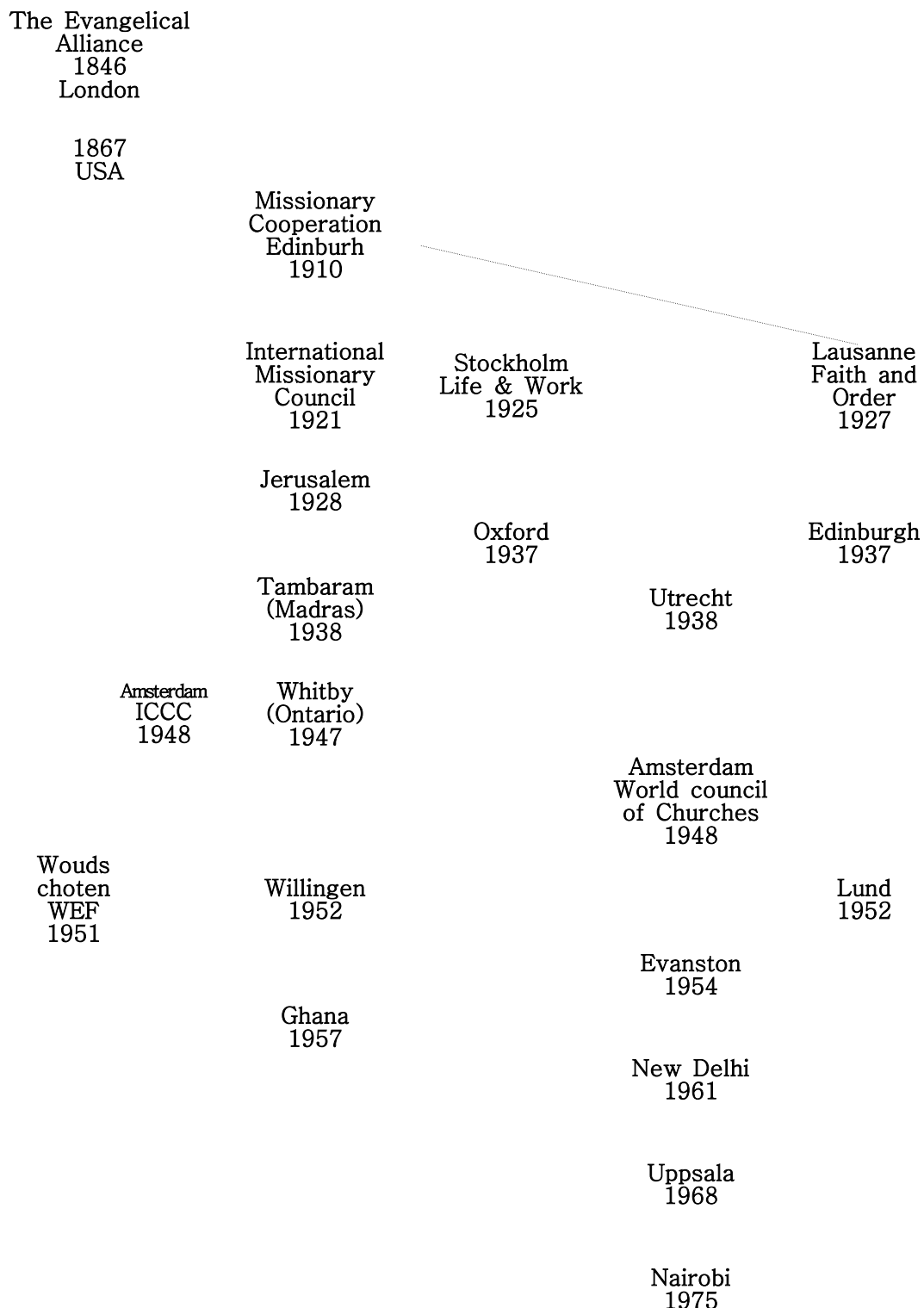
- Salvation Army. The Salvation Army Year Book 1976, London: Salvationist Pub., 1975.
- Salvation Army, The Officer, Vol.xliv. No.5 (May 1993)
- Salvation Army, They Said It: William and Catherine Booth, London: Salvationist Pub., 1978.
- Salvation Army, We Believe: A digest of Salvationist Doctrine, London: Salvationist, 1964.
- Stead W. T., General Booth: A Biographical Sketch, London: Isbister and Company, 1891.
- Taylor, Richard S. ed. Beacon Dictionary of Theology, Kansas: Beacon Hill Press, 1983.
- Unger, Merrill F., White, William, Nelson's Expository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 Vine, W.E., Unger, Merrill F., White, William, Vine's Complete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Nashville: Thomas Nelson, 1985.
- Waldron, John D. ed. Fan the Flame: A condensation of Charles G. finney's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New York: The Salvation Army, 1988.
- Waldron, John D. ed. The Salvationist and The Atonement, Oakville: The Triumph Press, 1982.
- Waldron, John D. ed. The Salvationist and The Scriptures, New York: The Salvation Army, 1988.
- Waldron, John D. The Quakers and the Salvationists, Atlanta: The Salvation Army, 1990.
- Walker, Williston. A 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Charles Scribner's, 1959.
- Watson, Richard. Theological Institutes, New York: Hunt & Eaton, 1850.
- Wiggins, Aarch R. The History of the Salvation Army Vol. V. 1904-1914
London: Nelson, 1968.
- Wiley, H. Orton & Culbertson, Paul T.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Kansas: Beacon Hill Press, 1961
- Wiseman, Clarence D. 'Call to Renewal and Change' Creed and Deed,
Ontario: Salvation Army, 1986
- Wynkoop, Mildred B. Foundations of Wesleyan Arminian Theology, Kansas: Beacon Hill Press, 1967.
- Yocum, Dale M. Holiness and Predestination, Holiness Church Theological Seminary.
- Yuill, Chick. We Need Saints! a fresh look at Christian Holiness,
London: The Salvation Army,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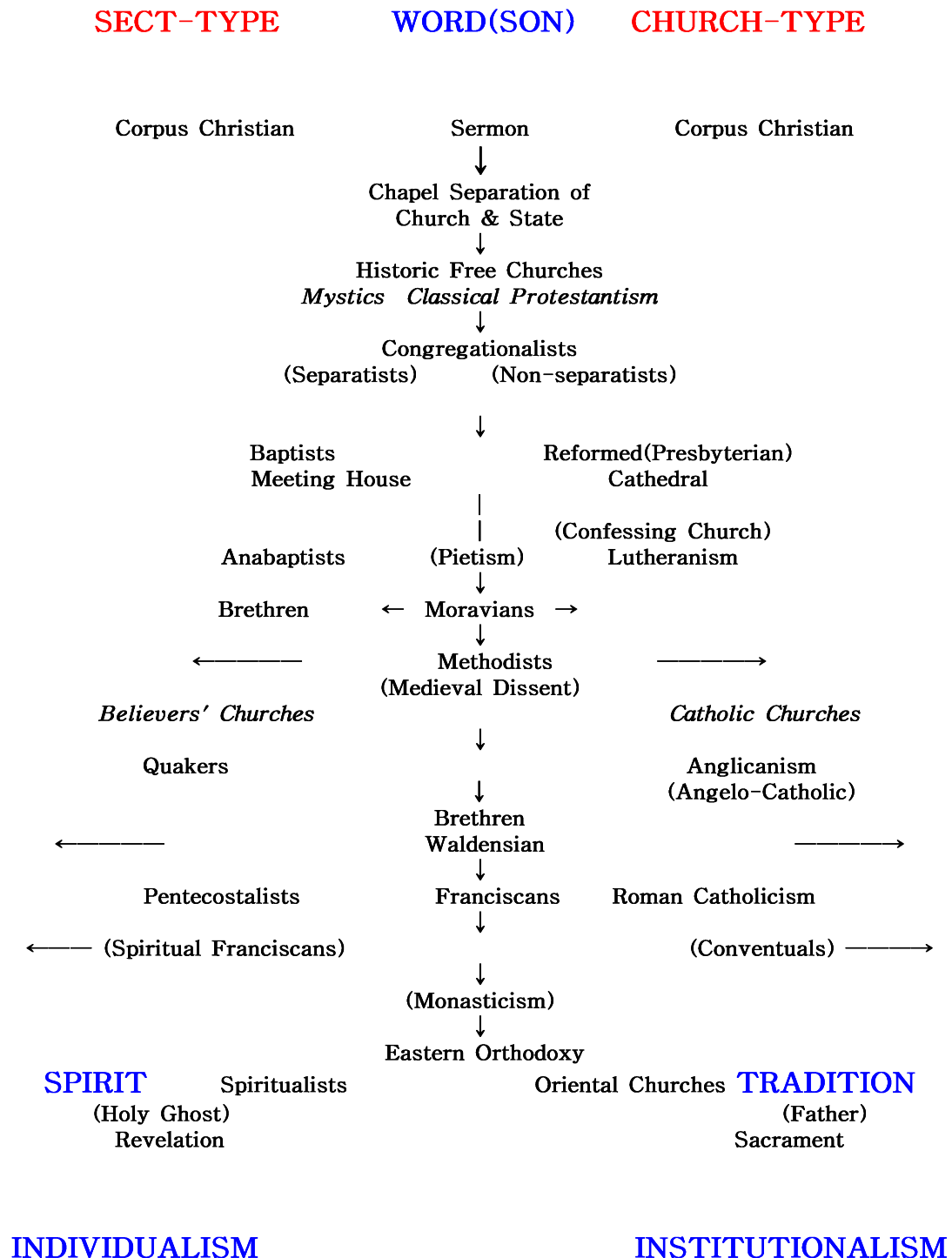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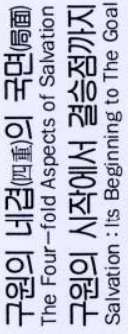
Commissioner S. L. Brengle



GLOBAL ECUMENICAL DEVELOPMENT









I was motivated to write this paper after attending The Salvation Army Training Officer College Summer Salvationist Seminar last July 2-5, 1984. After the seminar, I lectured to Salvation Army corps officer and social institution officer for 35 years.

I'm going to rearrange the development process of evangelical, spiri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Salvation Army Doctrine Formation and the Salvation Army Doctrine Handbook for the Cadet of Salvation Army Officer Training College.

However, it is not a simple research. Based from history, the formation of the Salvation Army doctrine is caused by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Whether God grafted together multiple doctrines in the world, the Salvation Army Doctrine establish by Salvation Army were identical in 111 countries activity important role in modern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The Salvation Army had influenced the viewpoints in theology, philosophy, history. The Salvation Army also employs a very dynamic approach and formed a deep root in mentality of all countries in the world influencing people and history.

William Booth begun his ministry work as a leader of The East London Revival Society from 1866 to 1867. The East London Association formed an association that uses only the bible as the basis of their soul-winning. On the contrary, William Booth believe that evangelism should be for all. He spreads the good news to anybody and even encourage them to join.

William Booth, however, did not organize or create a new denomination, nor did he intended to establish a new church and to detached a new sect, the para church. His works simply focus on evangelization and soul-winning of non-believers especially those that are not members of any sect. His works also aim to send these non-believers to church.

But, the Salvation Army of today is acting in the 111 countri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clearly. The Salvation Army spoke established process that The Salvation Army foundation process is similar as Institution of that must be Audience and Following Movement and Organization if Peter Worsley refers but group is established was formed in social Cadet Mat Badger.



Early the Salvation Army worker begin with conduction sermon in public service business and situation that is enemy of a rapid progress state. Conduction strategy of William Booth invaded poor these who curtail franchise, and lives in hand length area that do not reach of social help Victoria queen age. Area that people are starvation every day in area that these live and Huguenots parts that avoid religious tightness and comes refuge in 16-17 century from France live Lieutenant Jason Davies Kildea that subject persons of the Salvation Army work are Social Marginalities to call like.

In this manner, such as religion to opinion place that Marxists enjoy by word to public's opium interest incline must. Religion must handle ground thing and thing of sky at the same time and handle together time and eternity to his speech. Religion should acts from sideways horizon without acting in growing vertical line on. That is, religion is responsibility that Christian religion makes deep relation with work and human and another human who guide human to being God on specially. This speaks that Christian compound sound is wearing two personality soon. That is, one does to scare in eternity changing human's psyche, and the other is work which give one possibility to the human's soul because human changes surrounding circumstance that is placed. Christian religion compound sound has all ability of eternity and function of adjournment change, this plain by Mada. Occasion of this latter is thing which Christian religion is social responsibility having on this society.

William Booth rediscovers mission of New Testament's Church while propagate and raised social, that want to make remedy for indifferent churches at the time of to poor peoples who is estranged economically and spiritually voice. The Christian Mission began work which suffer by poverty and disease, hunger and ignorance and social evil etc. and helps these. Booth did not want that church encounters estrangement from poor peoples.

Preferably, wanted it real Christian church to comeback as missionary work community which pronounce good news to poverty people characters that church is not church to become church which equal mission of genuine church.

Catherine Booth that mean vision to Evangelical Socialism that Richard Niebuhr speaks insisted strongly being based by Wesley's Social Holiness mind, and William



Booth began to burn life to Salvation in the Slums.

Frederick Engels that is economist who establish Communist Manifesto together with Karl Marx (1818-1883) because then early the Salvation Army resuscitates conduction activity of 1) invitation church in situation place (1892) introduction of 『Socialism : Utopian and Scientific』 a 2) poor person appeal that is God's selected people, and opposes capitalism by 3) religious method, and rears community of resistance volitional personality of 4) invitation Christian religion class try to.

The Salvation Army 8th General Frederick Coutts(1963-1969) head is religious about Engels' Salvation Army and the first contents are right expression about analysis that is social studies school register, and criticized that the second contents are right expression half, and third and fourth contents are entirely wrong contents and correct Salvation Army's viewpoint.

In fact, William Booth signed to The Charter that is laborer exercise at that time. However, William Booth found new outlet after experience strong impression after is reformed in Nottingham Wesleyan Chapel.

William Booth discussed subject about Socialism with Stead at April, 1908. W. T. Stead recorded as following to The Daily Chronicle. "I have lived by Salvation Socialist. Salvation Socialist began for purpose is different from a Gradualist Socialism (Fabian Socialism)." At that time, William Booth contributed thing which The Salvation Army which guide historians is immense in society development. But, it is not said that William Booth is oneself economism sociologist. He spoke that was evangelist from beginning to end.

A hope that had inspired William Booth in his break with Methodism was that through the preaching of full and revived to a sincere concern for the souls of the people, and that through them would come about a nation-wide seeking after God. That hold spiritual reformism of gracious consideration was purpose as he evangelize passionately for full salvation only and revalidates function of traditional church and concern for the souls of the people about soul again seriously. He did upgrade evangelism function of universal church upgrade.



He was sublimated to new dimension that do to find God who is subkingdom to buy in the world by people who is concept of pontoon bridge that is rediscovered nowadays because passes over compound sound missionary work function of general church and lives along with the God.

He was sublimated to new dimension that do to find God who is subkingdom to buy in the world by people who is concept of pontoon bridge that is rediscovered nowadays because passes over compound sound missionary work function of general church and lives along with the God.

Booth looks for crime and poverty and losing by laziness within the Evangelical Social Work that is world and persuades, and allowed purpose when do it so that may do humanization because do to overcome bodily, material barrier that they are placed within the world and relieve psyche.

Booth said "We must not be prejudicial in any denomination. Our doctrine is in the Bible, and welcome God's word laying stress on co-workers that put heart and soul in believers and revival work making by standard in own faith and practice because it is work which pronounce happened good news that we do." At an annual meeting in 1867. Document to guide so that can bring up adherents and do Christian's life need and establish 7 doctrines.

1875, 7 doctrines and Rules of the Church Mission which is selected in the first annually meeting in 1870 in charter of mission were attached. Colonel Gordon Michael can not know definitely when rule of the Christian Mission was used from but possibility to go back by 1873 said that is, but Colonel Robert Sandall spoke that published mission rule that is selected in meeting in 1874 after it is rapidly in 1875.

When contest, the thir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alvation Army, is held at London in 1904, William Booth reaffirmed by approval about the Salvation Army name and the Salvation Army doctrine which is report in agreement in 1878 from members who drive while 49 territorial representatives gather. And The Salvation Army doctrine is irreplaceable. The Salvation Army 10th General Clarence Wiseman(1974-1977) recollected that spoke that this doctrine is the Salvation Army's a charter as long as Salvation Army exists. 1980, 11 doctrines are doing so that



unify the Salvation Army soldier's faith who use various culture and language of the world 111 country up to the present without a change since is selected by one in The Salvation Army foundation document in 1878 before The Salvation Army Act is added.

Because The Salvation Army's purpose of document publication is relieved equally with The Salvation Army oneself's purpose that study background of historic development of The Salvation Army doctrine formation as it is thing which done man and woman imitate our Lord Jesus Christ's service and spirit of sacrifice and turn glory to God that lead soul who become able soul winner that can answer Bible as is confident and plain and simple being theological and understands to person who to The Salvation Army soldier of eternity ask Full Salvation's way be. (I Peter 3:15, John 1:19)

Good Guerrilla that the Salvation Army soldier, command great achievement member, is second blessing entire sanctification. Do it so that may do and establishes Jesus' good soldier affairs identity and prevents (II Timothy 2:1) other compound sound and is when band together without Japanese that Salvation Army by some religion philosophical theory is detached. Specially, they are when sustain Salvationist Theology training to other person passing essential studying contents as is intelligent to a person who Salvation Army soldier is loyal as Deitrich Bonhoefer, (1906-1945) said "Christianity without discipleship is always Christianity without Christ". (II Tim. 2:2)

2002, after is elected as the Salvation Army 17th General John Larsson (2003-2006) will be service during triple essence of the Salvation Army to save souls, to grow saints, to serve suffering humanity. To practice this the great holistic ministry, it is that do it so that able soul winner who Salvation Army soldier a person teaching soldiers truth of believing eternity may become. Is when help in Christ's sanctification life of Good Guerrilla in the war.

The Salvation Army emphasized experience of nature and practice of holiness and pure life as spoke that George Scott Railton does not enjoy favor of nature and it may be impossible to achieve Salvation Army officer function effectively.

Specially, The Salvation Army 17th General John



Lasson(2002-2006) should a force to place that do force to equal holy employment of God leaving in The Salvation Army in this age. Must endure pain of The Salvation Army missionary work, and do self development. George Scott Railton said that it may be impossible to achieve The Salvation Army Officership effectively if do not grace of sanctification's life. The Salvation Army give emphasis experience of entire sanctification and practice of life of sanctification.

Specially, John Lasson General emphasized that must gather to place that do a force to equal holy people of God leaving in Salvation Army in this age. We must endure pain of Salvation Army missionary work, and do self development. Therefore first, let's escape in Our Corps concept. Second, let's show that we are part of glorious The Body of Christ church. Third, by integrated mission whole gospel to whole person to do whole mission make efforts let's. Fourth, let's display kind quality that can approach all levels of society in local community broadly. Fifth, appealed to make efforts to Army's special mission for encountering margin people. We are that when Our Lord Jesus Christ comes again, the whole church must deliver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The Salvation Army doctrine is to help to do all soldier's dignity and mission.

Therefore, study for God's revelation through God's nature and purpose, human's action, Jesus' living in the world. We believe Titus 1:9 "Holding fast the faithful word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that he may be able both to exhort in sound doctrine and to refute those who contradict ." And II Timothy 2:2 word "And the things which you have heard from me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these entrust to faithful men, who wi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Does the Salvation Army doctrine have memorized. why, am myself doing Ministry as the Salvation Army officer? Why, should enrollment to Salvation Army good soldier?

The Salvation Army doctrine the Salvation Army is the Salvation Army and the Salvation Army Guerrilla who fight for God does so that observe word of truth and make leadership training of good disciple of Jesus who can admonish a person by pure gospel and blame need.

Signature is sealed and must accept these 11 doctrine in Salvation Army soldier written oath when it is soldier



enlistment if join the army to Salvation Army soldier because Salvation Army doctrine is profession and Salvation Army soldiers are contents to pronounce whole life.

Also, The Salvation Army doctrine makes repentance by soldiers of Jesus by The Salvation Army spirit, and accomplishes excellent partner of commanding officer, and makes soul-winner. The Salvation Army Doctrine is necessity indispensable basic element in the soul-winner and mercy seat counsellors, seeker for salvation, seeker for sanctification and good trainer for ministry of visitation education.

Salvationist get more complexity and empty theory than simple practical knowledge of human, and hold of life right and work which recover state separation from God by result that human does sin is primary assignment. The Salvation Army Song Book make up of subject about Salvation and Holiness is 181 tunes, and Return to Christ is 177 tunes.

The Salvation Army's doctrine teaches to have experience of non-Christian to salvation assurance and soldiers to experience of entire sanctification. And help difficult problem of poor people and help so that they can have consecrate life.

The Salvation Army opposes immoderate form and ritual like Quaker believers. God's spirit can do communication with person's spirit directly without consciousness or material tool and to emphasize that mediator is Jesus one person only between God and human, the emphasize soldier evangelize by love and humble. The Salvation Army emphasizes anyone that can get blessing of eternity if believe that repentance toward God,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and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Any General prohibited any work which congregation whole closes in The Lord's Prayer meaninglessly at public meeting.

Salvation Army doctrine emphasizes social justice that serve personal salvation from sin and social salvation from evil in evangelical theological meaning wholly and that serve. Therefore, Salvation Army doctrine intending wholly sanctified of individual and society included Holistic Theology.

Now, Let's study Earl Robinson's The History of Salvation Army Doctrine (2000) and Gordon Micheal's



Salvationist Doctrines(1973) and John J . Coutts' This We Believe: Make literature of A Study of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Salvation Army Doctrines(1976). Firstly, Various Theorie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Salvation Army's 11 Doctrine Formation. Secondly, The Salvation Army, Founder of Various World Faith. Thirdly, The Salvation Army Doctrine Formation-The Growth Progress, Fourth, The Salvation Army Doctrine Formation-Growth Period. And The Development of the Salvation Army Handbook of Doctrine.

Thought that remains and we are specific literature that the provable dramatic events are recorded of recorded old literature or papers are lacking parts research of background of The Salvation Army Doctrine Formation.

Therefor, I want to study this subject to reader more faithfully and give encouragement and impact at the same time so that may with your share.

This paper is not official data from Salvation Army. But I will be preparing this paper for Cadet's education.